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논문

# 정주공간 유형별 다면적 삶의 질 비교

## - 역량의 수준 및 영향요인 분석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학

권 인 혜

# 정주공간 유형별 다면적 삶의 질 비교

## - 역량의 수준 및 영향요인 분석 -

지도교수 박 인 권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학
권 인 혜

권인혜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위 원 장 전 상 인 (인)

부위원장 이 영 성 (인)

위 원 김 현 호 (인)

위 원 임 동 균 (인)

위 원 박 인 권 (인)

# 국문초록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거대화되고 있는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 도시의 삶은 다양한 기회와 이점을 제공하지만, 대도시와 같은 고도의 집적된 환경이 사람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도시화와 삶의 질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다소 엇갈리는 결과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거주민의 삶의 질을 파악한 연구들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 자료의 한계, 주로 분산분석이나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모형의 더미변수를 통해 차이를 확인하는 등 분석 방법의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도시성 및 농촌성이라는 지역 맥락의 차이를 고려하여 상이한 정주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과 영향요인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Amartya Sen의 역량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을 통해 삶의 질을 이해함으로써 물질적 토대로서 삶의 조건 및 안녕의 상태로서 삶의 결과 측면을 포함하고, 전반적 삶의 질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도록 다차원적 삶의 질을 다루었다. 분석을 위해 전국의 162개 전 시·군을 수도권 도시, 비수도권 도시, 농촌 등 세 가지 정주공간으로 유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18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삶의 질 수준은 전반적 삶의 질 및 9개 영역별 삶의 질에 대해 응답자가 자기 보고한(self-reported) 만족도 점수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연구의 첫 번째 목적으로 정주공간 유형 간 삶의 질 수준을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방법을 통해 비교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을 통해 응답된 만족도에서 개인특성 효과를 분리(고정)하여 지역 효과에 초점을 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시·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을 산출하여 비교했다. 다음으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특정 정주공간

유형 선택·거주의 효과를 처리그룹에 대한 평균처리효과(ATT)를 도출하여 비교했다.

분석 결과는 농촌 주민의 행복감이 수도권 도시나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도시 유형 간 비교할 때는 수도권 도시 주민의 행복감이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더 낮지만 유의하지 않다.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에서는 분석방법에 따라 농촌(ATT) 또는 수도권 도시(시·군 점수)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비수도권 도시는 두 방법에서 모두 만족 수준이 가장 낮다. 그러나 지역생활 만족의 경우 모든 유형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9개 영역별로 정주공간 유형 간 주관적 삶의 질의 비교 패턴을 도출한 결과, 수도권 도시에서 상대적 우수성을 보이는 영역과 농촌에서 상대적 우수성을 보이는 영역으로 구분된다. 기초생활환경, 의료,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수도권 도시 주민, 환경, 공동체, 복지 영역에서는 농촌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높다. 비수도권 도시가 강점을 갖는 영역은 발견되지 않고, 일자리·소득, 문화·여가, 안전 등 영역에서는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낮다.

연구의 두 번째 목적으로 정주공간 유형 간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주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도출했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물질적 토대로서 지역의 객관적 정주여건이 주민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정주공간 유형별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이를 위해 시·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를 종속변수로 시·군 수준에서 분석한 다중회귀모형과 설문조사 응답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다층 분석한 위계선형모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주공간 유형별로 지역의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부족한 자원과 관련하여 지역여건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가령 의료 영역의 경우, 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이 높고 병원 서비스 권역내 인구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중심도시의 탁월성 중 하나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대도시의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환경

은 중요도가 높은 영역이다. 농촌 유형에서는 수도권 도시 유형과 마찬가지로 응급의료시설 접근성과 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의 양(+)의 영향과 함께, 유형 중 유일하게 종합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다. 농촌지역의 경우 의료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그러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점점 더 고도화되는 도시화 경향 속에서도 농촌이 갖는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수도권 도시의 경우 삶의 질 관점에서 애매한 위치를 보여 점점 더 양극화되는 도시화 추세 속에서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향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대도시를 벗어나 지역에서 로컬의 가치를 추구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개성, 다양성, 삶의 질,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는 라이프스타일 시대로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화의 확장하는 힘의 반대 편에서 농촌과 비수도권 도시가 존속·발전해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만이 가진 고유성과 같이 보다 본질에 주목하여 라이프스타일 시대에 사람들이 찾는 가치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출해나가야 한다.

**주요어 : 삶의 질, 역량 접근법, 정주공간, 도시화, 농촌의 가치**
**학 번 : 2012-30663**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 6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용어 ····· 9

제2장 이론적 고찰 ····· 12

제1절 삶의 질의 개념과 집합적 접근 ····· 12

제2절 역량 접근법과 다면적 삶의 질 ····· 22

제3절 정주공간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 30

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9

제3장 분석 자료 및 방법 ····· 42

제1절 변수 및 분석 자료 ····· 42

제2절 분석 지역 및 정주공간 유형 ····· 60

제3절 분석 방법 ····· 63

제4장 정주공간 유형별 삶의 질 수준 ····· 66

제1절 삶의 질의 지역 평균 비교 ····· 66

제2절 시·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를 통한 비교 ····· 72

제3절 성향점수매칭법을 통한 비교 ····· 77

제4절 정주공간 유형 간 주관적 삶의 질 비교 패턴 ····· 88

제5장 정주공간 유형별 삶의 질 요인 ····· 92

제1절 삶의 질 요인 분석 방법 ····· 92

제2절 정주공간 유형별 주관적 삶의 질 영향요인 ····· 98

제6장 결론 ····· 120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120
제2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 124

참고문헌 ····· 130

부록1. 역량 접근법에 기반한 선행연구의 지표체계 ····· 140

# 표 목 차

<표 2-1> 빈호벤의 네 가지 삶의 질 ····· 28

<표 3-1> Nussbaum이 제시한 중심 역량 ····· 44
<표 3-2>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 기초생활환경 ····· 48
<표 3-3>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 일자리·소득 ····· 49
<표 3-4>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 환경 ····· 50
<표 3-5>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 공동체 ····· 51
<표 3-6>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 의료 ····· 52
<표 3-7>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 안전 ····· 53
<표 3-8>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 교육 ····· 54
<표 3-9>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 문화·여가 ····· 55
<표 3-10>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 복지 ····· 56
<표 3-11> 설문조사 응답 현황 ····· 58
<표 3-12> 삶의 질 영역별 만족도 세부내용 ····· 59
<표 3-13> 정주공간 유형별 시·군 및 응답자 수 ····· 62

<표 4-1> 지역의 객관적 정주여건: 기초생활환경, 일자리·소득, 환경, 공동체 ·· 68
<표 4-2> 지역의 객관적 정주여건: 의료, 안전, 교육, 문화·여가, 복지 ·· 69
<표 4-3> 설문조사 만족도: 지역생활 만족, 행복 ····· 70
<표 4-4> 설문조사 만족도: 9개 영역 ····· 71
<표 4-5> 시·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 지역생활 만족, 행복 ····· 75
<표 4-6> 시·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 9개 영역 ····· 76
<표 4-7> 정주공간 유형의 효과 분석을 위한 처리그룹과 비교그룹 ·· 79
<표 4-8> 성향점수 추정을 위한 변수 및 기술통계 ····· 79
<표 4-9> 성향점수 추정을 위한 로짓모형 추정 결과 ····· 80
<표 4-10> 설명변수의 매칭 전후 균형: 농촌-수도권 도시, 행복, 이웃매칭(1:1) · 82

<표 4-11> 정주공간 유형의 삶의 질 효과(ATT): 지역생활만족, 행복 · 84
<표 4-12> 정주공간 유형의 삶의 질 효과(ATT): 기초생활환경, 일자리·소득, 환경 · 85
<표 4-13> 정주공간 유형의 삶의 질 효과(ATT): 공동체, 의료, 안전 · · 86
<표 4-14> 정주공간 유형의 삶의 질 효과(ATT): 교육, 문화·여가, 복지 · · 87

<표 5-1> 전반적 및 영역별 주관적 삶의 질 ICC ····· 94
<표 5-2> 위계선형모형 변수 구성: 기초생활환경 영역 예시 ····· 98
<표 5-3>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시·군 점수): 기초생활환경 ····· 99
<표 5-4>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개인 만족도): 기초생활환경 ··· 100
<표 5-5>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시·군 점수): 일자리·소득 ··· 101
<표 5-6>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개인 만족도): 일자리·소득 ··· 102
<표 5-7>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시·군 점수): 환경 ····· 103
<표 5-8>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개인 만족도): 환경 ····· 104
<표 5-9>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시·군 점수): 공동체 ····· 105
<표 5-10>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개인 만족도): 공동체 ····· 106
<표 5-11>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시·군 점수): 의료 ····· 107
<표 5-12>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개인 만족도): 의료 ····· 108
<표 5-13>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시·군 점수): 안전 ····· 109
<표 5-14>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개인 만족도): 안전 ····· 110
<표 5-15>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시·군 점수): 교육 ····· 111
<표 5-16>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개인 만족도): 교육 ····· 112
<표 5-17>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시·군 점수): 문화·여가 ···· 113
<표 5-18>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개인 만족도): 문화·여가 ···· 114
<표 5-19>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시·군 점수): 복지 ····· 115
<표 5-20>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개인 만족도): 복지 ····· 116
<표 5-21> 지역생활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 ····· 118
<표 5-22> 행복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 ····· 119

# 그 림 목 차

<그림 1-1> 삶의 질의 세부개념 구분 ····· 10

<그림 2-1> 연구에서 다루는 삶의 질의 세부개념 ····· 17
<그림 2-2> 역량 접근법의 핵심 개념들의 관계 ····· 25
<그림 2-3> 역량의 성취에 작용하는 다면적 차원들 ····· 28

<그림 3-1> 연구 내용에 따른 분석 방법 ····· 65

<그림 4-1> 성향점수 분포와 공통영역 산출 ····· 81
<그림 4-2> 정주공간 유형 간 비교 패턴: 전반적 주관적 삶의 질 ·· 89
<그림 4-3> 정주공간 유형 간 비교 패턴: 9개 영역별 주관적 삶의 질 ·· 91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세계의 모든 곳은 어느 정도는 도시화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Soja, 2014: 285)는 Soja의 주장과 같이 전 지구적 범위에서 작동하는 팽창적 도시화 메커니즘으로서 행성적 도시화(planetary urbanization)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Neil Brenner를 중심으로 한 최근까지의 논지에 따르면 도시 중심과 메트로폴리탄 지역, 도시 외곽지 등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 범주에서 벗어나 있던 사회공간적 방식과 인프라구조 연결망마저도 전 세계적인 도시적 환경의 구성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도시화가 세계의 부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처리 과정이 되었고, 도시(the urban)는 점점 더 자본주의의 사회·문화와 정치·경제 관계들이 얽혀있는 전 세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도시적 공간이 행성적 규모의 도시화 처리 과정에 대체로 통합되어져 도시적 세계의 바깥 공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Brenner and Schmid, 2014: 751)고 말한다.

우리 사회 역시 지속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방향은 점점 더 거대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의 도시 거주 비율은 1970년에 과반이 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이후로는 계속 90%가 넘는 수준을 보인다. 2020년 기준, 국토의 1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가 살고 있다.[1] UN이 최근 공식 채택한 새로운 도시 개념에

1) 도시 거주 비율은 1970년 53.7%로 과반이 된 후 1980년 75.1%, 1990년 83.8%로 높아졌다. 2005년에 90.1%로 90%를 넘어섰고, 2010년부터 91%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 OECD가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22개 도시권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영국 96권역, 이탈리아 84권역 등과 비교할 때 대도시 중심의 도시화 추세가 훨씬 강하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 집중이 지속되는 한편 메가시티 구상과 같은 거대도시 지향도 존재한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더욱 고도화되면서 인구 천만 명이 넘는 초대형 도시인 메가시티가 부상하는 현상 가운데 우리 사회는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필적하는 메가시티를 전략적으로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메가시티 정책[2)]은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비견할 만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거대 도시권을 형성함으로써 권역별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 국토적으로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시의 삶은 분명 다양한 경제적 기회와 어메니티, 편리를 제공한다. 상위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집적의 혜택과 어메니티는 대단히 다양하고(Lenzi and Perucca, 2021: 2744), 대도시의 집적경제는 매칭과 공유, 학습 측면에서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Duranton and Puga, 2004). 도시 생산성 측면에서 얻는 혜택뿐만 아니라 소비 어메니티 중심으로서 도시의 강점도 존재한다. Glaeser et al.(2001)은 사람들이 점점 더 부유해짐에 따라 거주지 결정에 있어 지역의 삶의 질이 더욱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네 가지 도시 어메니티와 관련한 매력을 조명한다. 도시에는 극장, 레스토랑, 매력적인 사회적 협력자(partners)와 같은 매우 다양한 서비스와 소비재가 존재하며, 미국과 프랑스의 풍부한 소비재 도시들은 지난 수십 년간 더욱 빠르게 성장해왔다. 소비자들은 생활을 즐겁게 만드는 건축미와 같은 도시의 미적인 물리 환경에도 가치를 부여한다. 좋은 교육, 낮은 범죄 등과 같은 높은 수

2) 2021년 4월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공동주관)가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테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협력 지원반을, 자치분권위원회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을 운영한다.

준의 공공서비스는 고학력의 인적자원을 유치하도록 한다. 도시의 이동서비스가 제공하는 빠른 속도 또한 필수적인 어메니티다(Glaeser et al., 2001: 27-33).

반면 일찍이 20세기 초에 사회학자 Simmel이 그의 논문 '대도시와 정신적 삶'(1903)에서 대도시의 삶이 스트레스와 비인간성(imporsonality)을 높이고 사람들의 정신적 삶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제기한 것처럼 도시적 삶이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이는 도시적 불안(urban malaise)과 사회적 스트레스, 정신질환과 같은 건강 측면에서 도시사회학자들이 강조하는 대규모 중심지의 폐해(Fischer, 1973; Lederbogen et al., 2011), 보다 작은 규모의 중심에 대한 선호(Fuguitt and Brown, 1990) 등 덜 밀집된 환경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더 높다는 입장이다. 수도와 같은 대도시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불평등 정도가 삶의 질을 낮춘다는 보고(Piper, 2015)나 녹지공간과 자연환경, 소음 등 환경적 측면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도 확인된다(Verheij et al., 2008; Van Praag and Baarsma, 2005).

오랜 삶의 질 논의가 싹트게 된 배경도 경제적으로 발전된 사회에서 나타난 병리적 현상들과 무관하지 않다. 서구사회의 물적 성장 이면에 나타나는 사회문제들에 직면하면서 더 높은 경제발전과 물질적 풍요를 이룬 사회가 진정으로 진보한 사회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진보한 사회가 추구하는 삶의 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적 자각 이후 삶의 질 주제는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탐구되어 왔다. 심리학, 공공보건학 분야부터 경제학, 정책학, 계획학 등 광범위한 학문영역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고민했다. 삶의 질에 미치는 공간의 영향력이 관심을 받으면서 거주자의 삶의 만족,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효과와 도시화 효과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수행되어 왔다(Hand, 2020: 802).

그렇다면 사람들의 삶의 질과 도시적 삶 혹은 농촌적 삶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도시에서의 삶이, 아니면 농촌에서의 삶이 더 행복한가? 그러나 삶의 질은 그렇게 한 방향으로 단순하게 정리되기 어렵다. 더구나

도시의 삶이 더 행복하다면－또는 그 반대라면－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행복한 시골농부와 불행한 백만장자’ 같은 비유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해석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한다.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을 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질이 다양한 삶의 영역(domains)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지된다는 점과도 관련될 것이다. 도시는 거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료, 문화·여가 등과 같은 각종 서비스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누릴 수 있고, 주요 교통인프라에 대한 접근성도 뛰어나다. 일자리 기회가 더 풍부하고 다양하며 집적경제 속에서 사람들 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도 도시의 강점이다. 반면 도시에서 다양한 편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집적경제는 혼잡과 불균형적인 밀집을 발생시킨다. 도시에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기오염, 소음과 같은 공해, 범죄 등 요인들이 보다 집중되어 있고, 삶의 만족을 높이는 자연환경과 경관 어메니티를 가까이 누리기 어려운 면도 있다.

실제로 도시화와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를 탐구한 국내외의 연구 결과는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다. 농촌 거주자의 삶의 질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결과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결과도 상존하고, 도시-농촌 간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지 않거나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다수의 연구가 경제적으로 발전된 사회에서는 도시에 비해 농촌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대체로 인정되는 경향이라고 밝히고 있지만(Burger et al., 2020 등), 그렇게 확정하기에는 실증적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국내 거주민의 삶의 질을 파악한 연구들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 자료의 한계, 그리고 주로 분산분석을 통해서나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모형의 통제변수로서 더미변수를 통해 지역유형 간 차이를 확인하는 등 분석 방법의 한계를 보인다.

이 연구는 도시성과 농촌성이라는 지역 맥락의 상이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정주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과 영

향요인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martya Sen의 역량 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을 통해 삶의 질을 이해함으로써 물질적 토대로서 삶의 조건 및 안녕의 상태로서 삶의 결과 측면을 포함하고, 전반적 삶의 질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도록 다차원적 삶의 질을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을 위해 전국의 162개 전 시·군을 수도권 도시, 비수도권 도시, 농촌 등 세 가지 정주공간으로 유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18년에 실시한 전국단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은 전반적 삶의 질 및 9개 영역별 삶의 질에 대해 응답자가 자기 보고한(self-reported) 만족도 점수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정주공간 유형 간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응답 점수 평균을 비교하는 것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방법을 통해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ⅰ)회귀분석을 통해 응답된 만족도에서 개인특성 효과를 분리(고정)하여 지역 효과에 초점을 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도출하여 비교하는 한편, (ⅱ)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을 이용하여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특정 정주공간 유형의 효과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삶의 공간으로서 각 정주공간의 가능성을 전반적 및 영역별 삶의 질의 상대적 우수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주공간 유형 간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물질적 토대로서 지역의 객관적 정주여건이 주민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정주공간 유형별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통해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이 연결되는 관계를 확인하고, 서로 다른 지역 맥락 속에서 상이하게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도출했다.

##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의 구성과 방법을 설명했다. 연구에서 다루는 공간적·시간적 범위, 그리고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해 설명했다.

2장에서는 관련 문헌들에서 사용된 삶의 질 및 유사 용어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삶의 질의 개념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삶의 질의 세부개념을 구분했다. 연구에서 다루는 삶의 질의 다면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삶의 질(안녕)을 이해하는 개념적 틀로서 Sen의 역량 접근법을 고찰했다. 또한 이 연구가 개인의 삶의 질보다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적(aggregated) 삶의 질의 관점으로 접근하며, 삶의 질 인지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개인의 내적 차원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갖지만, 그 상대적 영향력은 작더라도 다수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의 의미에 주목하여 삶의 질에 접근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도시화 수준을 고려한 공간 유형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다룬 연구, 공간 유형에 따른 삶의 질 결정요인의 차이를 다룬 연구를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수행된 공간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했다.

3장에서는 역량 접근법을 바탕으로 삶의 질 구성 영역과 측정지표를 구성하고 분석 자료에 대해 설명했다. Nussbaum의 중심 역량 목록을 비롯한 관련 선행연구의 지표를 검토하고,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 지표 자료의 구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환경, 일자리·소득, 환경, 공동체, 의료, 안전, 교육, 문화·여가, 복지 등 9개 영역과 지표를 구성했다.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는 지역 차원의 정주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9개 영역별로 주민의 삶 영위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와 관련한 측정지표를 구성했다. 주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로는 2018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만족도 설문조사' 자료의 전반적 만족도(지역생활에 대한 만족, 행복)와 9개 영역별 만족도를 사용했다.

정주공간 유형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실증 분석하기 위해 16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도권 도시, 비수도권 도시, 농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는 행정체계상의 시와 군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고,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의 경우는 수도권 입지 여부에 따라 세분한 것이다.

이 같은 분석 자료 구축 및 정주공간 유형화를 바탕으로 연구의 주요 내용에 따른 분석 방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4장에서는 정주공간 유형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을 분석·비교했다. 우선 객관적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역의 정주여건과 주관적 삶의 질로서 설문조사에서 응답된 만족도를 분석하여 삶의 질의 지역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응답된 만족도를 분산분석을 통해 비교하는 방식보다 신뢰성 있는 비교 결과를 도출하고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첫째로 회귀모형의 종속변수인 응답된 만족도에서 응답자 개인의 속성을 설명하는 변동 분을 최대한 제외(개인특성 통제)한 상태에서 162개 시·군 더미변수의 계수 값을 추출하고, 여기에 개인효과에 따른 값(전체 응답자의 평균적인 속성을 가진 개인을 상정)을 더하여 구한 '시·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를 산출하여 비교했다. 이 점수는 전체 응답자의 평균적 속성을 갖는 가상의 개인이 각 시·군에서 느끼는 삶의 질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응답된 만족도에서 개인특성 효과를 분리해 내어(전 지역에 동일한 조건으로 고정) 지역 효과에 초점을 두고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로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개인이 특정 정주공간 유형을 선택·거주하는 처리의 효과를 분석·비교하고자 했다. 이는 개인특성 변수들을 사용하여 각 응답자의 성향점수를 구하고, 이 점수를 이용한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정주공간 유형 간 유사한 속성을 가지는 응답자끼리

매칭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성향점수매칭법을 통해 어떤 정주공간 유형에 거주(처리)하는 것이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 갖는 효과를 '처리그룹에 대한 평균처리효과'를 도출하여 비교했다.

이러한 두 가지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종합하여 전반적 및 9개 영역별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 정주공간 유형 간 나타나는 상대적인 삶의 질 수준의 패턴을 도출했다.

5장에서는 서로 다른 지역맥락 속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주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 차이를 정주공간 유형별로 확인했다.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을 식별함으로써 주관적 삶의 질과 객관적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특히 사람들이 정주하는 환경적 조건과 관련되는 지역여건 변수에 초점을 두고, 개인 수준의 조건으로서 응답자 특성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정주공간 유형별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각 유형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그 상이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영향요인 분석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수행했다. 첫째로 시·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분석단위가 시·군인 지역수준 분석(다중회귀모형)을 실시했다. 둘째로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설문조사에 응답된 만족도)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 특성을 포함하는 1수준과 지역 특성을 포함하는 2수준으로 구성된 다수준 분석(위계선형모형)을 실시했다.

마지막 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했다.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용어

###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의 162개 전 시·군이다. 구체적으로 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1개 특별자치시(세종), 75개 시와 77개 군(광역시 소속 5개 군 미포함), 2개 행정시(제주·서귀포)가 해당된다. 162개 시·군에 대해 행정체계상의 시(市)와 군(郡) 기준, 그리고 수도권 입지 여부(시의 경우) 기준을 적용하여 수도권 도시(30개 시), 비수도권 도시(55개 시), 농촌(77개 군) 등 세 가지 정주공간 유형으로 구분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2018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역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도출한 주관적 삶의 질 결과는 2018년 단년도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이다.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의 경우 주관적 삶의 질 측정자료와 시기를 일치시켜 2018년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의 자료 구득이 불가한 지표의 경우에는 2018년과 가장 근접한 구득 가능한 자료를 사용했다.

### 2)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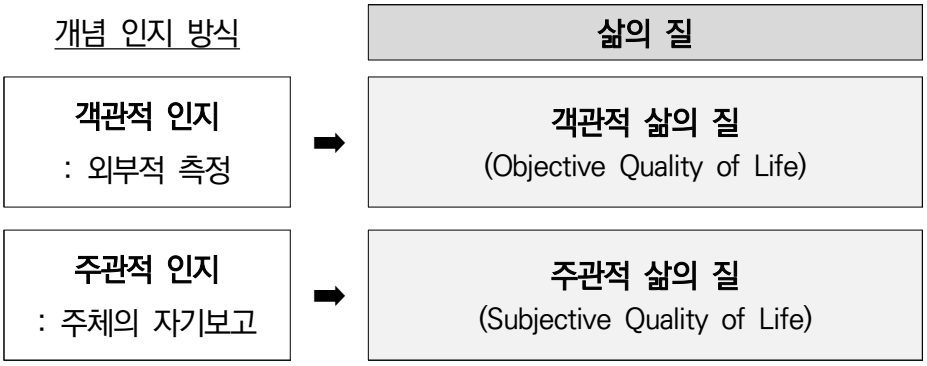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개념이나 그 구성요소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모호성과 의미 경계를 특정하기 어려운 포괄성을 특징으로 하며, 합의된 보편적 정의나 접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의 관련 문헌에서는 삶의 질이 안녕(well-being)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웰빙, 복

지, 삶의 만족, 행복감 등의 유사 용어들과도 명확한 개념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삶의 질을 무엇으로 측정하는가는 오랜 삶의 질 논의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초기 논의에서는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 양 입장 간 다소 대립적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삶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하면서 주관적 만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상호보완적 입장이 우세하며, 삶의 질 개념이 포함하는 범주 자체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이 결합되고 통합된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삶의 질 개념을 인지(recognition) 방식을 기준으로 (ⅰ)객관적 삶의 질(objective quality of life)과 (ⅱ)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quality of life)로 세부개념을 구분한다(그림 1-1). 이는 인식론적 차원으로서 개념의 인지 방식이 외부적으로 관찰된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한 것인지, 삶의 주체가 지각하고 평가하는 주관적 방식의 인지인지에 따른 구분이다. 이 기준에 따라 객관적 실체와 주관적 실체를 구분한다.

<그림 1-1> 삶의 질의 세부개념 구분




이러한 개념 틀 하에 본 연구에서는 ①9개 삶의 영역에 대해 지역(시·군) 수준에서 통계자료를 통해 측정한 정주 여건인 객관적 삶의 질, ②동일한 9개 영역에 대해 거주지의 정주 여건을 주민의 입장에서 개인이 인지·평가한 주관적 삶의 질, 그리고 ③개인이 전반적인 주관적 삶의 질

수준에 대해 평가한 두 가지 만족도(지역생활 만족, 행복)를 다룬다. 전반적 만족도 중 행복이 보다 개인적 입장에서 인지·평가하는 삶의 질 수준이라 한다면, 지역생활 만족은 보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인지·평가하는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용어의 개념 정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장에서 다룬다.

# 제2장 이론적 고찰

이 장에서는 관련 문헌에서 사용된 삶의 질 및 유사 용어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삶의 질 개념을 검토하고 연구에서 사용하는 삶의 질의 세부개념을 구분했다. 삶의 질의 다면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삶의 질을 이해하는 개념적 틀로서 Sen의 역량 접근법을 고찰했다.

또한 이 연구가 개인의 삶의 질보다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적인 삶의 질의 관점으로 접근하며, 삶의 질 이해에 중요한 개인의 내적 차원을 다루지 못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의 의미에 주목하여 삶의 질에 접근함을 밝혔다.

정주공간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했다.

## 제1절 삶의 질의 개념과 집합적 접근

### 1) 삶의 질 개념

삶의 질과 안녕[3], 그리고 그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복지 또는 후생(welfare) 등과 같은 용어들은 개념이나 그 구성요소를 명확히 정의하

3) 안녕은 삶의 질과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그 의미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Gasper, 2010: 351), 다수 문헌에서 유의어로서 또는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삶의 질 용어를 사용하지만 관련 문헌을 다루면서 '안녕'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므로 개념에 관한 논의에서 안녕에 대해서도 일부 같이 다루었다.
한편, 연구자에 따라 well-being을 안녕, 복지, 웰빙 등으로 사용·번역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안녕을 사용했다. 관련 문헌에서 복지, 웰빙 등으로 용어를 사용한 경우 여기에서는 안녕으로 정리했다.

기 어려운 모호성과 의미 경계를 특정하기 어려운 포괄성을 보인다. 삶의 질 주제를 다룬 다수의 연구자들이 삶의 질을 포함한 유사 개념들의 모호성과 포괄성에 대해 논한 바 있다(Van Kamp et al., 2003; 고명철·최상옥, 2012; Szalai, 1980 등).

삶의 질 용어는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엄밀한 개념 정의나 이론적 설명을 가지고 사용된 것은 아니다(한준, 2015: 70). 삶의 질과 관련한 오랜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모호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삶의 질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임희섭, 1996: 8). 유사 개념들의 불명확성과 관련하여 Szalai(1980)는 어떠한 개념을 발전시킬 때 일률성(uniformity)이 없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초기에는 어느 정도 불명확하게 경계지어진 의미를 부여하고 후속 연구와 숙고를 통해 이후에 더 명확화되고 구체화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삶의 질이 삶의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총체적(Hollar, 2003: 100)이고 다차원적인(multi-dimensional) 개념이라는 점에서 삶의 질에 어떠한 의미 경계를 부여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각자의 관점과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다수의 학제 간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기는 더욱 쉽지 않다.

일부 연구자들은 삶의 질 그리고 그 유사 용어들과 같은 다차원적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ybczynski(1986)가 비유한 바와 같이 이는 양파를 설명하는 것과 같아서 겉에서 보기에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 단순함은 기만적인 것으로, 실제는 그 안에 수많은 층(layers)을 가지고 있어 양파를 잘라내면 양파 껍질들만 남고 원래의 형태는 사라지고, 만약 각각의 층에 대해 설명한다면 전체에 대한 시각을 잃고 마는 것이다(Rybczynski, 1986; Brager and De Dear, 2003: 177-178에서 재인용). 또 다른 연구자들은 유사 개념을 다루면서 개념 정의의 일률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개념의 다차원성에 근거하여 용기와 같은 개념(container concept) 하에서 서

로 다른 이론을 통해 연구 대상의 서로 다른 측면들과 연계하여 접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편적 정의나 접근법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삶의 질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명철·최상옥, 2012; 임희섭, 1996). 용어가 사용되는 학문적, 정책적 맥락도 매우 다양하여 때로는 삶의 질 논의가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었다(한준, 2015: 70). 다수 문헌들에서 내포적(implicit) 정의 정도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연구의 맥락이나 채택한 지표에 기초하여 개념에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Van Kamp et al., 2003: 6).

다수의 관련 문헌에서 다루는 개념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종합해 볼 때 삶의 질은 안녕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복지, 삶의 만족, 행복감, 주관적 만족 등의 유사 개념들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의 질, 안녕 개념과도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일부 연구에서는 삶의 질 개념을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나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등을 포괄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Davis and Fine-Davis, 1991), 다수의 연구자들은 삶의 질을 안녕, 주관적 안녕,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삶의 만족, 행복(happiness)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했다(Diener, 1984; Galloway, 2006; Dardha and Rogge, 2020; 서인석 외, 2015a 등).

삶의 질과 안녕 개념의 다양성에 대해 연구한 Gasper(2010)에 따르면 삶의 질과 안녕은 두 개념 모두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그 범위는 서로 거의 완전하게 중첩된다. 그는 이 두 개념이 서로 다른 학문 분야, 즉 삶의 질은 사회학과 사회정책 분야에서, 안녕은 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발전되어 왔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이들 개념에 대한 접근이 점진적으로 불완전하게 서로 상대 개념에 통용되어 왔다고 설명한다. Gasper는 삶의 질과 안녕 개념 간 고도의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각 용어가 사용되는 경향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삶의 질은 삶 또는 사회의 주요 측면이나 전체에 대한 평가(평가적 판단)를 가리킨다. 안녕은 가치가 부여된 삶의 여러 측면 중 일부나 그것의 어떤 집합,

또는 전체의 질을 가리키기 위해 더 사용된다. 삶의 질은 커뮤니티나 지역(localities) 그리고 사회에 관하여 논할 때, 안녕은 개인 차원에서 논할 때에 더 사용되고, 그와 유사하게 삶의 질은 맥락과 환경을 나타낼 때, 안녕은 실제의 경험을 나타낼 때 더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Gasper, 2010: 351).

한편 삶의 질의 다차원성과도 관련하여 삶의 질을 무엇으로 측정하는가는 오랜 삶의 질 논의에서 주요한 쟁점이었다. 삶의 질은 초기에 양적 지향적 관점, 특히 경제적 부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양적 측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념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객관적 방식으로 사회, 경제의 질적 측면을 측정하기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다(서인석 외, 2015a: 36). Dasgupta and Weale(1992)는 삶의 질이 안녕의 구성뿐 아니라 그것의 결정요인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개인 차원(미시적 수준)을 사회 차원(거시적 수준)과 연결시킨다고 주장했고, Diener(2006: 154)는 초기의 삶의 질 연구들이 삶의 객관적 조건(objective conditions)에 삶의 질을 연결시키면서 안녕 개념과 구별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삶의 질과 안녕 등 개념이 혼재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삶의 질, 안녕, 복지는 객관적 조건을, 주관적 안녕, 만족도, 행복은 주관적 평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한준 외, 2011: 3)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연구자들은 삶의 질을 주관적인 차원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행복, 삶의 만족 등 주관성을 갖는 개념과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해 왔다. 가령, WHOQOL Group(1994)은 개인이 속한 문화·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개인의 목표, 기대, 기준, 관심과 관련하여 자신의 삶의 위치(position)에 대한 지각으로 삶의 질을 정의했다. Diener and Suh(1997)는 쾌락적(hedonic) 느낌과 인지적 만족이라는 의식적인 경험에 의해 삶의 질(안녕)이 정의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주관적 안녕 접근을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 중 하나로 다루었다.

삶의 질 측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과학적 논의는 크게 두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한 방향은 주로 경제학 전통에 따라 객관적 조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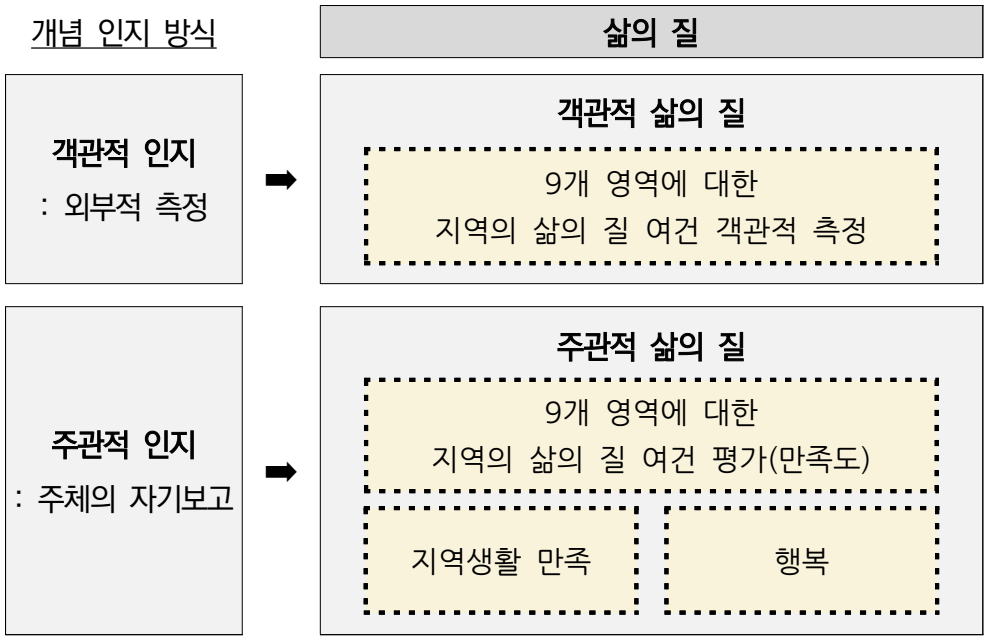
중심으로 삶의 질을 판단하는 접근이다. 객관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스칸디나비아적 접근으로 자원과 객관적 생활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한 방향은 주로 심리학적 전통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개인 주체가 느끼고 인지하는 주관적 판단을 중시하는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조건과 과정의 최종적 결과물로서 개인의 주관적 안녕을 삶의 질로 본다(Noll, 2004: 156).

사회지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1970년대 사회지표운동 초기에는 연구의 초점이 객관적 사회지표에 있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객관적 지표가 사람들의 삶의 조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자신의 삶의 여건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이나 평가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반론을 제기했다. 그들은 후생을 적절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조건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의미와 중요성을 포착할 수 있는 주관적 지표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Bognar, 2005: 562-563).

주관적 지표는 그 주관성으로 인해 정책의 근거가 되는 사회지표로서의 신뢰 문제가 제기되며, 낙관적 편향성, 항상성 등과 같은 주관적 평가가 갖는 특징 때문에 사회의 영향을 예민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Cummins, 2000: 62; 고명철·최상옥, 2012: 114). 그러나 객관적 지표로서의 삶의 질 역시 삶의 조건과 개인의 지각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결국 많은 연구자들은 삶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함하면서 주관적 만족과 감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상호보완적인 입장을 택한다(Cummins, 2000: 56). 오늘날에는 삶의 질 개념이 포괄하는 범주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이 결합되고 통합된 의미로 정의된다(Tonon, 2020: 1)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삶의 질을 인지 방식을 기준으로 (ⅰ)객관적 삶의 질과 (ⅱ)주관적 삶의 질로 세부개념을 구분한다(그림 2-1). 이는 인식론적 차원으로서 개념의 인지 방식이 외부적으로 관찰된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한 것인지, 삶의 주체가 지각하고 평가하는 주관적 방식의 인지인지에 따른 구분이다. 이 기준에 따라 객관적 실체와 주관적 실체를 구분한다.

<그림 2-1> 연구에서 다루는 삶의 질의 세부개념




객관적 삶의 질 및 주관적 삶의 질이라는 각 세부개념 안에는 개념의 실체(entity) 차원에서 구분되는 사회적 상태(social state)와 개인적 상태(personal state)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존재론적 차원으로서 개념의 실체가 지역·도시라는 사회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지, 개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개념의 실체 차원을 또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여 삶의 질 개념을 더 세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연구의 논의 전개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어 적용하지 않았다.

이 같은 개념 틀 하에 본 연구에서는 ①9개 삶의 영역에 대해 지역(시·군) 수준에서 정주여건을 통계자료를 통해 측정한 객관적 삶의 질, ②동일한 9개 영역에 대해 거주지 정주여건을 주민의 입장에서 개인이 인지·평가한 주관적 삶의 질, 그리고 ③두 가지 전반적 주관적 삶의 질(overall subjecitve quality of life)인 지역생활 만족과 행복감을 다룬다. 행복이 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인지·평가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라 한다면, 지역생활 만족은 보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인지·평가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2) 삶의 질에 대한 집합적 접근

### (1) 집합적 수준의 삶의 질

삶의 질은 대단히 다양한 삶의 영역과 구성 요소들과의 작용 속에서 사람들이 삶의 조건과 과정, 결과를 통해 경험하는 제반 측면들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과 각각의 가중치(개인이 부여하는 가치)는 모두 다르므로 개개인의 삶의 질 함수는 각기 고유하며, 그러한 점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삶의 질 결정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상반된 견해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를 이루는 개인들이 나타내는 삶의 질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2008년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설립한 '경제성과 및 사회진보 측정 위원회'의 의장이었던 Stiglitz는 "당신이 측정하는 것이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 바 있다(OECD, 2018: 7).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사회가 선택할 미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준거가 필요한데, 그 사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가는 정의나 측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특히 공간의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역 간 비교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삶의 질을 나타내는 어떠한 측정치를 통해 그 수준과 차이를 가늠하게 된다. 각 공간 단위에서 서로 다른 지역들 간 삶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불가불 경험적 지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박성복, 2003: 54).

사회의 위치를 가늠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삶의 질을 본다면 개인적 차원의 삶의 질보다는 사회적 차원의 개념으로 삶의 질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이나 보건학, 정신의

학 등 분야에서는 보다 개인적 차원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연구하는 반면, 경제학, 사회학, 정책학 등 분야에서는 사회적·집합적 삶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가령 사회학적 시각은 삶의 질을 사회적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사회체계 및 사회구조와 삶의 질 관계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주목한다(김선아·박성민, 2014: 176).

본 연구는 개인의 삶의 질보다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적인 삶의 질 관점으로 접근한다. '지역사회 삶의 질(community quality of life)' 개념을 표방하는 연구가 지역사회의 사회적 여건, 환경, 지역 특성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고 개인의 삶의 질과 지역생활 영역과의 관계에 초점(고명철·최상옥, 2012: 118)을 두는 것과 유사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집합적 삶의 질 개념을 통해 지역 특성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탐구하지만 집합적 삶의 질도 결국 개개인의 삶의 질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이 사회적 삶의 질의 바탕이자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개인이 인지·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들의 집합적 단위에서 집계된 측정 값을 통해 정주공간과 관련해 발견되는 경향과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 (2) 지역 수준의 삶의 질 요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논함에 있어 개인 차원의 영향력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개인의 유전적 및 심리적·정신적 속성과 같은 내적 요인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리학 분야에서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안녕 수준은 대체로 50% 정도로 인정되고 있는데(Lyubomirsky et al., 2005: 5), 연구에 따라서는 안녕의 유전이 80%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Lykken and Tellegen, 1996). 개인의 유전적·심리적 속성과 같은 내적 요인 외에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개인

속성들도 삶의 질 결정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져있다.

Lyubomirsky et al.(2005)은 행복의 지속적 향상 가능성을 의심하는 학계의 비관주의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안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환경을 다루었다.[4] 그러나 Lyubomirsky et al.은 안녕 연구자들이 환경 요인이 행복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달리 선행연구들에서는 환경적 요인이 설명하는 행복의 변량이 8~15% 수준으로 나타났음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반직관적 결과는 헤도닉 적응(hedonic adaptation)[5]과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이나 사건에 빠르게 적응한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개인 차원의 삶의 질 영향력을 보여주는 연구의 한 예로, 영국 가구 패널조사 및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여 구역(district)과 지역(region), 가구, 개인의 특성이 주관적 안녕과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한 Ballas and Tranmer(2012)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과 행복의 변량 대부분이 개인 수준에서 설명되었고, 가구나 지역 수준과 관련해서는 일부 변량만 확인되었다. 지역 수준의 안녕의 분산은 매우 작아 급내상관계수가 지역 수준에서 0.2%, 구역 수준에서 0.7%였다. 가구와 개인 수준은 각각 14.6%, 84.4%로 나타났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개인에 속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개인의 타고난 특성과 더불어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맥락의 중요성 또한 강조한다(Ballas, 2013; 우창빈, 2013). 다수 연구자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에 더하여 사회·경제·제도·환경적 요인들을 중요하게 다루어 왔으며, 이들은 개인적 수준과 함께 집합적 수준

4) 유전적 설정치, 환경, 의도적 행동 등 세 가지 요인을 만성적 행복의 영향 요인으로 설정했다. 환경은 개인이 거주하는 국가나 지리적·문화적 지역, 연령·성별·인종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 사고나 트라우마, 시상 경험과 같은 개인사, 혼인 상태, 직업적 지위, 직장 안정성, 소득, 건강, 종교와 같은 삶의 지위를 의미한다.

5) 헤도닉 적응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사건의 발생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이 증가한 이후에 사람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감정의 기준치(baseline)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개념을 말한다.

내지 개인의 환경(공간) 수준을 고려하는 접근을 취한다(Aslam and Corrado, 2012; Helliwell and Putnam, 2004; Welsch, 2009 등).

관련하여 Dasgupta and Weale(1992)는 삶의 질이 그 구성에 대한 부분을 넘어 결정요인까지 포괄하면서 개인이라는 미시적 차원을 넘어 보다 거시적으로 사회적 차원과 연결됨을 논했고, Ferris(2006)는 삶의 질이 사회구조에 영향을 받는데, 사회구조는 해당 사회의 인구학적 특성, 문화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질 그리고 그러한 맥락 안에서 작동하는 사적 및 공적 제도·관습의 특징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Ferris는 사회의 인구학적 토대와 제도적 구조는 개인의 생활 조건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삶의 질은 내생적 및 외생적인 두 가지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는데, 내생적 영향력은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의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 반응을, 외생적 영향력은 해당 커뮤니티의 사회구조와 문화적 영향을 가리킨다(Tonon, 2020: 1-2).

행복에 미치는 지리와 환경의 영향을 탐구한 Brereton et al.(2008)은 행복 결정에 공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주장했다. GIS를 활용하여 개인과 그의 주변환경을 미시적 수준에서 매칭함으로써 다양한 공간 및 환경 변수들을 행복 함수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공간 변수들이 영향력 크기와 유의성 면에서 유효하게 확인되었고, 공간 변수가 포함되었을 때 행복함수의 설명력이 그 이전에 수행된 횡단면 연구에서 확인된 설명력보다 안녕 변량의 세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Brereton et al.은 공간과 환경이 행복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실직, 결혼 상태와 같은 사회경제적 및 사회인구적 요인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결과가 사람들의 안녕 제고가 궁극적 목적인 공공정책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최영출(2019)은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구한 연구로 개인적 차원의 영향요인을 중시한 연구와 사회적 차원의 영향요인을 강조한 연구로 구분하여 검토했다. 그는 정책적 관점을 고려할 때 주민 개개인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측정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는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보다는 지역적 조건이나 경제상태 등 개인의 조건과 같은 요인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삶의 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조건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면 정부가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영출, 2019: 5).

사람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지역 수준의 영향이 개인 차원의 영향력에 비해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지역 요인에 주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주관적 삶의 질의 대부분이 개인 차원에서 설명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여전히 지역 요인이 설명할 수 있으며, 그 값이 상당히 작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전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인 차원의 요인, 특히 유전적·정신적 속성과 같은 내적 요인에는 정책 등을 통한 외부 개입에 한계가 큰 반면, 지역 차원의 요인에 대해서는 외부의 관여를 통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주관적 삶의 질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개인의 내적 차원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다수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의 의미에 주목하여 삶의 질에 접근하였다.

## 제2절 역량 접근법과 다면적 삶의 질

### 1) 역량 접근법

이 연구는 앞서 개념 논의에서 살펴본 삶의 질의 다면적 차원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의 안녕, 즉 삶의 질을 역량(Capabilities) 개념으로 정의한 Sen의 역량 접근법에 주목한다.[6)]

6) 이 절의 역량 접근법 관련 논의에서는 Sen이 그의 논지에서 사용한 용어인 안녕(well-being)을 그대로 사용했다.

Sen이 처음 제안하고 Martha Nussbaum 등 후속 연구자들이 발전시켜가고 있는 이론인 역량 접근법은 개인의 안녕이나 사회 제도, 정책 설계, 사회 변화를 위한 제안을 평가하는 광범위한 규범적 틀(framework)로 기능하며, 불평등, 빈곤과 같은 현상들을 개념화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과 틀을 제시한다(Robeyns, 2006: 352-353).[7]

역량 접근법은 개인의 안녕, 사회 정책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가령 평가가 순전히 금전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등 규범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대안접근들을 거부한다(Robeyns, 2005: 96). 사회의 후생 문제를 다룬 경제이론이나 접근법은 대부분 재화나 자원을 극대화하거나 사람들의 효용(utility)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데, Sen은 개인의 선호와 능력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수준의 소득과 재화가 갖는 효용 수준과 이를 이용하여 가치 있는 일로 전환되는 정도가 개인마다 다르므로 재화나 효용 자체의 향상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추구할 자유를 억압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구교준 외, 2012: 177). 이러한 면에서 Sen은 공리주의와 Rawls의 평등주의가 전제하는 자원주의를 비판했다. 역량 접근법의 관점에서 주관적 효용이나 객관적 자원의 배분은 사회적 평가를 위한 충분한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며, 안녕은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기능, 즉 상태와 행위의 성취에 달려있는 것이다(Alkire, 2005: 118).

Sen은 개인의 효용에 주목하는 공리주의에 대해 공리주의 접근이 갖는 몇 가지 한계를 들어 비판했다. 첫째는 분배에 대한 무관심으로, 공리주의에서는 행복의 총량이 중요하며 행복 분포의 불평등은 무시된다. 둘째는 권리와 자유, 그 외 비효용(non-utility)에 대한 간과로, 공리주의 접근에서는 권리나 자유에 대한 주장은 간접적으로 그리고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만 가치가 평가되고 고유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셋째는 적응과 정신적 길들여짐의 문제이다. Sen은 욕구나 즐거움을 느

7) 역량접근은 규범적 사안들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느슨하게 정의된(loosely defined) 사고의 틀이다((Robeyns, 2005: 96).

끼는 능력은 상황에 적응하기 때문에 즐거움, 행복, 욕구과 같은 정신적 형질(characteristics)에만 의존하는 것은 개인 간 안녕이나 박탈을 비교할 때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 삶을 견딜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와 기대를 현실에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의 변량(calculus)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Sen, 1999: 62-63).

또한 Sen은 Rawls가 주장하는 기본재(primary goods)는 각 개인의 목적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전반적 필요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이 목표 추구를 위해 누리는 기회라는 관점에서는 이점(advantage)을 제공하지만, 논의를 위한 정보의 초점을 소득에서 기본재로 확대한 것만으로는 소득(자원)과 안녕(자유)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성이라는 중요한 측면을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본재 자체는 다양한 유형의 일반적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이러한 자원을 이용해서 가치있는 일을 할 수 있는가는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조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Sen, 1999: 72-73).

역량 접근법을 통한 안녕의 평가는 사람들이 가진 개인적 능력과 그에게 배분되는 자원, 그가 속한 공동체의 다양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준다(박인권, 2018: 81). 특히 역량 접근 이론은 삶의 질 평가에 있어 개인이 가치있게 여기는 활동이나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재화와 같은 물질적 투입, 그리고 사회제도, 문화, 정책 등 비물질적 투입을 통해 개인이 가치있게 여기는 삶을 선택할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구교준 외, 2012: 177-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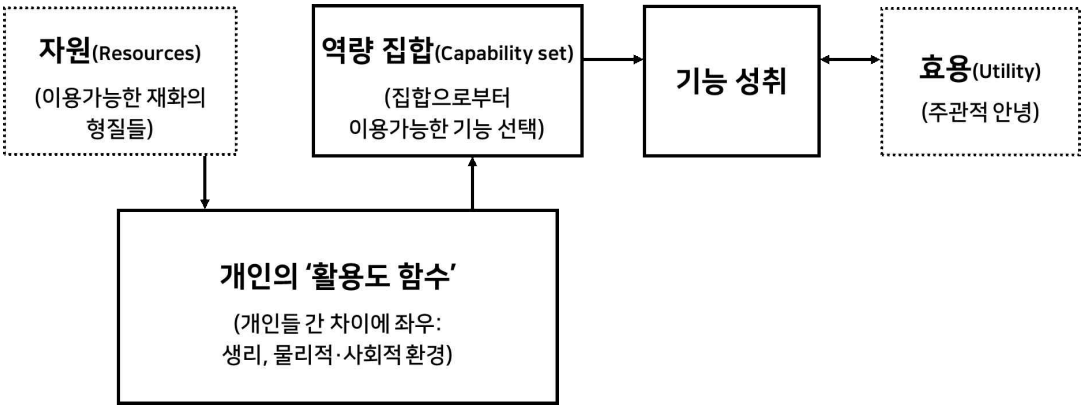
Sen은 역량 접근법에서 개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상태와 행위(beings and doings)를 의미하는 기능(functionings), 그리고 자유라는 중요한 두 개념을 결속시켰다(Alkire, 2005: 118).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기능을 성취한다는 것은 그가 가치를 부여하여 선택한 행위와 상태를 성취하는 것이며, 사람의 역량은 그가 성취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기능의 조합들을 뜻한다. 다시 말해, 역량은 선택 가능한 기능의 조합들을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 즉 사람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를 나타낸다(Sen, 1999).[8]

개인이 누리는 각 기능의 양적 수준은 실제의 값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의 실제 성취는 기능 벡터(functioning vector)로서 관찰 가능하다. 역량 집합(capability set)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기능 벡터들로 구성된다(Sen, 1985: 74-75). 개인의 기능들의 조합이 그의 실제 성취를 나타내는 반면, 역량 집합은 성취할 자유를 나타낸다. 즉 역량은 '성취할 수 있는 잠재적 기능들의 기회 집합'을 가리키며, 개인은 역량 집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의 조합들을 택하게 된다.

역량 접근법에서 핵심 개념들이 작용하는 관계의 개요를 도식화하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역량 접근법의 핵심 개념들의 관계




자료: Wells, T. (2012),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Sen은 어떤 기능이 그러한 기능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화와 구별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는 것(기능)은 자전거를 소유(재화)하는 것과 다르며, 자전거를 타는 기능으로부터 생성되는 행복과도 구별되는 것이다(Sen, 1985: 10). 이러한 점에서 Sen은 자원 자

8) 이러한 자유를 가리켜 Sen은 덜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성취할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다.

체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온전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개인의 기능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상품-형질 간 전환'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매우 다양한 영향요인들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강한 영양 상태의 성취에는 개인의 대사율과 신체 크기, 나이, 성별, 활동 수준, 질병 상태,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능력, 영양에 대한 지식과 교육, 기후 조건 등 수많은 요인이 관여한다(Sen, 1985: 26-28).

소득과 재화는 안녕의 물질적 기반이 되지만, 어떤 사람이 재화 혹은 더 일반적 의미에서 소득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결정적으로 그가 속한 개인적·사회적 상황들에 달려있다. Sen은 물질적 조건과 물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안녕과 자유 사이에 다양성이 발생하게 되는 적어도 다섯 가지의 명백한 원천을 들 수 있다고 했다. 그와 같은 다양성의 원천들로 인해서 물질적 풍요가 후생과 삶의 질을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음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다양성의 원천은 상품-형질 간 전환, 즉 개인이 선택하는 어떠한 기능이 실제 성취되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역량(안녕)의 성취와 관련한 인간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천의 첫째는 개인의 이질성이다. 장애, 질병, 나이, 성별 등과 관련해 사람들이 가진 이질적 신체 특성으로 인해 각자의 필요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둘째는 환경적 다양성이다. 기후 환경과 같은 환경적 조건도 난방, 의복, 풍토병 등과 관련해 개인이 어떤 소득 수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는 사회적 풍토의 다양성이다. 소득과 자원을 삶의 질로 전환시키는 것은 공교육 방식, 범죄,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같은 사회적 조건에도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자본과 같이 지역사회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넷째는 관계적 관점에서의 차이이다. 전통과 관습에 따라 지역사회마다 요구되는 재화가 다를 수 있는데, 가령 부유한 지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지역사회 참여와 같은 기능을 성취하는 것은 빈곤한 사회에서 동일한 혹은 심지어 더 소득이 낮은 사람이 같은 기능을 성취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

다. 마지막으로는 가족 내 배분이다. 가족 구성원의 소득은 공유되기 때문에 개인의 안녕은 성별이나 나이, 특정한 필요 등에 따라 가구소득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의존한다(Sen, 1999: 70-71).

### 2) 다면적 삶의 질

역량 접근법은 안녕의 조건적 측면인 물질적 토대와 결과적 측면인 안녕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을 제시하며, 사람들의 안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원에서 안녕의 성취로 이어지는 과정에 관여하는 핵심 개념들 간의 관계와 조건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삶의 질의 개념에는 이 연구에서 구분하는 객관적 측면, 주관적 측면과 함께 조건적 측면과 결과적 측면,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차원들이 관련된다.

이러한 관점과 관련하여 사회심리학자인 Veenhoven(2000)은 '삶의 기회'와 '삶의 결과' 차원, 그리고 '외적 삶의 질'과 '내적 삶의 질' 차원을 교차하여 삶의 질의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표 2-1). 삶의 기회 측면과 관련해서는 외적인 삶의 질을 주변 환경의 거주적합성(Livability of environment), 내적인 삶의 질을 개인의 삶의 능력(Life-ability of the person)으로 제시했고, 삶의 결과적 측면에서는 외적인 삶의 질을 삶의 효용(Utility of life), 내적인 삶의 질을 삶의 가치 인식(Appreciation of life)[9]으로 제시했다(Veenhoven, 2000: 4-7).

이는 광의의 좋은 삶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포괄하고자 한 것으로, 환경의 거주적합성과 개인의 삶의 능력은 삶의 결과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기회에 머무는 영역이고, 삶의 효용과 삶의 가치 인식은 궁극적으로 좋은 삶의 효과로서 삶의 기회를 넘어 삶의 결과에 이르는 영역이다(서인석 외, 2015a: 43).

---

9) Appreciation은 어떤 대상의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이해하는 것을 뜻한다(출처: Oxford Languages, Merriam-Webster's Learner's Dictio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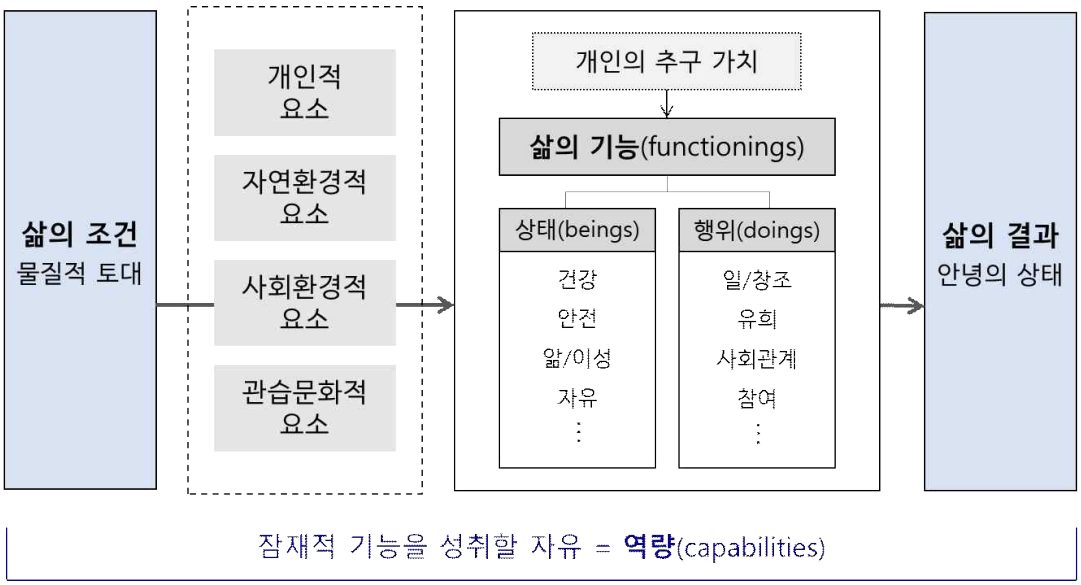
<표 2-1> 빈호벤의 네 가지 삶의 질

| 구분 | 외적 질 (Outer qualities) | 내적 질 (Inner qualities) |
|---|---|---|
| 삶의 기회<br>(Life chances) | 환경의 거주적합성<br>(Livability of environment) | 개인의 삶의 능력<br>(Life-ability of the person) |
| 삶의 결과<br>(Life results) | 삶의 효용<br>(Utility of life) | 삶에 대한 가치 인식<br>(Appreciation of life) |

자료: Veenhoven (2000: 6).

이와 같은 다양한 차원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Sen이 제시한 사람들의 안녕이 성취되는 관계적 과정에 총체적으로 관여하는 삶의 질의 다면적 차원들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2-3).

<그림 2-3> 역량의 성취에 작용하는 다면적 차원들




사람들이 좋은 삶의 질을 누린다는 것은 (ⅰ)물질적 조건으로서 가용한 객관적 자원이 존재하고, (ⅱ)인간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개인적 요소, 자연환경적 요소, 사회환경적 요소, 관습문화적 요소)이 충족되어 역량의 성취를 방해하지 않으며, (ⅲ)자원과 조건을 토대로 개인

이 가치 있다고 선택하는 삶의 기능, 즉 상태와 행위을 실제 성취함으로써, (ⅳ)결과적으로 주관적 삶의 질을 경험하는 과정이 온전히 연결될 때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적 과정이 그의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족될 때 그가 실질적 자유로서 역량, 즉 안녕을 누린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역량 접근법에서 Sen이 제시하는 다양성의 원천을 크게 개인적 요소(개인의 이질성), 자연환경적 요소(환경적 다양성), 사회환경적 요소(사회풍토의 다양성), 관습문화적 요소(관계적 관점에서의 차이 및 가족 내 배분)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사람들의 삶의 질과 공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면 사회환경적 요소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다양성 요소에 대한 대응은 주로 대인(對人)정책 접근이 더 밀접하게 연관되지만 공간적 접근 역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연환경적 요소는 다양성의 원천이 주어진 자연환경에서 비롯되지만 그에 대한 사회의 대응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환경적 요소와도 관련성이 높다. 이를테면 역학(疫學), 환경오염 등과 같은 이슈는 사회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을 모두 받는다(Sen, 1999: 70). 관습문화적 요소는 제도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고 변화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반면 사회환경적 요소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관습문화적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잴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조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환경적 요소는 지역정책 차원에서 특히 의미를 가지며,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조성에 대한 부분과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제3절 정주공간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 1) 정주공간 유형에 따른 삶의 질 수준

삶의 질 연구가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가지면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공간적 영향과 관련한 삶의 만족, 행복의 지역적 차이에 주목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삶의 질에 미치는 공간의 영향에 대한 관심의 한 면에서는 도시화와의 관계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 왔다.[10)]

2010년대 중반 이전에는 도시-농촌 차이와 관련한 이슈에 관심을 둔 연구가 드물었고, 비교적 최근에 와서 삶의 질과 도시화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했다(Sørensen, 2014; Lenzi and Perucca, 2021). 이러한 연구들은 도시화 기준에 따라 정주공간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삶의 질 만족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했다.

초기에 진행된 도시화의 영향에 관한 삶의 질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변수로 도시화를 포함했다. 1991년 스웨덴을 대상으로 행복에 미치는 일단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을 연구한 Gerdtham and Johannesson(2001)은 도시화에 따라 행복이 감소함을 보였다. 그러나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의 결정요인 차이를 연구한 Peiró(2006)나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도시화 효과를 살펴본 Kalyuzhnova and Kambhampati(2008)는 행복과 도시화 수준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보다 최근에는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서 도시화 지표[11)]에

---

10) 공간의 영향에 주목한 연구의 또 다른 축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지역 효과에 관한 것이다. 한 예로 Oswald and Wu(2011)는 결혼 여부, 고용 상태, 연령, 성별, 교육, 인종, 가구 규모 등의 영향요인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미국의 주(state)별로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11) 대다수 연구가 지역의 인구규모에 근거한 지표를 채택했다.

초점을 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Shucksmith et al.(2009)는 25개 EU 회원국과 3개 후보국을 대상으로 2003년도 유럽 삶의 질 조사(EQLS)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의 안녕(객관적·주관적 차원)에 있어 도시-농촌 차이를 연구한 결과, 가장 부유한 12개 EU 국가에서는 농촌 거주자의 주관적 안녕이 도시 거주자보다 높았으나, 덜 부유한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 농촌 거주자의 주관적 안녕이 더 낮았다. EU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도시-농촌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Sørenson(2014)은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2008년도 European Value Study 데이터를 사용하여 농촌-도시 간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도시거주자에 비해 농촌거주자의 삶의 만족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GDP를 기준으로 구분한 세 개(상·중·하) 국가그룹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Brereton et al.(2011)은 아일랜드 농촌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을 확인했고, 중국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을 연구한 Knight and Gunatilaka(2010)는 소득 불균형의 영향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 거주자가 더 높은 행복 수준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단위에서 29개 국의 발전 수준과 도시화 수준과의 관계를 탐색한 Requena(2016)는 발전된 국가에서는 농촌지역의 행복 수준이 더 높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발견했다.

도시화 수준에 따른 정주공간 유형별 거주자 간의 주관적 안녕 차이의 연구 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다. 농촌 거주자의 삶의 질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연구 결과가 있는가 하면(Sørensen, 2014; Knight and Gunatilaka, 2010), 다른 연구들에서는 도시-농촌 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Gerdtham and Johannesson, 2001; Kalyuzhnova and Kambhampati, 2008).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지역의 세부 그룹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Shucksmith et al., 2009; Peiró, 2006).

다수의 연구 결과는 발전된 국가의 경우 집적도가 높은 환경에서 삶의 만족이 낮아짐을 보여준다(Luca, 2021; Morrison and Weckroth, 2018; Burger et al., 2020). 그러나 결론을 내리기에는 여전히 실증적 증

거가 부족하다는 입장도 있다. 선행연구들로부터 얻은 실증적 증거들의 기저에 작동하는 개념적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도 풀리지 않은 과제이다(Lenzi and Perucca, 2021). 보다 최근에는 단순히 도시·농촌 간 비교 구도를 넘어 도시 구조나 중심도시 접근성, 공간체계 상의 위치 등과 관련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작동원리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연구, 전반적 삶의 질 중심의 접근에서 삶의 영역들의 의미에 보다 주목하는 연구[12]도 시도되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도시·농촌이라는 상이한 지역의 삶의 질을 이해함에 있어 영역별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상이한 지역 맥락을 고려한 삶의 질 영향요인의 탐색은 어떠한지 검토했다. 관련 연구를 수집하기 위해 KISS, DBpia, RISS에서 삶의 질, 삶의 만족, 행복, 안녕, 웰빙 등을 키워드로 하여 2000년 이래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검색했다. 학술대회발표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세미나자료 등을 제외한 일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되, 사회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한국연구재단(KCI)의 등재지와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도시화 정도에 따라 구분한 지역 간 비교의 관점을 명시하고 삶의 질을 파악한 연구가 많지 않아 도시위계적 관계나 행정구역에 따라 지역을 구분한 연구들도 포함했다.[13] 삶의 질을 키워드로 하는 연구가 방대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공간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거나 주 관심은 아니더라도 공간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연구로 한정했다.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

12) Bernini and Tampieri(2019)는 이탈리아 대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행복 영역들이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이고, 영역 만족이 전반적 행복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함을 강조했다. Goerlich and Reig(2021)는 삶의 질 요소에 기반하여 스페인 도시들을 순위화하면서 서로 다른 삶의 질 부문들 간 보상이 일어나는 전통적 접근이 아닌 콩도르세 개념에 따른 비보상(non-compensability) 접근을 시도했다.

13) 대도시(자치구)-중소도시-농촌(군), 대도시-중도시-소도시, 큰 도시-시골 마을 등 인구규모에 따른 구분(최영출, 2019; 권오규 외, 2019; 이장영, 2013), 도시지역-도농복합지역-농촌지역 등 도·농 성격에 따른 구분(네모토 마사쯔구, 2013), 중심 광역시(소속 구·군)-인근 지역(인접 시·군), 광역시-위성 기초자치단체 등 도시위계적 관계에 따른 구분(송건섭 외, 2009; 최준호, 2001) 등이 있다.

로 해당 인구그룹과 직결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수행된 삶의 질 연구는 제외했다.[14]

국내에서는 다양한 공간 수준과 범위를 가지고 연구자가 구축한 삶의 질 구성 틀을 적용하여 전반적 삶의 질, 그리고 구성 영역별로 나타나는 지역 간 격차를 살펴보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점수의 평균 또는 표준화, 지수화한 값을 비교하거나, 점수를 토대로 순위화, 등급화하는 방식을 사용했다.[15]

네모토 마사쯔구(2013)는 충청북도 6개 시·군·구를 사례로 도시지역, 농촌지역, 도농복합 등 세 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분석했다. 설문조사한 38개 문항(12개 영역)을 분산분석을 통해 비교했는데, 도시지역은 취업기회·생활물가적정(생활·경제), 문화와 여가영역 전반, 의료수준(건강), 평생교육(교육), 출산양육(복지), 지역거주만족·거주환경(주거), 대중교통·교통약자(교통), 주민의견수렴·의견제시(사회참여) 등에서, 농촌지역은 공기(환경), 안심양육(안전), 공무청렴·지역언론(신뢰) 등에서 만족도가 더 높았다. 복합지역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도시나 농촌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박대식·마상진(2007)은 삶의 질을 19개 주관적 지표로 구성하고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전문가 조사를 통한 가중치를 적용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지수화하여 비교했다. 도시의 삶의 질 지수(53.167점)가 농촌(47.576점)보다 높았다. 지표의 비중에 따른 순위에서는 도시와 농촌 모두 동일하게 소득, 소비, 건강, 의료, 교육이 가장 상위를 차지했다.

최준호(2001)는 대구광역시(시단위 광역자치단체)와 경산시(위성 기초자치단체)를 사례로 삶의 만족도, 8가지 삶의 질 지표(21개 하위지표)별 만족도를 설문조사하고 T검정을 통해 차이를 비교했다. 현재 시점 기준,

---

14) 특정 성별, 연령층, 가구형태, 직업군, 질환, 사회・경제적 특성(또는 이러한 특성 간의 조합)에 해당하는 다양한 인구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공간에 대한 관점 없이 특정 인구그룹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구체적 주제를 연구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15) 삶의 질 정책과 관련된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여 효율성 관점에서 비교·평가한 연구도 일부 수행되었다(송건섭 외, 2009; 최민호 외, 2019 등).

총체적 만족도는 경산시가 더 높았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대구광역시는 편리한 생활, 여가·문화생활에서, 경산시는 경제생활, 건강한 생활[16]에서 만족도가 더 높았다. 공공안전생활과 자연환경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교준 외(2012)는 용인가능한 격차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농촌 간 용인가능한 격차(주민 설문)와 실제 격차(통계)를 비교한 결과, 인지적 측면에서는 의료, 안전, 교육, 경제, 통계적 측면에서는 경제, 교육에서 격차가 컸다. 수도권-비수도권, 영남-호남 간 격차 결과와 함께 종합하여 의료, 안전, 교육, 경제 분야의 용인가능한 수준 이상의 차이가 지역 간 격차의 중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허만형(2014)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EQ-5D[17],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율, 스트레스 인지율 등 네 개 지표로 삶의 질을 파악했다. 삶의 질 네 지표에 대해 최소값, 최대값을 보이는 광역지자체를 제시하여 도시형 광역단체(광역시)가 농촌형 광역단체(도)에 비해 EQ-5D가 높고 농촌형은 도시형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고 해석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삶의 질 영역별 상이성에 주목하여 사례지역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거나 정주공간 유형별로 나타나는 영역별 특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을 확인하는 데 그쳤고 심층적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겼다. 가령, 배민기·조택희(2016)는 충청북도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32개 지표(9개 부문)에 대한 주민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유형화했다. 시·군 간 삶의 질 만족도 비교 후 요인분석과 거리행렬을 이용한 다차원척도법을 통해 도시 유형(청주·충주), 성장 유형(진천·음성), 대도시 근처 농업유형(옥천·영동), 자연친화 유형(괴산·단양·보은)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제시했다. 도시 유형에서는 보건복지, 여가문화, 교육 여건의 상대적 만족도가 높고 소득소비, 근무여건 등은 낮으며, 자연친화 유형은 교통여건 만족도, 여가문화, 보건복지 등 전반적 생활여

16) 건강한 생활은 가족생활, 소득 및 소비생활, 직장생활, 보건생활 등의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17) EQ-5D는 삶의 질을 운동,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우울/불안 등 5개 차원의 기술 체계를 종합한 지표이다.

건 만족도도 낮다고 해석했다.

박인권(2018)은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지역 간 격차에 주목하고 역량 접근법에 기반하여 구성한 사회적 약자 역량 지표체계(객관적 지표)를 162개 시·군에 적용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 지역유형 간 역량(안녕) 수준을 비교했다. 전반적으로 대도시에서 역량이 크지만 세부 영역별로 도시 규모에 따라 강점과 약점이 달랐다. 대도시는 소득, 건강, 교육, 유희 등에서, 농촌은 사회관계, 안전, 환경 등에서 강점을 나타내 대도시와 농촌이 대체로 서로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심층적 분석을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인구 규모, 지역 등 다양한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주공간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만족도)을 다룬 연구들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각기 다른 지역유형 간 또는 개별 시·군 간 비교하고 있어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대체적 경향성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일자리, 소득 등 경제, 문화·여가, 의료·건강, 교육, 주거환경, 교통, 생활편의 등 영역에서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농촌지역에서는 환경, 안전, 사회관계, 신뢰 등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중소도시, 도농복합지역 등 중간적 위치의 지역에서는 영역별로 뚜렷한 높고 낮음이 발견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에서 사회참여, 안전, 복지 영역의 삶의 질이 높고 소득, 일자리 만족 등과 관련한 삶의 질이 낮다는 상반된결과나, 중소도시에서 건강이나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한편 주관적 지표를 사용한 경우와 객관적 지표를 사용한 경우의 차이도 있었는데, 가령 소득 등 경제 영역의 경우 객관적 지표에서는 대도시 지역이 높은 수준이지만 주관적 지표에서는 도시지역에서 더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 2) 정주공간 유형에 따른 삶의 질 결정요인

서로 다른 공간 유형에 따른 삶의 질 결정요인의 차이에 관심을 둔 연구는 드문 편이다. Millward and Spinney(2013), Han(2015) 등의 연구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한 각 하위그룹별로 분리된 모형을 통해 삶의 만족 또는 주관적 안녕에 대한 영향 관계를 추정했다. 이들 연구는 독립변수들의 영향이 공간적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Gilbert et al., 2016: 43).

Millward and Spinney(2013)는 도시-농촌 연속체(Continuum)을 도심지역(Inner City), 교외지역(Suburbs), 내부통근권(Inner Commuter Belt), 외부통근권(Outer Commuter Belt) 등 4개 하위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지역에 대해 분석하는 경우보다 하위지역(zone) 단위에서 SWL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하위지역별 예측변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냄을 보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도시-농촌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삶의 질에 대한 특정 요인의 효과를 확인하거나 영향요인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는 다수 있었지만, 도시화 수준을 고려한 정주공간 유형별로 삶의 질 영향요인의 차이를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권오규 외(2019)는 도시규모에 따라 대도시-중도시(30만 이상)-소도시(30만 미만)로 구분하고 도시규모 그룹별로 도시쇠퇴 정도(전년 대비 인구변화율)가 전반적 생활만족감, 가족의 수입만족감, 주거환경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도시쇠퇴가 진행될 때 대도시 주민의 주거환경 만족감은 감소했고 전반적 생활만족감은 증가했다. 중도시 주민은 전반적 삶의 만족감은 증가했지만, 가족의 수입만족감과 주거환경 만족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도시 주민은 세 부문에서 모두 만족감이 낮아졌다. 분석모형에는 개인 특성 통제하에 지역수준 요인으로 도시쇠퇴정도만 포함되었다.

최영출(2019)은 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주민 설문조사를 바탕으

로 삶의 만족(지역 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결합조건을 대도시(자치구), 중소도시, 농촌(군) 등 3개 지역유형별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영향요인으로는 지역특성(지역 유형, 인구규모, 재정상태)과 인구·사회특성을 포함했다. 대도시는 16개 특성그룹(끝마디)이 생성되었고, 순서대로 인구, 재정자립도, 월가구소득의 중요도가 높았다(노드 분리에 영향). 중소도시는 14개 특성그룹이 생성되었고, 재정자립도, 인구, 월가구소득 요인의 중요도가 높았다. 농촌은 14개 특성그룹이 도출되었고, 인구, 재정자립도, 일자리형태가 중요도가 높은 요인이었다.

이장영(2013)은 큰 도시(큰 도시, 큰 도시 주변)와 시골 마을(작은 도시, 시골 마을, 외딴 곳) 등 2개 지역유형에 대해 개인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스포츠활동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했다. 큰 도시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스포츠활동이 순서대로 삶의 만족에 양(+)의 영향을 나타냈고, 시골 마을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직접적 영향은 사라지고 스포츠활동을 통한 간접적 영향과 스포츠활동의 직접적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상기 세 변수 외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장영(2002)은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1997년) 자료를 사용하여 도시(서울, 대도시, 중소도시)와 농촌(군)에 대해 소득, 건강, 여가생활, 부부 간 관계, 가족 관계 등 5개 요인을 중심으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회귀분석한 결과 도시에서는 소득, 건강, 가족관계, 부부 간 관계, 여가생활 순으로, 농촌에서는 소득, 가족 관계, 여가생활, 건강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확인했다.

이태종 외(2005)는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삶의 질 여건을 중심으로 광역시(대구광역시), 자치시(경산시), 자치군(청도군) 등 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연구했다. 전반적 생활여건과 8개 생활여건(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만족도(5년 전 및 현재)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인식하는 삶의 질 평가가 전반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지역유형별로 8개 생활여건이 전반적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영향력(β) 순으로 대구광역시에서는 건강한 생활,[18] 편리한 생활, 자연환경, 교육·복지생활, 경제생활, 경산시에서는 건강한 생활, 경제생활, 공공안전생활이, 청도군에서는 건강한 생활, 여가·문화생활, 경제생활, 자연환경이 유의했다. 생활여건별 만족도 외 다른 요인은 통제되지 않았다.

송건섭(2007) 역시 광역시(대구), 자치시(경산), 자치군(청도) 등 세 지역을 대상으로 삶의 질 만족에 대해 생활여건과 관련한 21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시는 소득·소비생활, 주거생활, 교육, 재난구호여건 등, 경산시는 재난구호와 직장생활, 지방자치, 인구 등, 청도군은 직장생활, 소득·소비생활, 주거생활, 문화 등이 삶의 질 만족에 상대적으로 영향력(β)이 높았다. 분석모형에는 21개 요인 만족도 외 다른 요인은 통제되지 않았다.

송건섭 외(2008)도 동일한 대구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대구광역 모형(대구광역시 8구·군)과 대구인근 모형(8시·군)의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삶의 질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분석모형은 8개 여건에 대한 설문 만족도를 영향요인으로 포함했고 그 외 다른 변인은 통제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 대구광역지역은 지역경제(β=.255), 가족주거(.176), 건강관리(.141)여건, 대구인근지역은 지역경제(.242), 가족주거(.188), 건강관리(.161) 여건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어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승철(2011)은 경상북도 5개 시·군을 광역·기술형(1유형, 대구), 산업·경제형(2유형, 구미), 교육·생활·복지형(3유형, 경산), 환경·생태형(4유형, 군위·영덕)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한 19개 측정지표의 영향 관계를 분석했다. 대구는 고용소득(β=.209), 경제구조(.178), 도시환경(.159), 교육문화(.150), 교통주택(.142), 지구환경(.116) 등, 구미시는 주거환경(.181), 지구환경(.172), 인구(.136), 도시환경(.125), 형평성(.114) 등, 경산시는 지구환경(.254), 도시환경(.162), 교통주택(.133), 교육문화(.119), 인구(.115), 산업구조(.113), 공공안전(.104) 등,

18) 건강한 생활 여건에는 가족생활, 소득 및 소비생활, 직장생활, 보건생활을, 편리한 생활여건은 교통, 정보통신, 주거생활이 세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군위·영덕군은 지구환경(.177), 도시환경(.156), 경제구조(.150), 교통주택(.141), 형평성(.101), 산업구조(.091) 등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주공간 유형에 따른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탐색한 연구의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삶의 질을 설명하기 위해 투입된 변수가 매우 한정된 경우는 각 정주공간 유형별 결과가 순서만 조금 다를 뿐 유의한 요인이 대부분 겹치게 나타났다. 생활여건 영역들에 대한 만족도(또는 그 세부요인)를 설명변수로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는 각 정주공간 유형에 대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영향요인을 찾기 어렵고, 유형 간 순서만 조금 다를 뿐 많은 영향요인(영역)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미약한 경향성이기는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소득·일자리, 교육, 건강, 주거 관련 여건, 중소도시에서는 소득·일자리, 안전 관련 여건, 농촌에서는 소득·일자리, 문화·여가, 환경 관련 여건이 영향력 순서상 상위 축이거나 영향요인으로 조금 더 빈번하게 확인되었다.

## 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도시·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비교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연구결과들 간 일관되지 않았다. 농촌의 삶의 질이 더 높다는 결과와 도시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결과,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 등 다소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점수 평균 또는 표준화·지수화, 순위화·등급화 등 방식을 사용해서 전반적 삶의 질, 구성영역별 지역 간 격차를 보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지만 일부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다수였고, 객관적 삶의 질 또는 주관적 삶의 질의 한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많았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가 지역의 객관적 인프라(시설 수 등) 차이 또는 주민 만족도 차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

고 있으며, 비교를 위해서는 분산분석 등의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지역 격차 비교 후 영향요인을 탐색한 연구의 경우에도 지역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모형에 대해 분석하거나, 유형별로 분리된 모형을 분석하더라도 설명변수 구성과 통제에 있어 제한적이었다. 가령 대구광역시와 인근 시·군을 포함하는 대도시권을 대상지로 연구한 네 개 연구는 지역유형 간 차별성에 주목하고 분리된 모형을 통해 분석했지만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각 부문별 만족도만 포함했고 개인이나 지역 수준의 다른 변수들은 통제되지 않았다.

삶의 질에 대한 특정 관심변수(개인 또는 지역 수준)의 영향을 파악하려는 분석모형에서 더미변수를 통해 정주공간 유형 차이를 반영한 연구들이 상당수 있었지만, 이들 연구는 공간적 관점이 부재한 연구에 비해서는 지역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만 정주공간 유형 간 차이나 지역효과가 연구의 주 관심사는 아니며 통제변수로서 포함되었다.

정주공간 유형에 따른 삶의 질 영향요인의 상이성 측면에서 보면, 국내외 연구 모두 지역의 서로 다른 맥락을 고려하여 정주공간 유형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지역여건 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연구의 세부 주제별로 개인 또는 지역 수준의 관심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려는 연구는 정주공간 유형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고려하더라도 분석모형에서 정주공간 유형을 더미변수를 통해 통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만 지역 차이를 반영했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이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도시화에 따른 장소성에 기반하여 도시적 가치와 농촌적 가치를 삶의 질 차원에서 심층적·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삶의 질을 비교하더라도 지역 간 격차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치거나 일부 사례지를 대상으로 삶의 질 수준이나 차이를 파악한 연구가 다수였다. 도시화의 진행 과정에서 농촌지역은 저발전된 공간 또는 정주환경이 열악한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 연구는 사람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 농촌이 갖는 가치에 주목하고 전국단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적 가치를 식별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삶의 질의 다면적 측면을 상세하게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삶의 질의 다면성, 주관적 삶의 질과 객관적 삶의 질, 그리고 이 둘 간의 관계를 함께 다룬다. 선행연구들은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 평가 또는 한 측면만을 다루거나 주관적 삶의 질 또는 객관적 삶의 질 중 하나만을 다루어, 삶의 질의 다면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삶의 질의 다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개념적 틀로서 역량 접근법을 채택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삶의 질 분석방법의 측면에서 이 연구는 거주지에 따른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한 정교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정주공간 유형 간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함에 있어 선행연구에서는 분산분석을 통한 비교나 단순히 평균을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전통적 방법은 정주공간 유형 간 주민의 특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삶의 질의 차이와 지역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삶의 질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 만족도에서 개인특성 효과를 통제하여 지역 효과로 인한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내는 점수를 산출하여 비교하는 방법, 유사한 특성을 가진 응답자 간 매칭하여 보다 편의를 줄여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비교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넷째, 이 연구는 지역 맥락의 차이성에 따른 삶의 질 결정요인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객관적 삶의 질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확인함에 있어서 선행연구들은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전국 단위의 분석에서 정주공간 유형별 분석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지역맥락의 상이성에 따른 결정요인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또한 분석 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개인특성 변수들을 통제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 제3장 분석 자료 및 방법

이 장에서는 역량 접근법을 바탕으로 9개 삶의 질 영역을 구성했다. 9개 영역을 중심으로 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를 구성하고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주요 내용에 따른 분석 방법을 제시했다.

객관적 삶의 질의 측정지표로는 9개 영역별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와 관련한 변수를 구성했다. 주관적 삶의 질의 측정지표로는 201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문조사 자료의 전반적 만족도(지역생활에 대한 만족, 행복)와 9개 영역별 만족도를 사용했다. 정주공간 유형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실증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162개 시·군을 수도권 도시, 비수도권 도시, 농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 제1절 변수 및 분석 자료

### 1) 삶의 질 영역 구성

분석에 앞서 역량 접근법에서 제시하는 역량으로서의 안녕, 즉 삶의 질 개념을 바탕으로 삶의 질 구성영역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Sen은 기능과 역량의 고정된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특정 맥락이나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 중요한 역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았다(Yap and Yu, 2016: 315). 국가나 문화가 가진 고유성에 따라 역량 개념이 사회적·문화적 상대성을 가지기 때문에 역량의 규범적 목록은 없다고 보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역량 목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역량 목록은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새로 설정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역량이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다(Vallentyne, 2005).

반면 Sen과 함께 역량 접근법을 발전시킨 Nussbaum은 인권 접근으로서 역량 접근법의 목적이 핵심적 중요성을 갖는 부문들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기능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밝히고 10가지 중심 역량(Central Human Capabilities)을 제시했다(Nussbaum, 2007: 21). 그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각 정부가 시민들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역량 기준으로서 중심 역량을 제시하면서도, 상이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는 국가나 행위주체에 따라 이러한 역량 목록의 제시와 해석,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Nussbaum, 2007: 21; Stewart, 2013: 157).

Nussbaum이 제시한 중심 역량의 목록은 생명(Life), 신체적 건강(Bodily Health), 신체적 무결성(Bodily Integrity), 감각·상상·사고(Senses, Imagination, and Thought), 감정(Exercise of the Emotions), 실천이성(Practical Reason), 소속(Affiliation), 다른 종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 with other species), 유희(Play), 정치적·물질적 자기 환경의 통제(Control over one's Political and material environment) 등으로 각 역량의 내용은 <표 3-1>과 같다.

한편 Ackerly(2000)가 서구 학자로서 Nussbaum의 배경적 맥락과 관련하여 그가 제시한 역량의 일부 논지를 비판한 것처럼[19] Nussbaum이 제시한 역량에는 자유, 실천이성 등과 같은 서구적 가치에 대한 관점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중심 역량 목록을 직접적으로 지표 구성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편향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19) 가령, Ackerly(2000)는 Nussbaum이 강조하는 교육(특히 문해력을 교육으로 보는 관점)과 관련해서 교육의 가치는 서구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Nussbaum이 교육을 통해 성취 가능하다고 보는 경제적 번영, 자율성, 자기존중과 같은 가치들은 가난한 농촌 방글라데시의 맥락에서는 크게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비판했다.

<표 3-1> Nussbaum이 제시한 중심 역량

| 구분 | 역량의 내용 |
|---|---|
| 생명 | 정상적인 인간 수명까지 사는 것 |
| 신체적 건강 | 좋은 건강상태, 충분한 영양, 적절한 주거를 갖는 것 |
| 신체적 무결성 | 이동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안전, 성적 만족과 결정권을 갖는 것 |
| 감각·상상·사고 | 적절한 교육을 통해 개발된 인간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상·사고·추리를 위한 감각을 사용하는 것 |
| 감정 | 사람과 사물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것 |
| 실천이성 | 선(the good)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의 삶의 계획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 |
| 소속 | A) 타인과 더불어 살고, 다른 인간 존재에 대한 관심을 인지하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것<br>B) 자기존중과 굴욕 없는 사회적 기반을 갖는 것, 인종, 성, 민족, 국적, 종교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것 |
| 다른 종과의 상호작용 | 동물, 식물, 자연 세계와 관계 맺고 관심을 갖는 것 |
| 유희 | 웃고, 유희를 즐기고,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즐기는 것 |
| 정치적·물질적 환경의 통제 | A) 정치적: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정치적 선택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br>B) 물질적: 재산을 소유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일자리를 구할 권리를 갖고 인간 존재로서 일할 수 있는 것, 영장 없는 검색과 체포에서 자유로운 것 |

자료: Nussbaum(2007:23-24)을 요약 정리함.

Sen과 Nussbaum이 밝힌 것처럼 역량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역량 접근을 적용하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그 구성과 적용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안녕을 측정·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역량 목록의 조작화는 연구자나 실무자가 목적과 대상에 맞추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다(박인권, 2018: 86). 하나의 기초적 역량 목록이 모든 평가나 측정에 적합할 수 없고, 어떤 기능과 역량에 초점을 둘 것인가의 선택은 해당 사안에 따라 반복적으로 다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Alkire, 2005: 127).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역량, 즉 안녕의 영역과 세부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역량 접근법을 바탕으로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했다. 역량 접근법의 철학이 반영된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이하 'BLI')'와 안녕으로서의 역량 개념에 토대를 둔 박인권(2018)의 사회적 약자 역량 지표체계, Nussbaum이 제시한 중심역량 목록을 바탕으로 개인 수준에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한 Anand et al.(2009)의 조사문항 리스트, 역량 이론을 바탕으로 Nussbaum의 중심역량 목록을 재구성한 이희철·구교준(2019)의 국민행복지수 측정체계, 구교준 외(2012)의 삶의 역량 분야와 지표 등이다.

구교준 외(2012)는 Nussbaum(2000)의 목록을 재구성하여, 건강, 신체보전, 사유, 유희, 자연동화, 경제 등 6가지 삶의 역량 분야를 구성하고 세부지표를 설정하여 지역 간 격차를 측정했다. 이희철 외(2020)는 구교준 외(2017)의 접근을 바탕으로 Nussbaum(2003)의 10가지 역량 영역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여기에 BLI의 접근에 따라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추가하여 8개 영역을 구성했다. Anand et al.(2009)은 Nussbaum의 중심 역량 목록을 바탕으로 개인 수준에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문항들을 디자인했다. 이처럼 역량 접근법에 기반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Nussbaum의 중심 역량을 바탕으로 접근하여 소득·부/일자리·경제활동, 주거, 건강·보건, 교육, 안전, 환경, 사회관계·참여·정치, 문화·여가·유희, 주관적 안녕 등과 같은 영역들 중 연구 목적과 상황에 따라 역량의 영역과 세부지표를 구성하여 사용했다. 각 선행연구의 지표 구성은 <부록 1>에 제시했다.

Nussbaum이 제시한 중심 역량은 기능에 따라 구성된 목록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나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각각의 중심 역량과 기능적으로 구성된 영역별 지표를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컨대 '신체적 건강' 역량은 건강·보건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적절한 주거환경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고, '감각, 상상, 사고' 역량은 적절한 교육에 기반한 사고활동과 창조활동, 정치적·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사고의 활용 등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를 다룬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중심 역량이 표명하는 가치와 방향을 분석 자료의 현실적 한계 속에서 가용할 수 있는 지표로 조작화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의 경우에도 Nussbaum의 목록 중 생명, 신체적 건강, 신체적 무결성 역량은 기초생활환경, 의료, 안전, 복지 영

역, 감정, 실천이성 역량은 교육 영역, 소속 역량은 공동체 영역, 다른 종과의 상호작용 역량은 환경 영역, 유희 역량은 문화·여가 영역, 정치적·물질적 자기 환경의 통제 역량은 일자리·소득 영역으로 대략적으로만 대응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Nussbaum의 중심 역량 목록을 비롯하여 선행연구들의 삶의 질 지표를 검토하고 주관적·객관적 삶의 질 자료의 구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환경, 일자리·소득, 환경, 공동체, 의료, 안전, 교육, 문화·여가, 복지 등 9개 영역과 세부 측정지표를 구성했다. 후술하겠지만 본 연구는 2018년도에 추진한 설문조사 자료를 2차 자료로 사용하는데,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주관적 삶의 질을 거주지의 생활환경에 대한 인지·평가라는 다소 포괄적 내용의 만족도로 조작화하였다.

개인의 구체적 경험이나 내면 상태 등 안녕의 성취를 위한 상태와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이 상태·행위와 관련되는 지역 여건을 평가하는 영역별 만족도를 통해 측정했다. 기 조사자료 사용의 한계로 인해 이론에서 다루는 개념이 실증모형으로 정교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해 전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인지 수준을 고루 파악할 수 있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도 충분한 응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2) 영역별 변수 및 분석 자료

#### (1) 객관적 삶의 질: 지역의 정주 여건

앞서 구성한 9개 삶의 질 영역에 따라 지역에서의 삶의 질 정주여건을 나타내는 객관적 삶의 질 지표체계를 구성했다. 삶의 질 인지의 배경이 되는 환경적 조건으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인프라와

서비스 여건과 관련한 변수들을 구성했다.[20]

특히 각 영역별로 지역 자원 사용의 용이성과 관련된 여건을 나타내는 서비스 인프라 접근성 지표를 포함했다.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서 제공하는 각 시설 유형에 대한 접근성과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자료를 사용했다.[21] 접근성 및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지표는 기초적 생활인프라 공급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따라 이동 소요시간을 고려한 도로 이동거리를 측정한 것이다. 접근성은 격자(500m×500m)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해당 시설까지의 도로 이동거리(시·군 평균)를 나타낸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은 행정구역 내 총 인구수 대비 해당 시설의 서비스권역 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다. 연구에서 사용한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지표는 마을단위 시설의 경우 1.5㎞ 반경 기준(도보 약 20분)을 적용했다. 지역거점단위 시설은 종합병원의 경우 10㎞ 반경 기준(차량이동 약 20분)을 적용했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제공되는 가장 작은 반경인 5㎞(차량이동 약 10분) 기준을 적용했다.

각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측정지표를 구성했다. 기초생활환경 영역은 주민들이 지역에 정주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거와 각종 생활지원 서비스, 도로·교통시설 등의 환경적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관한 영역이다. 주거시설과 각종 생활인프라, 도로·교통 등 기반시설과 같은 기초적 생활환경이 적절히 공급되고 편리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삶의 만족, 정주만족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

20) 지표 중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1인가구 비율, 독거노인가구 비율, 교원1인당 학생 수, 사설학원 수, CCTV대수 등 일부 지표는 대한민국 행복지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했다. 대한민국 행복지도는 국회미래연구원이 개발·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등 7개 부문별 지표와 국민행복지수, 삶의만족도, 행복역량지수 등으로 구성된다.

21)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서 마을단위 도보권 시설은 0.5km(도보 약 7분), 0.75km(도보 약 10분), 1.0km(도보 약 14분)m 1.5km(도보 약 20분), 지역거점단위 차량이동권 시설은 5km(차량이동 약 10분), 10km(차량이동 약 20분), 15km(차량이동 약 30분) 반경에 대해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자료를 제공한다.

요인으로 나타난다(이태종 외, 2005; 송건섭, 2007; 이승철, 2011; 임근식, 2012; 김병섭, 2015a; 최예나, 2016; 신상준, 2017 등).

기본적인 생활 지원 인프라로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도로포장률을 지표로 선정했다. 고속철도 접근성과 고속도로IC 접근성은 다른 지역과의 연결 및 이동 편의를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하였다. 지역 주거환경의 노후 및 쇠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노후주택비율과 빈집비율을 포함하였다(표 3-2).

<표 3-2>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 기초생활환경

| 구분 | 측정지표 | 지표 내용 | 통계 출처 |
|---|---|---|---|
| 기초 생활 환경 | 노후주택비율 | 전체 주택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의 비율 | 통계청, 주택총조사 |
| | 빈집비율 | 전체 주택 중 빈집의 비율<br>* 신축되어 입주하지 않은 주택 포함 | 통계청, 주택총조사 |
| | 상수도보급률 | 총인구 중 지방 및 광역상수도에 의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 | 환경부, 상수도통계 |
| | 하수도보급률 | 총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 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인구의 비율 | 환경부, 하수도통계 |
| | 고속철도 접근성 | 격자(500m×500m)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고속철도까지의 도로 이동거리(㎞)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
| | 고속도로IC 접근성 | 격자(500m×500m)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IC까지의 도로 이동거리(㎞)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
| | 도로포장률 | 개통도 연장에 대한 포장도로 연장 비율 | 국토부, 도로현황조사<br>통계청, e-지방지표 |

일자리·소득 영역은 지역사회의 일자리 및 고용과 관련된 환경, 지역의 경제의 활성화 수준, 지역의 소득 수준과 관련된 지역 환경을 나타내는 영역이다. 경제활동이나 소득, 자원에 대한 통제 등과 관련한 경제적 지표는 삶의 질 인식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삶의 질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경제 지표는 개인의 생활 수준을 직접적으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사회적 지위 형성 등의 의미도 가진다(이태종 외,

2005; 송건섭, 2007; 최영출·이지혜, 2013; 류지아, 2016; 강은택 외, 2015; 서인석 외, 2015b; 최영출, 2018; 안아림·마강래, 2019 등).

고용률과 인구당 사업체종사자 수는 지역의 취업 상황과 관련된 지표로 선정했다.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취업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동시장 현황을 간명하게 보여주며, 인구당 사업체종사자 수는 전체 인구에 대한 사업체 종사 현황을 보여준다. 상용근로자 비중은 전체 종사자 수에 대한 상용근로자, 즉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비율로,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하였다. 사업체수 증가률은 지역의 경제활동 활성화 수준과 관련되며 증가율 지표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했다. 지식기반산업 집적도는 지역의 지식서비스 및 첨단기술 산업 등 보다 고도화된 산업과 관련한 지역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했다. 1인당 지방소득세는 지역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지표로 사용했다(표 3-3).

<표 3-3>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 일자리·소득

| 구분 | 측정지표 | 지표 내용 | 통계 출처 |
|---|---|---|---|
| 일자리 소득 | 1인당 지방소득세 | 주민 1인당 지방소득세('18년, 결산 기준)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 | 고용률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 | 인구당 사업체종사자 수 | 주민등록인구 대비 사업체에 종사하는 인구 수 | 사군구 통계연보, 사업체 종사자수 |
| | 상용근로자 비중 | 총 종사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br>* 종사자: 취업자(비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기타종사자<br>* 상용근로자: 명시적·암묵적 계약을 통해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 | 사업체수 증가률 | 사업체수 증감률(최근 3년)<br>※ 변화율은 연평균증감률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 | 지식기반산업 집적도 | 지식기반산업의 집적도(최근 3년 평균)<br>* 지식기반산업=지식기반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br>* 지식기반산업 집적도(LQ) =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지역의 전산업 종사자수)/(전국의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전국의 전산업 종사자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환경 영역은 환경 오염에 따른 생태계 파괴, 기후 위기 등 측면에서 최근 들어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삶의 영역이다.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지역의 자연과 녹지 환경, 경관 어메니티는 주민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Van Praag and Baarsma, 2005; Brereton et al., 2008; 이승철, 2011; 서인석 외, 2015a 등).

지역의 환경 오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활폐기물 배출량 지표를 선정했다. 주민들이 자연환경을 접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 공간이 지역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공원면적 비율, 생활권공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녹지율(도시지역 대비 녹지지역 비율)을 선정하였다(표 3-4).

<표 3-4>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 환경

| 구분 | 측정지표 | 지표 내용 | 통계 출처 |
|---|---|---|---|
| 환경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행정구역 면적당 대기오염물질배출량(톤/㎢·년) | 환경부 사군구별 배출량 자료, UPIS |
| |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 주민등록인구 1명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 통계청, e-지방지표 |
| | 행정구역 대비 공원면적비 | 행정구역 면적 대비 공원 면적 비율<br>* 국가도시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통계 |
| | 생활권공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5㎞) | 행정구역 내 총 인구수 대비 생활권공원으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br>*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
| | 녹지율 | 도시지역 면적 대비 녹지지역 면적 비율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통계 |

공동체 영역은 주민들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서로 연결·소통하고 지역사회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공동체에 대한 참여, 네트워크(소통), 호혜, 신뢰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참여는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만족감과 효능감을 높여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서인석 외, 2015a; 이진향·오미옥, 2014; 김선아·박성민, 2014; 신상준, 2017; 강영웅, 2020, Helliwell and Putnam, 2004 등).

전국지방선거투표율은 지역사회 사안에 대한 관심 정치적 관심과 참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하였다. 1인가구 비율과 독거노인가구 비율은 공동체로서 사회적 관계의 사각지대에서 고립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하였다. 인구십만명당 자살률은 공동체 안에서의 네트워크나 상호 유대감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지표로 사용하였다(표 3-5).

<표 3-5>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 공동체

| 구분 | 측정지표 | 지표 내용 | 통계 출처 |
|---|---|---|---|
| 공동체 | 전국지방선거 투표율 |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유권자 수 대비 투표율<br>*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18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DB |
| | 1인가구 비율 | 전체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율(독거노인 제외) | 통계청, e-지방지표 |
| | 독거노인가구 비율 | 전체 일반 가구 중 혼자 살고있는 노인가구의 비율 | 통계청, e-지방지표 |
| | 인구십만명당 자살률 | 주민등록인구 십만명당 자살률<br>※ 대한민국 행복지도 지표 | 통계청, 주제별 통계 및 사회통합 |

의료 영역은 좋은 삶을 위한 기본적 조건인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주민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측정한다. 건강의 좋고 나쁨, 질병이나 장애는 개인의 삶에 기본적 제약을 가져옴으로써 자유와 삶의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이태종 외, 2005; 이승철, 2011; 서인석 외, 2015a; 신상준, 2017 등).

행정구역면적당 의료인력 수는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전반적 양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하였다. 지역의 고차 및 저차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종합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

비율과 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을 선정했다. 특히 신속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의 지역 여건과 관련하여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지표를 선정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의 수요와 관련하여 노인인구 비율 지표를 포함하였다(표 3-6).

<표 3-6>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 의료

| 구분 | 측정지표 | 지표 내용 | 통계 출처 |
|---|---|---|---|
| 의료 | 행정구역면적당 의료인력 수 | 행정구역 면적당 의료인력 수(2018년 4분기)<br>* 의료인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현황 |
| |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 격자(500m×500m)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시설까지의 도로 이동거리(㎞)<br>*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
| | 종합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0㎞) | 행정구역 내 총 인구수 대비 종합병원으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br>*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
| | 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5㎞) | 행정구역 내 총 인구수 대비 병원으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br>*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
| | 노인인구 비율 |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안전 영역은 지역에서 범죄나 사고, 재해 등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의 안전한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기반 환경을 측정한다. 범죄, 사고, 재해 등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신체적 피해나 정신적 불안감 등은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명철, 2013; 이승철, 2011; 송건섭, 2007; 이태종 외, 2005 등).

행정구역면적당 119안전센터 수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

와 재해 상황에 대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서비스의 전반적 양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하였다. 경찰서 접근성은 지역에서 사건이나 범죄가 발생할 경우의 치안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지표로, 발생 가능한 사건·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안전감과도 관련된다. 또한 CCTV가 범죄 예방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행정구역면적당 CCTV 대수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여건과 관련한 지표로 선정하였다. 인구십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 수는 지역의 교통안전과 관련한 지표이다(표 3-7).

<표 3-7>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 안전

| 구분 | 측정지표 | 지표 내용 | 통계 출처 |
|---|---|---|---|
| 안전 | 행정구역면적당 119안전센터 수 | 행정구역 면적당 119안전센터 수 | 공공데이터포털 |
| | 경찰서 접근성 | 격자(500m×500m)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찰서까지의 도로 이동거리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
| | 인구십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 수 | 인구 십만명당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
| | 행정구역면적당 CCTV대수 | 행정구역 면적당 CCTV 대수<br>※ 대한민국 행복지도 지표(38개 결측치 추정) | 공공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 |

교육은 개인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회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교육 영역은 지역에서 학생들이 공교육 및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와 관련하여 기본적 환경 여건을 측정한다. 교육에서의 성취는 직업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개인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 기회는 삶의 질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최말옥·문유석, 2011; 김병섭, 2015b; 이태종 외, 2005; 송건섭, 2007; 이승철, 2011 등).

행정구역면적당 학교 수는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공교육 서비스의 전반적인 양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하였다. 교원1인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한 지표로 선정하였다. 인구천명당 사설

학원 수는 지역에서 공교육 외에 사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초등학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과 어린이집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은 각각 학령인구와 미취학인구 어린이의 교육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접근성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하였다(표 3-8).

<표 3-8>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 교육

| 구분 | 측정지표 | 지표 내용 | 통계 출처 |
|---|---|---|---|
| 교육 | 행정구역면적당 학교 수 | 행정구역 면적당 초·중·고 학교 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
| | 교원1인당 학생 수 | 교원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 | 통계청, e-지방지표 |
| | 인구천명당 사설학원 수 | 주민등록인구 천명당 사설학원 수<br>* 사설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 | 통계청, e-지방지표 |
| | 초등학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5㎞) | 행정구역 내 총 초등학령인구(8-13세) 수 대비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초등학령인구 비율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
| | 어린이집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5㎞) | 행정구역 내 총 영유아인구(7세 이하) 수 대비 어린이집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영유아인구 비율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

문화·여가 영역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문화적 삶의 향유하고 문화·체육 활동을 통해 여가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나타낸다. 문화·여가는 사람들의 삶에 활력과 의미를 제공하고 경제적 활동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을 제공하며 문화·여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시켜 주기도 함으로써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최예나, 2016; 이장영, 2002; 고명철, 2013; 이태종 외, 2005; 송건섭, 2007; 이승철, 2011 등).

행정구역면적당 문화기반시설 수와 행정구역 대비 마을체육시설 면적비율은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서비스 및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양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하였다.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과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 인구비율은 문화서비스와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하였다(표 3-9).

<표 3-9>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 문화·여가

| 구분 | 측정지표 | 지표 내용 | 통계 출처 |
|---|---|---|---|
| 문화 여가 | 행정구역면적당 문화기반시설 수 | 행정구역 면적당 문화기반시설 수<br>*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 문체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 | 행정구역 대비 마을체육시설 면적비 | 행정구역 면적 대비 마을체육시설 면적 비율<br>* 마을체육시설: 체육공원, 둔치, 마을공터, 아파트단지, 약수터, 등산로 등 | 문체부,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
| |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 비(5㎞) | 행정구역 내 총 인구수 대비 공연문화시설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br>* 공연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등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
| |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 인구비(1.5㎞) | 행정구역 내 총 인구수 대비 공공체육시설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br>* 공공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야구장, 축구장, 체력단련장, 탁구장 등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

복지 영역은 지역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측정한다. 복지서비스 인프라, 복지정책 수혜, 복지예산 비중 등과 관련하여 복지는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논의되어 왔다(서인석 외, 2015a; 서인석, 2017; 이태종 외, 2005; 이승철, 2011 등). 복지서비스는 수요계층의 특성상 대인 서비스이거나 공급자가 가구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공개된 통계자료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시설 측면의 여건에 한정하였다.

행정구역면적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 다양한 인구 계층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양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하였다. 행정구역면적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의 고령 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양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은 그러한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지표이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역의 수요와 관련하여 노인인구 비율 지표를 포함하였다(표 3-10).

<표 3-10>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 복지

| 구분 | 측정지표 | 지표 내용 | 통계 출처 |
|---|---|---|---|
| 복지 | 행정구역면적당 사회복지시설 수 | 행정구역 면적당 사회복지시설 수<br>* 사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 등 | 통계청, e-지방지표, 사도 통계연보 |
| | 행정구역면적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 행정구역 면적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br>*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
| |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5㎞) | 행정구역 내 총 거주노인인구 수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노인인구(60세 이상) 비율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
| | 노인인구 비율 |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 (2) 주관적 삶의 질: 설문조사 응답 만족도

전반적 및 삶의 영역별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18년도에 실시한 전국 단위 '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만족도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이 조사는 문재인정부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정책 수립에 활용할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2018.2.1)을 발표하면서 균형발전지표 중 주관지표를 구축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22] 조사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반적 삶의 질 만족도와 9개 정책영역별 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만

22) 주관지표 구축을 위한 이 조사는 문재인정부 초기에 향후 균형발전정책 관련 모니터링 등을 목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특히 2018년도 조사는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기준치(baseline)를 설정하는 의미가 있다. 전화조사의 앞부분에서는 해당 조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전 국민의 행복과 정주 만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응답된 내용이 향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안내되었다.

족도를 질문했다. 9개 정책영역은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복지, 시민참여·공동체이다.

표본 설계에 있어 시·군의 인구규모를 고려하되 인구가 많지 않은 소지역에도 충분한 수의 표본이 배분되도록 하여, 서울특별시는 1,000명, 광역시는 인구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산 600명, 대구 400명, 인천 400명, 광주 300명, 대전 300명, 울산 300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50만 이상 시는 160명, 20만 이상~50만 미만 시는 140명, 20만 미만 시는 120명,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군은 100명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광역시에 소속된 5개 군(기장, 달성, 옹진, 강화, 울주)의 경우도 100명씩 할당했다.

이 설문조사는 공공정책 수립 지원을 취지로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지역의 공공서비스나 인프라 이용 환경과 관련한 삶의 질 체감이 조사의 초점이며 개인적 차원과 관련한 삶의 질 실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응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영역당 2~3개 세부문항으로 설계하여 영역별 만족의 내용을 비교적 개괄적인 수준으로만 파악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영역 전반에 대해 전국의 모든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고루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도 충분한 응답이 확보되어 시·군 단위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설문조사는 2018년 12월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162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임의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Random Digit Dialing)을 사용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CATI)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의 응답자 현황은 <표 3-11>과 같다.

이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과 관련하여 '지역생활 만족'과 '행복' 수준의 두 가지로 질문했다. 응답자가 거주하는 시·군을 기준으로 '나는 지금 살고있는 지역의 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현재 행복하다'라는 서술에 대해 최소 0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최대 10점(매우 그렇다) 범위에서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표 3-11> 설문조사 응답 현황

| 구분 | | 응답자 수 (명) | 구성비 (%) | 구분 | | 응답자 수 (명) | 구성비 (%) |
|---|---|---|---|---|---|---|---|
| 전체 | | 22,190 | 100.0 | 광역 사도 | 서울 | 1,000 | 4.5 |
| 성별 | 남성 | 10,980 | 49.5 | | 부산 | 699 | 3.2 |
| | 여성 | 11,210 | 50.5 | | 대구 | 500 | 2.3 |
| 연령 | 19-29세 | 2,494 | 11.2 | | 인천 | 600 | 2.7 |
| | 30대 | 2,122 | 9.6 | | 광주 | 300 | 1.4 |
| | 40대 | 3,333 | 15.0 | | 대전 | 300 | 1.4 |
| | 50대 | 4,333 | 19.5 | | 울산 | 399 | 1.8 |
| | 60세 이상 | 9,908 | 44.7 | | 세종 | 160 | 0.7 |
| 읍·면·동 | 동부 | 11,084 | 50.0. | | 경기 | 4,278 | 19.3 |
| | 읍부 | 4,288 | 19.3 | | 강원 | 2,000 | 9.0 |
| | 면부 | 6,818 | 30.7 | | 충북 | 1,219 | 5.5 |
| 시·군 인구규모 | 광역시 | 3,798 | 17.1 | | 충남 | 1,720 | 7.8 |
| | 50만 명 이상 | 1,919 | 8.7 | | 전북 | 1,598 | 7.2 |
| | 20-50만 명 미만 | 3,785 | 17.1 | | 전남 | 2,359 | 10.6 |
| | 10-20만 명 미만 | 2,592 | 11.7 | | 경북 | 2,599 | 11.7 |
| | 10만 명 미만 | 10,096 | 45.5 | | 경남 | 2,100 | 9.5 |
| | | | | | 제주 | 359 | 1.6 |

이 연구에서 다루는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내는 측정지표로 '지역생활 만족'과 '행복'을 사용했다.[23] 지역생활 만족을 통해 보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인지·평가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행복을 통해서는 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인지·평가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파악했다.

9개 삶의 질 영역은 각기 1~3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12).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거주하는 시·군을 기준으로 최소 0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최대 10점(매우 그렇다) 범위에서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각 영역별로 세부문항 점수의 평균을 해당 영역에 대한 응

23)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 삶의 만족 등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통한 측정치들은 내적 일관성, 신뢰성, 타당성 면에서 높은 수준의 과학적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고(Diener et al., 1999), 최근 수십년간 경제학 등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Brereton et al., 2008: 386).

답자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으로 사용했다. 신뢰성 계수인 크론바흐알파 값은 기초생활환경 0.69, 일자리·소득 0.77, 환경 0.67, 안전 0.72, 교육 0.73, 문화·여가 0.83이다. 환경, 공동체, 의료, 복지 영역은 단일 문항의 응답 점수를 사용했다.

보건·복지 영역의 경우 설문조사에서는 2개 문항으로 제시하여 조사했으나 본 연구의 삶의 질 영역 구성에 따라 의료 영역과 복지 영역을 분리하여 사용했다. 공동체 영역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참여·협력에 대한 문항만 삶의 질 측정지표로 사용했고, 개인 차원의 사회적 관계 수준을 묻는 문항('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친척, 친구, 이웃이 있다')은 개인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3-12> 삶의 질 영역별 만족도 세부내용

| 구분 | 조사 측정 문항 |
|---|---|
| 기초생활환경 (3)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상태에 만족한다 |
| | 상·하수도, 도로, 도시가스 등 기초 생활여건에 만족한다 |
|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및 주차장 이용이 편리하다 |
| 일자리·소득 (2) | 지역 내에 원하는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
| | 지역 내에서 노력한 만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
| 환경 (3) | 우리 지역의 소음, 악취,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에 만족한다 |
| |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해 만족한다 |
| | 미세먼지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적다 |
| 공동체 (1) | 주민들이 마을(동네)의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
| 의료 (1) | 우리 지역은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
| 안전 (3) | 지역의 자연재해 및 재난 등에 대한 예방과 대비책이 충분하다. |
| | 지역의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
| | 지역의 소방(구급대원 수, 119센터 접근성) 등 사회안전체계가 충분하다 |
| 교육 (3) |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은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다 |
| | 지역에서 어른들도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 |
|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충분하다 |
| 문화·여가 (2) | 우리 지역에는 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접근이 편리하다 |
| | 우리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 수준에 만족한다 |
| 복지 (1) | 우리 지역은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다 |

## 제2절 분석 지역 및 정주공간 유형

본 연구는 전국의 16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1개 특별자치시(세종), 75개 시와 77개 군(광역시 소속 5개 군 미포함), 2개 행정시(제주·서귀포) 등 총 162개 시·군이다. 기초 자치단체로서 시·군이 존재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설문조사 시 특별시와 광역시는 거주하는 구(區)까지 조사되었으나 15개 자치구에서는 30명 미만의 주민만이 조사되었다. 통계방법론상 이러한 자치구의 경우 조사된 자료만으로는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방법인 위계선형모형에서 고정효과 계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지역) 내 하위 수준(개인)의 관측치가 최소 30개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24] 연구의 공간적 분석단위는 시·군으로 하였다. 지역 여건을 나타내는 자료 구득 측면에서도 시·군 단위로 제공되는 자료가 더 다양하다는 이점이 있다.

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하여 시·군은 지역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25]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단위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시장을 포함하여 보다 광역화된 경제권과 생활권 범위, 주민들이 인지하는 지역 소속감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도 정주공간의 단위로서 시·군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정주공간 유형화에는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그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같은 유형에 속한 지역들 간에도 얼마간은 차이가 존재하고,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된 지역

24) 위계선형모형에서 표본 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실증 경험치에 따르면 집단 내 하위 수준의 관측치가 30개 이상이 되어야 고정효과 계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희연·노승철, 2012)

25)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다.

들이라도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 있다. 같은 도시 또는 농촌 지역이라도 그 안에서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어 유형 내부의 지역 간 상이성이 존재하며, 도시와 농촌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시성 및 농촌성이라는 지역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의 경향을 확인하는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한 기준을 통해 지역을 유형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주민의 삶의 질을 탐구함에 있어 정주공간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 도시, 비수도권 도시, 농촌 등 세 개 유형으로 지역을 구분했다. 전국 162개 시·군을 우리나라 행정체계상의 시와 군을 기준으로 시와 농촌으로 구분하고,[26] 도시지역의 경우 수도권 입지 여부에 따라 세분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할 경우 엄밀하게는 아니지만 대체로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규모 10만 명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화할 경우 75개 시 중 10개 시가 농촌으로, 82개 군 중 6개 군이 도시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구규모가 아닌 행정체계상의 구분 기준을 적용했다. 농촌(군) 유형 중에서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는 칠곡군(11.9만 명), 양평군(11.6만 명), 홍성군(10.1만 명) 등 3개 군이 해당된다.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은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도시지역이라 할지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는 큰 차이가 있어 수도권 입지 여부를 또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수도권 도시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속한 시 등 30개 시가 해당되고, 비수도권 도시에는 수도권 외에 위치한 55개 시가 해당된다. 농촌지역의 경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3개 군이 수도권에 위치한다. 그러나 연구의 분석방법과 관련해서 상위 수준의 집단 수 30개 이상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27]

26)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8.12.31.기준).

27) 위계선형모형 사용 시 표본 크기와 관련하여 30/30 규칙이 권장된다. 상위 수준의 집단 수가 30개 이상, 각 집단에 속한 하위 수준의 표본 수가 30개 이상이 되어야 고정효과 계수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규칙이 지켜져야만 추정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아니지만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하는 이유가 선형회귀모형에서의 문제점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임을 고려한다면 상위 수준의 집단 수도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한다(이희연·노승철, 2012: 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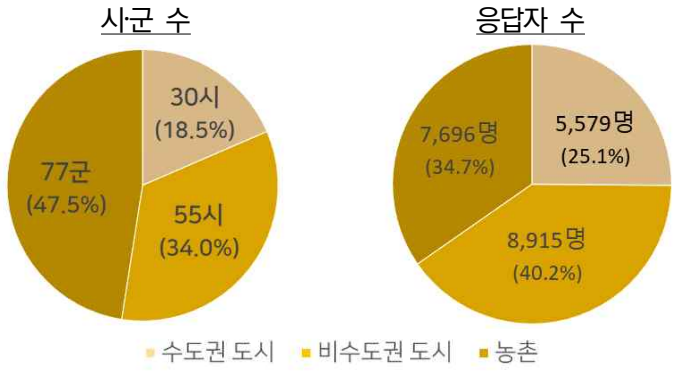
가 있어 별도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광역시에 속한 5개 군은 별도로 농촌지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기장군(부산) 16.5만 명, 달성군(대구) 25.1만 명, 울주군(울산) 22.2만 명, 강화군(인천) 6.9만 명, 옹진군(인천) 2.1만 명 등 광역시 소속 5개 군 중 3개 군은 인구 10만 명을 크게 넘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군을 분리하여 농촌(군)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28]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는 적지만 광역시 소속 군에 대해 통일된 분류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동일하게 처리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정주공간 유형을 구분한 결과는 <표 3-13>과 같다. 설문 응답자 5,579명(25%), 30개 시가 수도권 도시 유형에, 응답자 8,915명(40%), 55개 시가 비수도권 도시 유형에 해당되고, 응답자 7,696명(35%), 77개 군이 농촌 유형에 해당된다.

<표 3-13> 정주공간 유형별 시·군 및 응답자 수

| 구분 | 시·군 수 | 응답자 수(명) | 응답 비율(%) |
|---|---|---|---|
| 수도권 도시 | 30 | 5,579 | 25.1 |
| 비수도권 도시 | 55 | 8,915 | 40.2 |
| 농촌(군) | 77 | 7,696 | 34.7 |
| 계 | 162 | 22,190 | 100.0 |




28) 인구 10만 명 이상 20만 명 미만인 군은 기장, 칠곡, 양평, 홍성 등 4개 군, 인구 20만 명 이상인 군은 달성, 울주 등 2개 군이다. 달성군, 울주군, 기장군은 광역시에 속하면서 군 중에서 가장 인구규모가 큰 지역들로서, 이들은 군 중에서도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제3절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정주공간 유형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 및 영향요인의 차이를 도출하고자 한다.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은 설문조사 만족도를 통해 측정하는데, 정주유형 간 비교 시에는 분산분석을 통해 만족도 평균을 비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방법을 통해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정주공간 유형별로 상이한 지역 맥락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관적 삶의 질 영향요인의 차이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정주공간 유형별 모형분석을 통해 지역의 객관적 삶의 질 여건이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여기서는 주요 연구 내용에 따른 분석방법의 개요만 간단히 밝히고 상세한 내용은 개별 장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문조사의 전반적 만족(지역생활 만족, 행복) 및 9개 영역별로 응답자가 자기 보고한 만족도 결과를 통해 측정했다. 개인의 응답 결과를 정주공간 유형별로 집계하여 주관적 삶의 질 응답 현황을 제시했다. 개인에 따라 평가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 간 비교는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평가기준을 가진 개인들이 모인 집합적 단위에서 집계된 측정값의 비교는 보다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정주공간 유형 간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두 가지 분석을 수행했다. 첫째로 회귀모형의 종속변수인 응답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개인 속성이 설명하는 변동 부분을 최대한 제외(가용한 개인특성 통제)한 상태에서 시·군 더미변수의 계수 값을 추출하고, 여기에 개인효과에 따른 값(전체 응답자의 평균적인 속성을 가진 개인을 상정)을 더하여 구한 시·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를 산출하여 비교했다. 이 점수는 전체 응답자의 평균적 속성을 갖는 표준적인 가상의 개인이 각 시·군에서 느끼는 삶의 질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응답된 만족도에서 개

인특성 효과를 분리해 내어(전 지역에 동일한 조건으로 고정) 지역 효과에 보다 초점을 두고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로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여 정주공간 유형 간에 유사한 속성을 가진 개인을 매칭함으로써 보다 선택편의를 낮춘 정주공간 유형 간 효과를 비교했다. 개인이 어떠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무작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소들로 인해 선택편의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개인이 어떠한 정주공간 유형에 거주하는 처리의 효과를 분석·비교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개인특성 변수들을 사용하여 응답자의 성향점수를 구하고 이 점수를 이용해 성향점수매칭을 한 후 주관적 삶의 질(만족도)에 대한 정주공간 유형 간 효과를 '처리그룹에 대한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를 통해 비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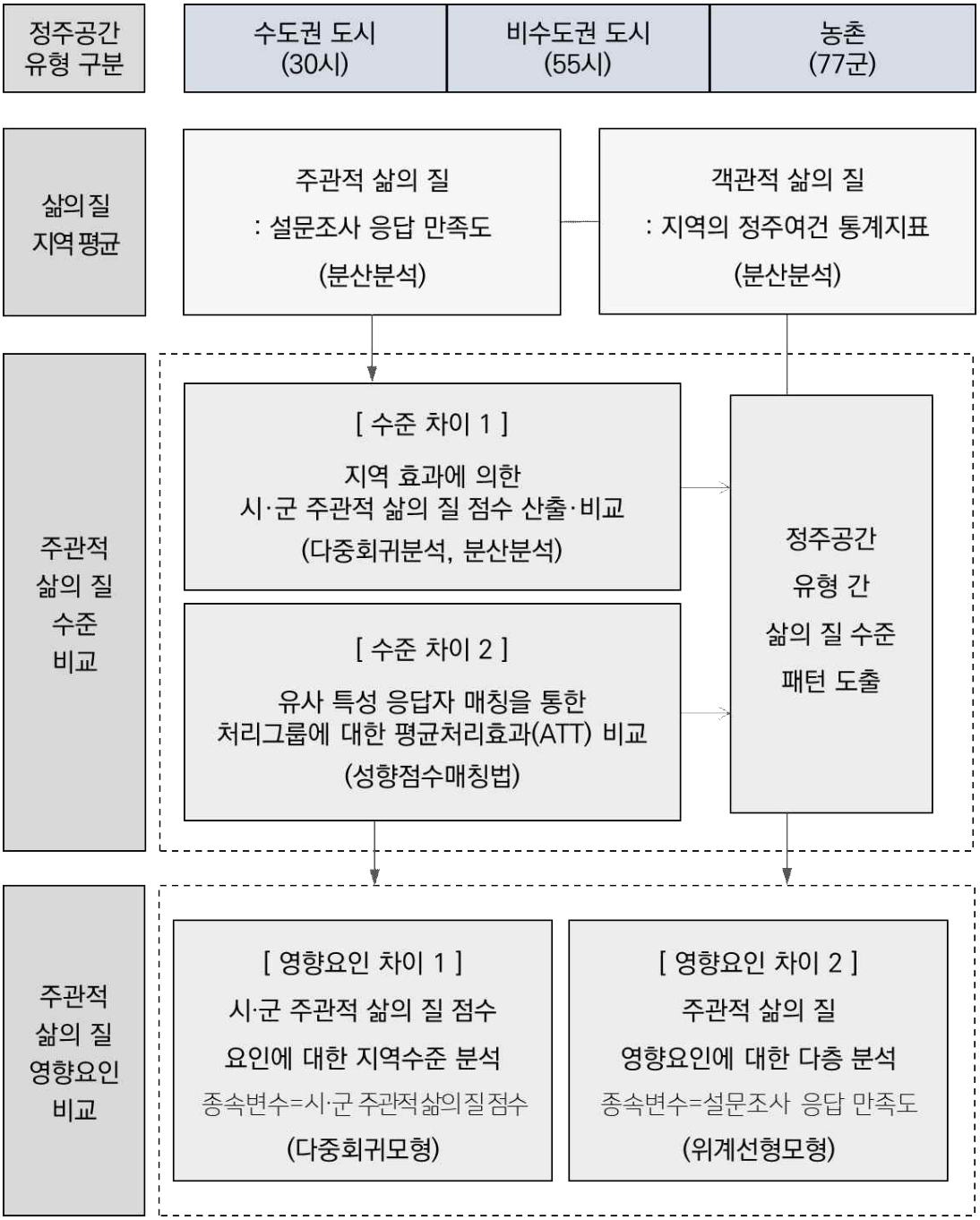
이 같은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성향점수매칭을 통한 처리효과와 시·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 결과를 종합 비교하여 정주공간 유형 간에 나타나는 삶의 질 수준의 패턴을 도출했다. 9개 영역 및 전반적인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 정주공간 유형 간 상대적 삶의 질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주공간 유형에 따라 상이한 지역 맥락 속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주관적 삶의 질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삶의 질, 즉 지역의 정주여건 요인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앞서 지역 효과에 의한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산출한 시·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 시·군의 객관적 삶의 질 지표, 즉 지역의 정주여건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형 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탐색했다. 둘째로 주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에 대한 다수준 분석을 실시했다.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설문조사에 응답된 만족도)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 수준의 요인과 지역 수준의 요인을 설명변수로 구성한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탐색했다.

연구의 주요 내용에 따른 분석 방법을 <그림 3-1>에 제시하였다.

<그림 3-1> 연구 내용에 따른 분석 방법



# 제4장 정주공간 유형별 삶의 질 수준

이 장에서는 정주공간 유형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을 분석·비교한다. 우선 지역의 객관적 정주 여건과 설문조사에서 응답된 만족도를 분석하여 삶의 질의 지역 평균을 비교했다. 그러나 그보다 신뢰성 있는 비교 결과를 도출하고자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먼저 설문조사 응답 만족도에서 개인 속성이 설명하는 개인특성 효과 부분을 분리하여 지역 효과에 초점을 맞춘 시·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를 산출하여 비교했다. 다음으로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여 처리그룹과 비교그룹이 되는 정주공간 유형 간에 유사한 속성을 가지는 응답자끼리 매칭하여 특정 정주공간 유형에 거주하는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두 가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주공간 유형 간에 나타나는 상대적인 삶의 질 수준의 패턴을 도출했다.

## 제1절 삶의 질의 지역 평균 비교

### 1) 객관적 삶의 질: 지역의 정주여건

주관적 삶의 질 경험의 조건이 되는 객관적 삶의 질로서 지역의 여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구성한 9개 영역별 지역여건 세부지표를 정주공간 유형 간 분산분석을 통해 비교했다(표 4-1, 표 4-2).

객관적으로 측정한 지역의 삶의 질 여건 측면에서 볼 때, 환경과 공동체를 제외한 영역의 대부분의 지표에서 수도권 도시 유형이 가장 좋은 삶의 질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초생활환경, 의료, 안전,

문화·여가, 복지 영역에서는 모든 세부지표에 대해 수도권 도시와 여건이 가장 좋지 않은 농촌 유형 간 분명한 대비를 보인다.

환경 영역에서는 공원 인프라나 생활권 공원으로의 접근 여건(서비스권역 내 인구비)는 수도권 도시 유형의 여건이 좋았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농촌 유형이 가장 낮았고, 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비수도권 도시 유형이 가장 낮았다. 도시지역 중 녹지 비율은 농촌 유형에서 가장 높았다.

공동체 영역의 경우 전국지방선거 투표율, 독거노인가구 비율, 인구십만명당 자살률 등 지표에서 농촌 유형이 대체로 가장 양호한 여건을 보였다. 반대로 수도권 도시 유형은 가장 좋지 않은 여건을 나타냈다. 1인가구 비율은 비수도권 도시 유형에서 가장 낮았다.

교육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수도권 도시 유형의 여건이 가장 좋았지만 인구 대비 사설학원 수는 비수도권 도시 유형에서 더 높았다. 교원당 학생수는 농촌 유형에서 가장 낮은데,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학생 수가 부족해 학교가 유지되기 어려운 문제가 심각하므로 교원당 학생 수가 적은 것이 반드시 삶의 질에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

<표 4-1> 지역의 객관적 정주여건: 기초생활환경, 일자리·소득, 환경, 공동체

| 구분 | | 평균 | | | | 유형 간 차이 |
|---|---|---|---|---|---|---|
| |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기초 생활 환경 | 노후주택 비율 | 27.93 | **10.77** | 22.43 | **38.54** | 농촌 〉 비수도권 도시 〉 수도권 도시 |
| | 빈집 비율 | 12.27 | **6.04** | 12.20 | **14.74** | 농촌 〉 비수도권 도시 〉 수도권 도시 |
| | 상수도보급률 | 88.52 | **97.84** | 93.86 | **81.08**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하수도보급률 | 80.03 | **94.34** | 88.51 | **68.39**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고속철도 접근성 | 36.79 | **19.01** | 30.23 | **48.41** | 농촌 〉 비수도권 도시 〉 수도권 도시 |
| | 고속도로IC 접근성 | 13.58 | **6.75** | 11.06 | **18.03** | 농촌 〉 비수도권 도시 〉 수도권 도시 |
| | 도로포장율 | 90.94 | **99.05** | 93.90 | **85.66**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일자리 소득 | 1인당 지방소득세 | 21.87 | **33.20** | 24.15 | **15.84**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고용률 | 63.76 | 59.63 | 60.87 | **67.43** | 농촌 〉 비수도권 도시 ≒ 수도권 도시 |
| | 백명당 사업체종사자 | 37.81 | **39.54** | 39.43 | **35.97**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상용근로자 비율 | 60.85 | **64.80** | 61.16 | **59.08**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사업체수 증가율 | 2.50 | **3.41** | 2.48 | **2.16**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지식기반산업 집적도 | 0.67 | **1.12** | 0.68 | **0.48**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환경 | 행정구역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61.74 | **149.09** | 73.03 | **19.64**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 0.50 | **0.63** | **0.38** | 0.54 | 수도권 도시 ≒ 농촌 〉 비수도권 도시 |
| | 행정구역 대비 공원면적비 | 1.76 | **5.75** | 1.75 | **0.20**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생활권공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5km) | 57.34 | **84.32** | 75.36 | **33.97**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녹지율 (도시지역 중 녹지) | 72.79 | 72.43 | **69.91** | **74.98** | 농촌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 공동체 | 전국지방선거투표율 | 66.59 | **57.41** | 63.23 | **72.56** | 농촌 〉 비수도권 도시 〉 수도권 도시 |
| | 1인가구 비율 (독거노인 제외) | 0.59 | 0.57 | **0.45** | **0.69** | 농촌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 | 독거노인가구 비율 | 0.44 | **0.81** | 0.58 | **0.20**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인구십만명당 자살률 | 0.47 | **0.72** | 0.51 | **0.34**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주: 1) 짙은 음영 표시는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경우, 옅은 음영 표시는 가장 낮은 경우임.
2) 정주공간 유형 간 차이에서 ≒는 유형 간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닌 경우임.

<표 4-2> 지역의 객관적 정주여건: 의료, 안전, 교육, 문화·여가, 복지

| 구분 | | 평균 | | | | 유형 간 차이 |
|---|---|---|---|---|---|---|
| |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의료 | 노인인구 비율 | 21.94 | **12.58** | 17.62 | **28.66** | 농촌 〉 비수도권 도시 〉 도시 |
| | 행정구역면적당 의료인력 수 | 2.92 | **11.44** | 2.12 | **0.16**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 13.84 | **7.51** | 12.07 | **17.58** | 농촌 〉 비수도권 도시 〉 수도권 도시 |
| | 종합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0km) | 47.41 | **85.63** | 73.92 | **13.58**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5km) | 28.01 | **42.50** | 35.08 | **17.31**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안전 | 행정구역면적당 119안전센터 수 | 0.017 | **0.047** | 0.017 | **0.004**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경찰서 접근성 | 5.21 | **3.00** | 5.18 | **6.08** | 농촌 〉 비수도권 도시 〉 도시 |
| | 인구십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 수 | 18.40 | **6.76** | 13.36 | **26.53** | 농촌 〉 비수도권 도시 〉 도시 |
| | 행정구역면적당 CCTV대수 | 0.41 | **1.62** | 0.24 | **0.05**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교육 | 행정구역면적당 학교 수 | 0.21 | **0.66** | 0.18 | **0.05**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교원1인당 학생수 | 0.45 | **0.73** | 0.62 | **0.21**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인구천명당 사설학원 수 | 0.45 | 0.60 | **0.66** | **0.25** | 비수도권 도시 ≒ 수도권 도시 〉 농촌 |
| | 초등학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5km) | 74.98 | **89.40** | 84.96 | **62.25**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어린이집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5km) | 79.42 | **95.93** | 91.36 | **64.45**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문화 여가 | 행정구역면적당 문화기반시설 수 | 0.05 | **0.15** | 0.04 | **0.01**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행정구역 대비 마을체육시설 면적비 | 0.13 | **0.46** | 0.12 | **0.01**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5km) | 63.89 | **84.51** | 76.44 | **46.89**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5km) | 37.08 | **54.40** | 36.38 | **30.84**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복지 | 행정구역면적당 사회복지시설 수 | 0.15 | **0.55** | 0.10 | **0.02**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행정구역면적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 0.97 | **2.17** | 0.94 | **0.52**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5km) | 37.86 | **69.49** | 51.64 | **15.69**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주: 1) 짙은 음영 표시는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경우, 옅은 음영 표시는 가장 낮은 경우임.
2) 정주공간 유형 간 차이에서 ≒는 유형 간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닌 경우임.

## 2) 주관적 삶의 질: 설문조사 응답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개인이 응답한 만족도 점수에 대한 분산분석을 통해 주관적 삶의 질의 평균 수준을 비교 파악하였다. 정주공간 유형별로 전반적 주관적 삶의 질로서 지역생활 만족과 행복, 그리고 9개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비교했다(표 4-3, 표 4-4). 만족도 평균은 시·군 인구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산출했다.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 농촌 유형에서 지역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행복에서는 수도권 도시 유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비수도권 도시와 비교할 때 유의한 차이였다. 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에는 행복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분산분석을 통해 검토한 주관적 삶의 질 수준(평균 점수)은 각 정주공간 유형에 거주하는 상이한 배경과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응답한 결과로서, 개인 차원의 영향과 지역 차원의 영향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점수라는 한계가 있다.

<표 4-3> 설문조사 만족도: 지역생활 만족, 행복

| 구분 | 평균 | | | | 유형 간 평균 차이 | |
|---|---|---|---|---|---|---|
|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 지역생활 만족 | 6.92 | 6.91 | 6.89 | 6.96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022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0.046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0.069 |
| 행복 | 6.46 | 6.54 | 6.38 | 6.48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160 ***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0.062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0.097 ** |

* p 〈 0.10, ** p 〈 0.05, *** p 〈 0.01
주: 짙은 음영 표시는 응답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경우, 옅은 음영 표시는 가장 낮은 경우임.

<표 4-4> 설문조사 만족도: 9개 영역

| 구분 | 평균 | | | | 유형 간 평균 차이 | |
|---|---|---|---|---|---|---|
|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 기초생활 환경 | 6.84 | 7.03 | 7.00 | 6.65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022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0.378 ***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0.356 *** |
| 일자리·소득 | 4.61 | 4.79 | 4.53 | 4.62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258 ***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0.170 ***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0.088 * |
| 환경 | 6.41 | 5.98 | 6.18 | 6.68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203 ***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0.705 ***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0.502 *** |
| 공동체 | 5.83 | 5.29 | 5.51 | 6.28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219 ***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0.985 ***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0.766 *** |
| 의료 | 6.73 | 7.38 | 7.32 | 6.17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054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1.203 ***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1.148 *** |
| 안전 | 6.41 | 6.37 | 6.30 | 6.49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078 *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0.119 ***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0.196 *** |
| 교육 | 5.85 | 6.10 | 6.00 | 5.63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097 **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0.467 ***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0.370 *** |
| 문화·여가 | 5.65 | 6.03 | 5.75 | 5.46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285 ***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0.567 ***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0.282 *** |
| 복지 | 6.10 | 5.93 | 5.97 | 6.25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035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0.319 ***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0.284 *** |

* $p < 0.10$, ** $p < 0.05$, *** $p < 0.01$

주: 짙은 음영 표시는 응답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경우, 옅은 음영 표시는 가장 낮은 경우임.

## 제2절 시·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를 통한 비교

이 절에서는 지역효과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만족도 응답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체 응답자의 평균적 속성을 갖는 표준적인 가상의 개인이 각 지역에서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의미하는 시·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를 산출하여 비교했다.

### 1) 분석 방법

설문조사에서 응답된 만족도는 개인 차원과 지역 차원의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각 주민이 경험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삶의 질 수준에 있어 지역 효과에 의한 차이를 살펴보고자 응답 점수에서 개인 효과를 분리해 내어 지역 효과로 인한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할 수 있록 시·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이하‘ 시·군 점수’)를 산출했다.

개인 차원의 요인들과 162개 시·군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다중회귀모형을 분석하여 각 시·군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를 통해 지역효과에 따른 삶의 질 값을 산출했다. 회귀식에 포함된 개인 차원의 요인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연간 가구소득), 가구원 수(동거인 수), 그리고 지역 거주기간, 사회적 관계 수준, 공동체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중앙정부·지역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기초지자체 청렴 인지 수준으로, 이들 특성은 지역 수준과 관계없이 응답자 개인에 귀속된 속성들이다.

분석모형의 잔차(residual)는 회귀식에서 이러한 개인 속성들이 설명하는 변량과 시·군 더미변수가 설명하는 변량을 제외한 변량, 즉 회귀식

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변량을 의미한다. 잔차에는 제한된 분석자료로 인해 분석모형에 포함하지 못한 영향요인들도 반영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용한 분석자료의 한계 내에서 최대한 가능한 수준으로 개인 차원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더미변수 계수를 추정함으로써 주관적 삶의 질에서 개인 속성이 설명하는 분(分)을 최대한 분리한 효과를 추출하고자 했다. 분석모형을 통해 설명 가능한 변량 중에서 가능한 개인 차원의 효과를 제하고 지역더미변수가 설명하는 변량이 지역에 의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서울특별시를 기준집단으로 분석한 시·군의 더미변수에 상수항을 각각 더해 각 시·군에 대해 지역효과 부분의 점수를 산출했다. 여기에 개인효과에 따른 점수 분을 합산하여 162개 시·군 점수를 산출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평균적인 속성을 가진 표준적 개인을 가상으로 상정하고, 그러한 표준적 개인이 해당 지역에서 인지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점수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개인효과에 따른 점수 산출에는 개인특성 변수의 평균과 회귀계수를 곱한 값을 적용했다. 개인특성 중 범주형 변수(성별, 학력, 직업, 가구소득)의 경우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남성, 고등학교 졸업 이하, 자영업 종사, 연 가구소득 3,500-5,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개인을 가정하여 산출했다.

성별의 경우 응답 비율에 거의 차이가 없어 이후 모형 분석의 기준집단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다. 학력의 경우 분석의 구분 범주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기준으로 했다. 직업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자영업 종사를 기준으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문조사는 군지역 등 소지역에서 충분한 수의 주민이 조사되도록 한 표본 설계로 인해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도시지역과의 비교를 고려할 때 이는 표준적 속성을 가진 개인으로 상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응답률 2순위 직업군을 기준으로 했다. 연 가구소득의 경우 2018년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구간인 3,500-5,000만원을 기준으로 했다.[29]

범주형 변수들 각각에 대해 어떤 범주를 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개인특성 조합이 만들어진다. 어떠한 조합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개인변수 부분에 대해 산출되는 점수 값이 달라지며, 따라서 시·군 점수도 달라진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 상수값이 더해지는 것이므로 어떠한 조합을 택하더라도 시·군 점수 간의 상대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 2) 분석 결과

정주공간 유형에 따라 시·군 점수를 살펴보면 지역생활 만족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행복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의 시·군이 도시(수도권 도시 및 비수도권 도시)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높았다(표 4-5).

전반적 만족(지역생활 만족, 행복)에 대한 시·군 점수 결과를 설문조사에서 응답된 만족도 평균 결과(앞의 <표 4-3>)와 비교해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관찰된다. 개인이 응답한 만족도 평균과 시·군 점수를 비교한 결과, 개인의 만족도 평균의 경우 수도권 도시에서 행복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생활 만족도는 농촌지역에서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런데 개인 속성의 영향을 제외하고 지역효과만을 반영해 산출한 시·군 점수를 기준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농촌지역에서 행복도가 가장 높다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지역생활 만족도는 수도권 도시에서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비수도권 도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가장 낮은 값을 보여 주민들의 행복 수준이 정주공간 유형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은 정주공간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29) 2018년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3,683,150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44,197,800원이다 (통계 출처: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3인 가구 기준은 설문 응답자의 평균 가구원 수 2.8명을 고려하여 적용했다.

<표 4-5> 시·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 지역생활 만족, 행복

| 구분 | 평균 | | | | 유형 간 평균 차이 | |
|---|---|---|---|---|---|---|
|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 지역생활 만족 | 6.70 | 6.76 | 6.69 | 6.69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069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0.067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0.002 |
| 행복 | 4.50 | 4.41 | 4.42 | 4.59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005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0.177 ***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0.172 *** |

* p 〈 0.10, ** p 〈 0.05, *** p 〈 0.01
주: 짙은 음영 표시는 응답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경우, 옅은 음영 표시는 가장 낮은 경우임.

영역별 시·군 점수를 살펴보면(표 4-6), 기초생활환경과 일자리·소득, 의료, 교육,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수도권 도시의 시·군 점수가 다른 정주공간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안전 영역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농촌은 환경과 공동체, 복지 영역에서 가장 높은 시·군 점수를 보였다. 수도권 도시 유형, 비수도권 도시 유형과 비교한 경우 모두 유의한 차이로 더 높았다. 비수도권 도시는 어떤 영역에서도 가장 높은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보이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문화·여가, 안전 등 일부 영역에서는 농촌지역보다 점수가 낮았다.

각 삶의 영역에 대해 설문조사 만족도 응답 평균과 시·군 점수를 비교한 결과 일부 유형 간 상대적 순위에 변화가 있었다. 안전 영역에서 응답된 만족도 기준으로는 농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유형 간 유의한 차이) 시·군 점수에서는 수도권 도시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정주공간 유형 간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문화·여가 영역의 경우 개인 만족도에서는 농촌지역의 만족 수준이 가장 낮았으나, 시·군 점수를 통해 비교한 결과는 비도시지역의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영역에서는 개인 만족도에서 수도권 도시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나 시·군 점수에서는 비수도권 도시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표 4-6> 시·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 9개 영역

| 구분 | 평균 | | | | 유형 간 평균 차이 | |
|---|---|---|---|---|---|---|
|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 기초 생활환경 | 6.82 | **7.02** | 6.87 | **6.70**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149 *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0.321 ***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0.172 *** |
| 일자리·소득 | 4.15 | **4.33** | **4.01** | 4.18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322 ***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0.154 *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0.168 ** |
| 환경 | 6.32 | **5.95** | 6.19 | **6.56**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236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0.607 ***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0.371 *** |
| 공동체 | 5.56 | **5.36** | 5.45 | **5.72**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087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0.360 ***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0.273 *** |
| 의료 | 6.30 | **6.85** | 6.64 | **5.85**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214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1.005 ***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0.791 *** |
| 안전 | 6.99 | **7.04** | **6.96** | 7.00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081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0.042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0.039 |
| 교육 | 6.61 | **6.77** | 6.61 | **6.55**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161 **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0.223 **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0.062 |
| 문화·여가 | 5.89 | **6.21** | **5.79** | 5.85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422 ***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0.363 ***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0.059 |
| 복지 | 6.43 | 6.41 | **6.36** | **6.48** |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 0.047 |
| | | | | | 수도권 도시-농촌 | -0.075 |
| | | | | | 비수도권 도시-농촌 | -0.122 ** |

* p 〈 0.10, ** p 〈 0.05, *** p 〈 0.01

주: 짙은 음영 표시는 응답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경우, 옅은 음영 표시는 가장 낮은 경우임.

## 제3절 성향점수매칭법을 통한 비교

### 1) 분석 방법

매칭기법은 비실험 상황에서 어떠한 처리나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신희주, 2017: 117), 성향점수매칭은 유사한 공변량을 가짐을 판단할 수 있는 성향점수를 산출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대상끼리 처리그룹과 비교그룹을 구성하여 비교한다.[30]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용하는 관측자료는 비실험 자료로서 실험 자료에서 가능한 처리(treatment)의 순수한 인과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 실험적 상황에서는 실험(처리)의 효과 추정을 위해 무작위로 분류된 처리그룹과 통제그룹(비교그룹)을 나누어 실험한 후 처리의 무작위성에 근거하여 평균적 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s: ATE)를 계산한다. 그러나 실험이 아닌 현실 상황에서 얻은 관측자료의 경우에는 각 개인에 대한 처리 여부의 결정이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처리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소들로 인해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측자료에서는 처리그룹(treatment group)과 비교그룹(control group) 간 배후요인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룹 간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는 처리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성향점수매칭법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반사실적(counterfactual) 조건과 유사하게 분석 자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처리를 받지

30) 매칭기법은 크게 성향점수매칭법과 공변량 매칭(covariate matching)으로 구분한다. 공변량매칭은 관찰된 설명변수들을 조건으로 처리그룹과 유사한 비교그룹을 선택·비교하는데, 조건 설명변수가 너무 많아 고차원이 되면 매칭 대상을 찾기 어려운 차원의 문제(dimension problem)가 발생한다. 성향점수매칭은 관찰된 변수들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확률인 성향점수를 활용함으로써 차원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박미성·안병일, 2016: 87).

않은 사람들 중 처리를 받은 사람들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를 이용하여 관측자료에서 처리에 미치는 선행조건들의 효과를 줄이고 인위적으로 무작위통제실험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신희주, 2017: 118).[31] 이는 관찰된 공변수들에 대해 비교하려는 그룹 간 동일한 분포를 갖도록 매칭하여 보다 정확한 처리효과 추정값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측정되지 못한 교란요인(confounders)에 의한 편의 부분은 누락될 수 있다.

각 개인이 정주공간으로서 어떠한 지역을 선택·거주하는 것은 무작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소들로 인해 선택편의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하여 개인이 어떠한 정주공간 유형을 선택·거주하는 처리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매칭을 위해 산출하는 성향점수는 관찰 가능한 일련의 공변수들, 즉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 X가 주어질 때 X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참여 확률이다. 개인이 특정한 처리를 받게 될 조건부 확률이며, 이 연구에서는 개인이 특정 정주공간에 거주할 기대확률을 의미한다. 로짓모형 또는 프로빗모형 등 최대우도 추정법에 따라 각 개인의 성향점수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주공간 유형 간 성향점수가 유사한 개인들 간 매칭을 통해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특정 정주공간 거주(처리)가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처리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다음의 <표 4-7>과 같이 정주공간 유형들 간 비교 가능한 세 가지 조합인 Treatment 1~3에 대해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각 비교 조합별 로짓모형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응답자가 처리 정주공간 유형에 거주할 확률값을 예측하고 이를 각 개인의 성향점수로 사용한다.

31) 처리 여부가 무작위로 결정되지 않는 관측자료에서 무작위 통제된 실험과 비슷하게 모형을 설정하여 인과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준실험(quasi-experiment) 또는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이라 한다.

<표 4-7> 정주공간 유형의 효과 분석을 위한 처리그룹과 비교그룹

| 구분 | 처리그룹 | 비교그룹 |
|---|---|---|
| Treatment 1<br>(비교 조합 1) | 비수도권 도시 거주 | 수도권 도시 거주 |
| Treatment 2<br>(비교 조합 2) | 농촌 거주 | 수도권 도시 거주 |
| Treatment 3<br>(비교 조합 3) | 농촌 거주 | 비수도권 도시 거주 |

응답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찰 가능한 외생변수로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 가능한 개인특성 변수들을 사용했다. <표 4-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 연령, 학력, 직업군, 소득(연 가구소득), 가구원 수, 지역 거주기간 등 변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성향점수를 추정했다.

<표 4-8> 성향점수 추정을 위한 변수 및 기술통계

| 변수 | 변수 설명 | Mean | Std. Dev. |
|---|---|---|---|
| 성별 |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 | 0.505 | 0.500 |
| 연령 | 만 나이 | 55.145 | 17.757 |
| 학력더미 1 | 중학교 졸업 이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 0.319 | 0.466 |
| 학력더미 2 | 대학 이상(재학 포함)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0.406 | 0.491 |
| 직업더미 1 | 농림어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0.192 | 0.394 |
| 직업더미 2 | 자영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0.154 | 0.361 |
| 직업더미 3 | 사무·관리직 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0.018 | 0.131 |
| 직업더미 4 | 생산·기능·노무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0.110 | 0.313 |
| 연 가구소득 | 1. 1,500만원 미만 2. 1,500~3,500만원<br>3. 3,500~5,000만원 4. 5,000~8,000만원<br>5. 8,000만원 이상 | 2.345 | 1.362 |
| 가구원 수 | 가구원 수(본인 포함) | 2.793 | 2.063 |
| 지역 거주기간 | 현재 시·군 거주기간 | 30.578 | 22.727 |

처리그룹에 해당되는 정주공간 유형에 속할 조건부 확률인 성향점수를 추정하기 위해 응답자의 정주공간 유형을 나타내는 이진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짓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32]

<표 4-9> 성향점수 추정을 위한 로짓모형 추정 결과

| 구분 | 비수도권 도시[처리] vs 수도권 도시[비교] | 농촌[처리] vs 수도권 도시[비교] | 농촌[처리] vs 비수도권 도시[비교] |
|---|---|---|---|
| 성별 | 0.093* | 0.173** | 0.096* |
| 연령 | -0.010*** | 0.002 | 0.013*** |
| 학력더미 (중졸 이하) | 0.083 | 0.178* | 0.077 |
| 학력더미 (대학 이상) | 0.109* | -0.088 | -0.237*** |
| 직업더미 (농림어업) | 0.607*** | 1.981*** | 1.143*** |
| 직업더미 (자영업) | -0.031 | 0.092 | 0.081 |
| 직업더미 (사무·관리) | 0.085 | -0.252 | -0.201 |
| 직업더미 (생산·기능) | -0.030 | -0.132 | -0.055 |
| 연 가구소득 | -0.091*** | -0.279*** | -0.171*** |
| 가구원 수 | -0.015 | 0.001 | 0.021 |
| 지역 거주기간 | 0.031*** | 0.034*** | 0.006*** |
| 상수 | 0.439*** | -0.489** | -1.071*** |
| N | 11,286 | 10,353 | 12,987 |
| Pseudo R2 | 0.059 | 0.272 | 0.125 |

* p 〈 0.05, ** p 〈 0.01,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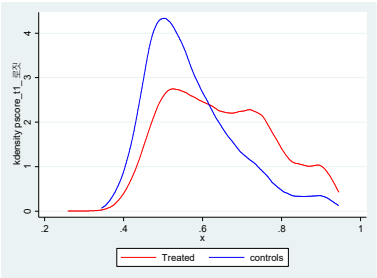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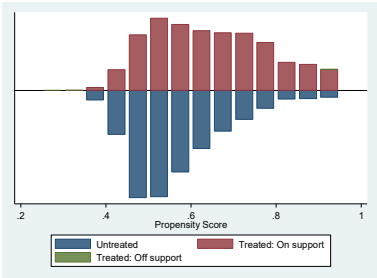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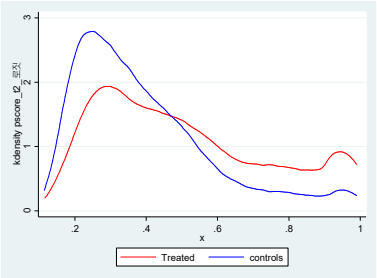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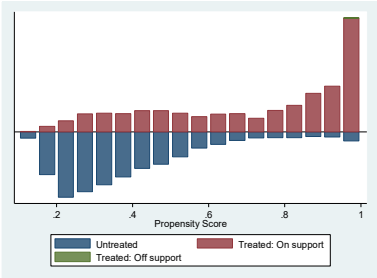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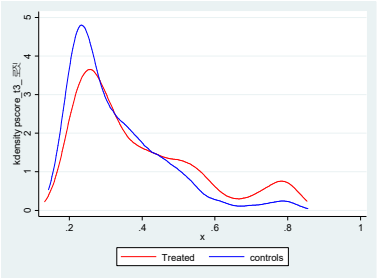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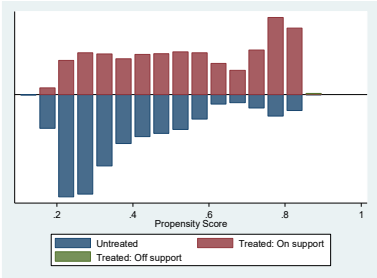
추정된 성향점수를 기준으로 처리그룹과 비교그룹 간 공통영역(common support)을 확인한다. 이는 성향점수 분포에 있어 두 그룹 간 중첩되는 영역이 충분히 존재하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그림 4-1>의 그래프는 처리그룹과 비교그룹에 속한 응답자들의 성

32) 성향점수 추정에서의 관심은 모형의 모수 추정이 아니라 공변량이 균형을 갖는가이다. 성향점수는 공변량 균형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만 이용되기 때문에 모형의 정확성은 공변량이 균형을 갖는 한 덜 중요하다(Stuart, 2010; 박미성·안병일, 2016: 98).

향점수 분포에서 산출된 공통영역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처리그룹에 속한 응답자의 성향점수와 유사한 성향점수를 가진 응답자가 비교그룹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성향점수는 공통영역 밖에 존재하게 되므로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처리효과 추정치를 산출하는 표본에서 제외된다.

<그림 4-1> 성향점수 분포와 공통영역 산출

| 구분 | 성향점수 분포 | 공통영역 산출 |
|---|---|---|
| Treatment 1<br>[처리] **비수도권 도시**<br>vs<br>[비교] **수도권 도시** |  |  |
| Treatment 2<br>[처리] **농촌**<br>vs<br>[비교] **수도권 도시** |  |  |
| Treatment 3<br>[처리] **농촌**<br>vs<br>[비교] **비수도권 도시** |  |  |

공통영역 범례: Untreated, Ttreated (On support), Treated (Off support)

처리그룹과 비교그룹의 설명변수들이 유사하게 매칭되었는지 균형(balancing)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매칭 전후의 비교그룹 간 표준화된 차이(standardized differences)와 분산비(variance ratios)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면상 문제로 결과를 모두 제시하지 않고, 양 그룹 간 응답자들의 특성 차이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되는 농촌[처리]-수도권 도시[비교] 비교조합에 대한 결과의 일부를 예시했다(행복, 1:1 최근접이웃매칭)(표 4-10).

공변량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경우 표준화된 차이가 0, 분산비가 1의 값을 갖는다. 균형을 판단하는 경험규칙(rule of thumb)으로 표준화된 차이가 0.25보다 크면 균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본다. 분산비는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수준으로 판단한다.

<표 4-10> 설명변수의 매칭 전후 균형: 농촌-수도권 도시, 행복, 이웃매칭(1:1)

| 구분 | 농촌[처리] - 수도권 도시[비교] | | | |
|---|---|---|---|---|
| | Standardized differences | | Variance ratio | |
| | 매칭 전 | 매칭 후 | 매칭 전 | 매칭 후 |
| 성별 | 0.021 | -0.002 | 0.997 | 1.000 |
| 연령 | 0.821 | -0.089 | 0.854 | 0.955 |
| 학력더미 1 (중졸 이하) | 0.802 | 0.030 | 1.958 | 1.001 |
| 학력더미 2 (대학 이상) | -0.717 | 0.025 | 0.722 | 1.033 |
| 직업더미 1 (농림어업) | 1.012 | 0.088 | 6.542 | 1.038 |
| 직업더미 2 (자영업) | -0.240 | -0.026 | 0.627 | 0.939 |
| 직업더미 3 (사무·관리직) | -0.086 | 0.007 | 0.504 | 1.066 |
| 직업더미 4 (생산·기능직) | -0.181 | -0.003 | 0.632 | 0.991 |
| 연 가구소득 | -0.804 | 0.057 | 0.766 | 1.092 |
| 가구원 수 | -0.364 | 0.018 | 1.029 | 1.147 |
| 지역 거주기간 | 1.094 | -0.079 | 2.174 | 0.961 |

## 2) 분석 결과

성향점수를 매칭한 후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정주공간 유형의 처리그룹에 대한 평균처리효과를 분석했다. 성향점수를 이용한 효과 분석 결과 도출한 처리그룹에 대한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이하 'ATT')를 확인했다. ATT는 처리를 받은 그룹의 효과와 처리를 받은 그룹이 가상적으로 처리를 받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뺀 효과를 의미한다. 관찰된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이하 'ATE')는 정책 등 처리에 의한 순수 효과인 ATT와 선택편의로 구성된다. 실제 처리의 인과 효과인 ATT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택편의가 0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 ATE는 ATT와 동일하게 된다(최영준, 2017: 53).

매칭기법으로는 최근접이웃매칭(nearest-neighbor matching), 반경매칭(radius matching)을 사용했다. 최근접이웃매칭은 추정된 처리확률인 성향점수를 사용하여 가장 근접한 개체를 결정한다. 처리그룹과 비교그룹에 포함된 모든 개체의 성향점수 차이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순서대로 매칭한다. 반경매칭은 성향점수 차이가 처리그룹의 성향점수로부터 설정한 캘리퍼(caliper) 이내인 비교그룹을 매칭하는 방법이다. 캘리퍼는 두 관측치 간 잠재적으로 매칭 가능한 최대 거리이며, 개체 간 거리는 추정된 성향점수를 통해 측정된다. 성향점수 차이의 절댓값이 설정한 값 이내인 경우 관측치 한 쌍을 매칭한다.

이 연구에서는 관측치당 매칭되는 개체 수가 1:1 및 1:3인 경우의 이웃매칭 방법, 캘리퍼 설정 거리가 0.1 및 0.05인 경우의 반경매칭 방법, 그리고 캘리퍼 설정 거리 0.15 이내에서 1:3 비율로 이웃매칭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다양한 매칭기법을 활용하여 산출한 처리효과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 제시할 분석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추정된 값의 크기와 방향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은 Stata의 명령어 [teffects psmatch]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전반적인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처리효과(ATT)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1>과 같다. 행복의 경우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과 수도권 도시 거주 주민 간에 비교한 처리효과(ATT)가 매칭기법 전반적으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농촌 주민의 행복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주민과 비수도권 도시 주민을 비교한 경우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에 행복 수준이 더 높았지만 매칭기법 전반적으로 볼 때 이는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

지역생활 만족의 경우 수도권 도시 주민이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만족도가 높고, 농촌 주민이 도시(수도권 도시 및 비수도권 도시) 응답자보다 만족도가 높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4-11> 정주공간 유형의 삶의 질 효과(ATT): 지역생활만족, 행복

| 구분 | 매칭 기법 | 비수도권 도시[처리] vs 수도권 도시[비교] | 농촌[처리] vs 수도권 도시[비교] | 농촌[처리] vs 비수도권 도시[비교] |
|---|---|---|---|---|
| 지역생활만족 | 매칭 전 | -0.022 | 0.046 | 0.069 |
| | 최근접이웃매칭(1:1) | -0.020 | 0.044 | 0.098 |
| | 최근접이웃매칭(1:3) | -0.011 | 0.099 | 0.138* |
| | 반경매칭(caliper=0.1) | -0.020 | 0.044 | 0.098 |
| |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 -0.020 | 0.044 | 0.098 |
| | 반경매칭(caliper=0.05) | - | 0.044 | 0.098 |
| 행복 | 매칭 전 | -0.160** | -0.062 | 0.097* |
| | 최근접이웃매칭(1:1) | 0.0005 | 0.272* | 0.301*** |
| | 최근접이웃매칭(1:3) | -0.012 | 0.328** | 0.308*** |
| | 반경매칭(caliper=0.1) | 0.0005 | 0.272* | 0.301*** |
| |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 0.0005 | 0.272* | 0.301*** |
| | 반경매칭(caliper=0.05) | - | 0.272* | 0.301*** |

† p 〈0.10,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셀(-)은 매칭 가능한 성향점수를 갖는 비교그룹 관측치가 모든 처리그룹 관측치에 대해 존재하지 않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임.

9개 영역별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정주공간 유형 거주의 처리효과(ATT)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2>, <표 4-13>, <표 4-14>에 제시하였다.

<표 4-12> 정주공간 유형의 삶의 질 효과(ATT): 기초생활환경, 일자리·소득, 환경

| 구분 | 매칭 기법 | 비수도권 도시[처리] vs 수도권 도시[비교] | 농촌[처리] vs 수도권 도시[비교] | 농촌[처리] vs 비수도권 도시[비교] |
|---|---|---|---|---|
| 기초 생활 환경 | 매칭 전 | -0.022 | -0.378*** | -0.356*** |
| | 최근접이웃매칭(1:1) | -0.035 | -0.040 | -0.125* |
| | 최근접이웃매칭(1:3) | 0.001 | -0.036 | -0.109* |
| | 반경매칭(caliper=0.1) | -0.035 | -0.040 | -0.125* |
| |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 -0.035 | -0.040 | -0.125* |
| | 반경매칭(caliper=0.05) | - | -0.040 | -0.125* |
| 일자리 · 소득 | 매칭 전 | -0.258*** | -0.170** | 0.088 |
| | 최근접이웃매칭(1:1) | -0.141* | 0.274* | 0.263** |
| | 최근접이웃매칭(1:3) | -0.167** | 0.305** | 0.290*** |
| | 반경매칭(caliper=0.1) | -0.141* | 0.274* | 0.263** |
| |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 -0.141† | 0.274* | 0.263** |
| | 반경매칭(caliper=0.05) | -0.141† | 0.274* | 0.263** |
| 환경 | 매칭 전 | 0.203*** | 0.705*** | 0.502*** |
| | 최근접이웃매칭(1:1) | 0.288*** | 0.764*** | 0.432*** |
| | 최근접이웃매칭(1:3) | 0.279*** | 0.674*** | 0.483*** |
| | 반경매칭(caliper=0.1) | 0.288*** | 0.764*** | 0.432*** |
| |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 0.288*** | 0.764*** | 0.432*** |
| | 반경매칭(caliper=0.05) | - | 0.764*** | 0.432*** |

† p 〈0.10,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셀(-)은 매칭 가능한 성향점수를 갖는 비교그룹 관측치가 모든 처리그룹 관측치에 대해 존재하지 않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임.

<표 4-13> 정주공간 유형의 삶의 질 효과(ATT): 공동체, 의료, 안전

| 구분 | 매칭 기법 | 비수도권 도시[처리] vs 수도권 도시[비교] | 농촌[처리] vs 수도권 도시[비교] | 농촌[처리] vs 비수도권 도시[비교] |
|---|---|---|---|---|
| 공동체 | 매칭 전 | 0.219*** | 0.985*** | 0.766*** |
| | 최근접이웃매칭(1:1) | 0.109 | 0.554*** | 0.421*** |
| | 최근접이웃매칭(1:3) | 0.177* | 0.575*** | 0.402*** |
| | 반경매칭(caliper=0.1) | 0.109 | 0.554*** | 0.421*** |
| |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 0.109 | 0.554*** | 0.421*** |
| | 반경매칭(caliper=0.05) | - | 0.554*** | 0.421*** |
| 의료 | 매칭 전 | -0.054 | -1.203*** | -1.148*** |
| | 최근접이웃매칭(1:1) | -0.038 | -0.760*** | -0.677*** |
| | 최근접이웃매칭(1:3) | -0.062 | -0.563*** | -0.699*** |
| | 반경매칭(caliper=0.1) | -0.038 | -0.760*** | -0.677*** |
| |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 -0.038 | -0.760*** | -0.677*** |
| | 반경매칭(caliper=0.05) | - | -0.760*** | -0.677*** |
| 안전 | 매칭 전 | -0.078 | 0.119** | 0.196*** |
| | 최근접이웃매칭(1:1) | -0.064 | 0.083 | 0.220*** |
| | 최근접이웃매칭(1:3) | -0.055 | 0.078 | 0.166** |
| | 반경매칭(caliper=0.1) | -0.064 | 0.083 | 0.220*** |
| |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 -0.064 | 0.083 | 0.220*** |
| | 반경매칭(caliper=0.05) | - | 0.083 | 0.220*** |

† p 〈0.10,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셀(-)은 매칭 가능한 성향점수를 갖는 비교그룹 관측치가 모든 처리그룹 관측치에 대해 존재하지 않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임.

<표 4-14> 정주공간 유형의 삶의 질 효과(ATT): 교육, 문화·여가,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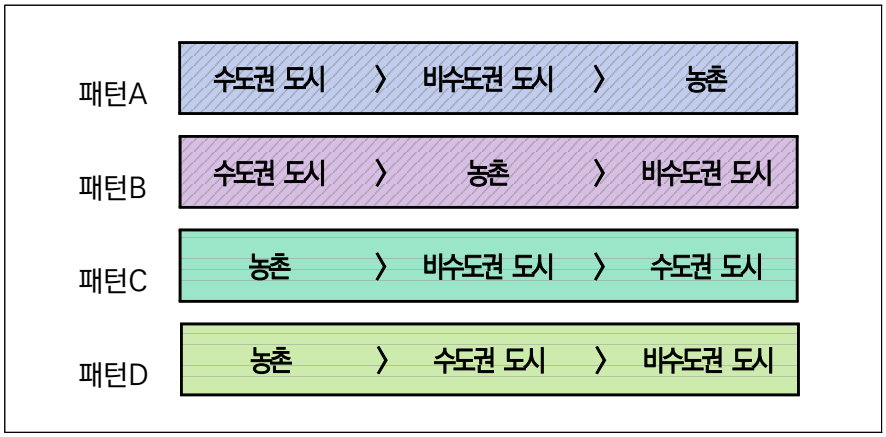
| 구분 | 매칭 기법 | 비수도권 도시[처리] vs 수도권 도시[비교] | 농촌[처리] vs 수도권 도시[비교] | 농촌[처리] vs 비수도권 도시[비교] |
|---|---|---|---|---|
| 교육 | 매칭 전 | -0.097* | -0.467*** | -0.370*** |
| | 최근접이웃매칭(1:1) | -0.099 | -0.129 | 0.064 |
| | 최근접이웃매칭(1:3) | -0.087 | -0.114 | 0.067 |
| | 반경매칭(caliper=0.1) | -0.099 | -0.129 | 0.064 |
| |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 -0.099 | -0.129 | 0.064 |
| | 반경매칭(caliper=0.05) | -0.099 | -0.129 | 0.064 |
| 문화·여가 | 매칭 전 | -0.285*** | -0.567*** | -0.282*** |
| | 최근접이웃매칭(1:1) | -0.263*** | -0.171 | 0.164* |
| | 최근접이웃매칭(1:3) | -0.323*** | -0.017 | 0.088 |
| | 반경매칭(caliper=0.1) | - | -0.171 | 0.164* |
| |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 -0.263** | -0.171 | 0.164† |
| | 반경매칭(caliper=0.05) | - | -0.171 | 0.164* |
| 복지 | 매칭 전 | 0.035 | 0.319*** | 0.284*** |
| | 최근접이웃매칭(1:1) | 0.067 | 0.257† | 0.178* |
| | 최근접이웃매칭(1:3) | 0.016 | 0.244† | 0.162* |
| | 반경매칭(caliper=0.1) | 0.067 | 0.257† | 0.178* |
| |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 0.067 | 0.257† | 0.178* |
| | 반경매칭(caliper=0.05) | 0.067 | 0.257† | 0.178* |

† p 〈0.10,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셀(-)은 매칭 가능한 성향점수를 갖는 비교그룹 관측치가 모든 처리그룹 관측치에 대해 존재하지 않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임.

## 제4절 정주공간 유형 간 주관적 삶의 질 비교 패턴

시·군 점수와 성향점수매칭을 통한 평균처리효과 결과(ATT)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주공간 유형 간 차이의 몇 가지 패턴이 나타난다. 각 정주공간 유형이 나타내는 삶의 질 수준의 상대적 위치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패턴으로 분류된다(편의상 패턴A~D로 칭한다). 세 정주공간 유형 간 쌍대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 경우 유사 패턴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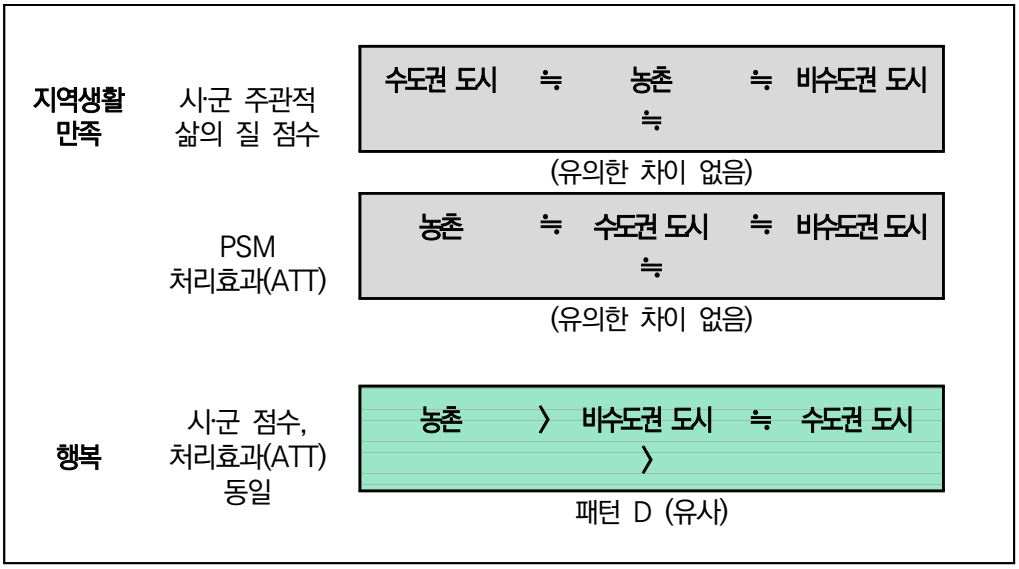



전반적 주관적 삶의 질 및 9개 영역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 패턴을 분류한 결과는 각각 <그림 4-2>, <그림 4-3>과 같다.

지역생활 만족과 관련하여 시·군 점수 기준으로는 수도권 도시>농촌>비수도권 도시 순으로 나타났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 ATT 기준으로는 농촌>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순으로 나타났지만 이 방법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행복의 경우 시·군 점수와 ATT를 기준으로 비교한 경우 모두 농촌이 비수도권 도시와 수도권 도시보다 더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비수도권 도시가 수도권 도시보다 산출된 값이 더 높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4-2> 정주공간 유형 간 비교 패턴: 전반적 주관적 삶의 질




주: ≒ 표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닌 경우

기초생활환경 영역에서 시·군 점수와 ATT가 기준인 경우 모두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농촌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군 점수에서는 정주공간 유형 간 차이가 모두 유의했고, ATT 기준에서는 비수도권 도시>농촌의 차이만 유의했다.

일자리·소득 영역에서는 기준에 따라 만족도 순위 간 차이가 있었다. 시·군 점수는 수도권 도시>농촌>비수도권 도시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ATT의 경우에는 농촌>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순으로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수도권 도시보다 더 높은 것으로 역전되었다. 두 경우 모두 비수도권 도시는 일자리·소득 관련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환경 영역의 만족도는 농촌-비수도권 도시-수도권 도시의 순서는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ATT는 정주공간 유형 간 차이가 모두 유의했고 시·군 점수의 경우는 비수도권 도시와 수도권 도시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공동체 영역에서는 농촌이 도시(수도권 도시 및 비수도권 도시)보다 더 높은 만족 수준을 나타냈다. 시·군 점수와 ATT 기준 모두에서 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비수도권 도시와 수도권

도시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의료 영역에서는 농촌이 도시(수도권 도시 및 비수도권 도시)보다 더 낮은 만족 수준을 나타냈다. 시·군 점수와 ATT 기준에서 모두 도시와 농촌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비수도권 도시와 수도권 도시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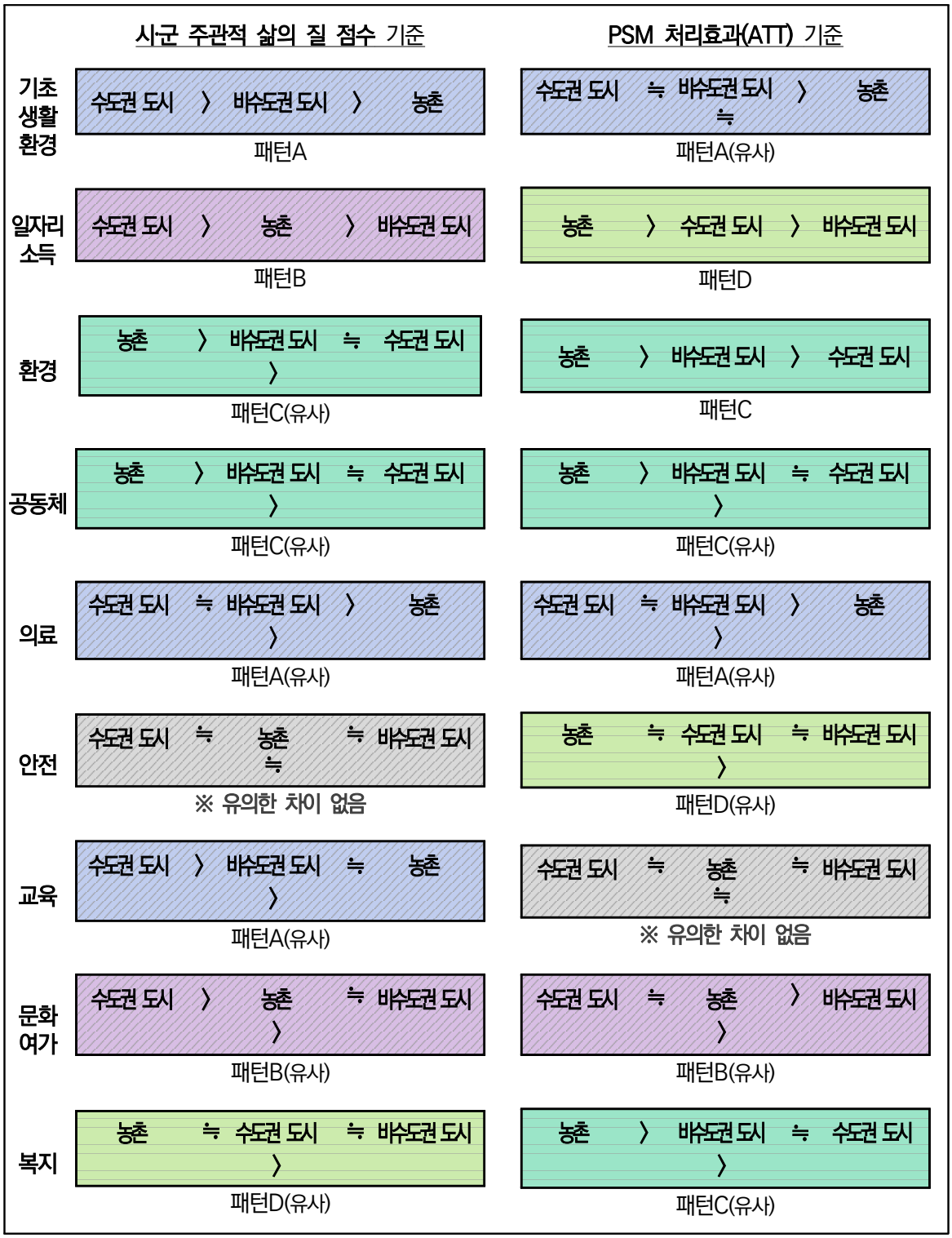
안전 영역에서는 시·군 점수와 ATT 결과 간 차이가 있었다. 시·군 점수는 수도권 도시-농촌-비수도권 도시 순으로 높았지만 세 정주공간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ATT 기준에서는 농촌-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 중 농촌>비수도권 도시 차이가 유의했다.

교육 영역에서도 시·군 점수와 ATT 결과 간 차이를 보였다. 시·군 점수의 경우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농촌 순으로 높았는데, 이 중 비수도권 도시-농촌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ATT의 경우 수도권 도시-농촌-비수도권 도시 순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비교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농촌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정주공간 유형 간 유의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시·군 점수에서는 농촌-비수도권 도시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ATT에서는 수도권 도시-농촌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두 경우 모두 수도권 도시의 만족도가 비수도권 도시보다 높은 차이는 유의했다.

복지 영역에서도 시·군 점수와 ATT 결과 간 차이가 있었다. 시·군 점수에서는 농촌>비수도권 도시 간 차이만 유의했지만 ATT에서는 농촌이 수도권 도시, 그리고 비수도권 도시보다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수도권 도시와 비수도권 도시 간 차이는 두 방법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4-3> 정주공간 유형 간 비교 패턴: 9개 영역별 주관적 삶의 질




주: ≒ 표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닌 경우임.

# 제5장 정주공간 유형별 삶의 질 요인

이 장에서는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삶의 질 요인을 식별한다. 주관적 삶의 질과 객관적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객관적 삶의 질 중 특히 정주환경과 관련하여 지역의 객관적 삶의 질 여건에 초점을 두며, 주민 개인 수준의 조건으로서 개인 특성은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개인이 속한 지역 차원의 정주 여건이 주관적 삶의 질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유형별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각 공간유형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의 상이성을 확인했다.

## 제1절 삶의 질 요인 분석 방법

### 1) 지역수준 분석

영향요인 도출을 위한 첫 번째 분석으로 162개 시·군을 대상으로 4장에서 도출한 시·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시·군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했다. 시·군 점수는 전체 응답자의 평균적 속성을 갖는 가상적 개인이 각 지역에서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낸다.

시·군 점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객관적 여건 변수로는 앞서 3장에서 구성한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 중 종속변수가 되는 시·군 점수의 각 영역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포함되도록 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환경 영역의 경우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잠재적 영향요인으로 앞서 지역의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로 제시한 노후주택비율, 빈집비율,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고속철도 접근성, 고속도로IC 접근성, 도로

포장률 변수를 구성했다(앞의 <표 3-2> 참조). 이러한 변수들은 해당 삶의 질 영역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정한 것이다(3장 1절 '변수 및 분석 자료' 참조).

분석 방법으로 통상최소제곱법(OLS) 통해 회귀모형을 추정했다. 분석 자료로 사용하는 만족도 점수는 범주형 자료이지만 범주의 수가 11개(0~10점)로, 이 정도의 범주 범위는 순서형 프로빗뿐만 아니라 통상최소제곱(OLS) 추정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큰 것(Migheli, 2017: 193)으로 판단했다. 분석 단위는 시·군이며, 정주공간 유형별로 수도권 도시 모형에는 30개 시, 비수도권 도시 모형에는 55개 시, 농촌 모형에는 77개 군이 관측치로 포함되었다.

### 2) 다수준 분석

영향요인 도출을 위한 두 번째 분석으로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설문조사 응답 만족도)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 특성과 지역 여건을 잠재적 영향요인으로 구성한 다수준 분석을 실시했다.

모형의 설명변수로 개인 수준의 속성 변수와 지역(시·군) 수준의 속성 변수를 모두 포함하며, 각 개인 관측치가 상위 수준인 지역에 속하는 위계적 구조를 가진다. 주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할 경우 분석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위계적 구조를 가진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위계선형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주관적 안녕에 대한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 효과를 동시에 테스트하고자 한 Pittau et al.(2010), Shucksmith et al.(2009), Aslam and Corrado(2012), Bernini and Tampieri(2019) 등도 서로 다른 수준의 변동을 고려하는 다수준 접근을 통해 분석한 바 있다.

종속변수의 전체 분산 중 2수준인 지역(시·군)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인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이하 'ICC')를 산출한 결과, 전반적 및 영역별 만족도에 따라 2~7%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5-1). 개인 수준에서의 변동이 93~98%이고, 지역 수준에서의 변

동이 2~7% 수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주관적 삶의 질의 대부분이 개인 속성에 의해 설명되지만 지역 요인에 의해서도 작지만 일정 부분이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작은 비중이라 하더라도 지역 요인은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파급적 영향력이 작다고 할 수 없다.

<표 5-1> 전반적 및 영역별 주관적 삶의 질 ICC

| 구분 |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전반적 삶의 질 | 지역생활만족 | 0.016 | 0.030 | 0.010 | 0.014 |
| | 행복 | 0.009 | 0.011 | 0.007 | 0.010 |
| 영역별 삶의 질 | 기초생활환경 | 0.025 | 0.036 | 0.017 | 0.019 |
| | 일자리·소득 | 0.017 | 0.011 | 0.018 | 0.014 |
| | 환경 | 0.061 | 0.039 | 0.055 | 0.036 |
| | 공동체 | 0.030 | 0.011 | 0.011 | 0.006 |
| | 의료 | 0.069 | 0.064 | 0.052 | 0.040 |
| | 안전 | 0.024 | 0.044 | 0.014 | 0.017 |
| | 교육 | 0.033 | 0.056 | 0.019 | 0.024 |
| | 문화여가 | 0.036 | 0.079 | 0.016 | 0.025 |
| | 복지 | 0.030 | 0.061 | 0.015 | 0.019 |

다수준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클러스터링 수준을 판단하는 ICC 값의 기준으로 연구자들은 0.05 이상, 즉 5%보다 큰 값일 때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험규칙(rule of thumb)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 기준이 완전히 합의된 조건은 아니다. 지역사회 효과가 크더라도 지역사회의 분산 비율이 낮아 지역사회 효과의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김형용, 2010) 경험적 연구가 풍부하다면(Heck and Thomas, 2009) 선행연구 사례들을 기술하고 연구의 당위성을 확보하여 다수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신상수 외, 2015).

또한 Nezlek(2008)는 ICC 값의 크기와 관계 없이 분석자료가 다수준 구조를 가진다면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33] ICC는 그룹 간 분산과 그룹 내 분산의 상대적 분포를 나타내는 값으로,

ICC 값이 낮다는 것은 그룹 간 분산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어떤 측정치에 대해 모든 그룹의 평균이 같다면 ICC는 0). ICC값이 작은 경우 그룹 간 분산이 매우 작다는 이유로 위계적 구조(nested structure)를 무시할 수 있다고 보고 다수준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가정이다. 어떤 측정치에서 그룹 간 분산이 작거나 없다는 것이 그 측정치와 다른 측정치의 관계가 모든 그룹에서 동일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위계적 구조를 무시하고 분석한다면 이 관계가 모든 그룹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된다(Nezlek, 2008: 856-858).

본 연구는 개인(1수준)과 지역(2수준)의 다수준 구조를 가진 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의 속성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지역 효과에 주목하므로, 개인수준 효과와 지역수준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인 위계선형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모형으로는 2수준에서 임의 절편을 가지는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을 사용했다. 임의절편모형은 위계선형모형 중 절편만이 무작위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모형으로, 집단 내 모형의 특징은 절편계수만 무작위적 효과를 갖고 나머지 회귀계수는 고정효과(fixed effect)를 갖는 방법이다(민인식·최필선, 2010). 임의절편모형은 상수항만 상위수준과 연계되고 나머지 계수는 고정되어 있어 모형의 해석이 용이한 장점을 갖는 반면, 임의계수모형은 상수항뿐 아니라 기울기도 무작위적 효과를 가진다. 하위수준 변수가 상위수준 변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의절편모형의 추정값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속성이 지역 여건과 관련된 속성들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볼 수 없고 지역 맥락의 차이를 고려하여 세 정주공간 유형으로 모형을 구분하여 분석하므로 임의절편모형을 사용했다.[34]

---

33) 다만 2수준 관측치의 수가 적은 경우는 예외라고 하였다.

34) 분석의 목적이 2수준인 지역여건 변수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고 1수준 변수는 통제변수로서 투입되므로 변수 중심화를 하지 않았다. 즉, 이 분석에서 1수준 변수는 각 지역 내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포함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굳이 지역평균 중심화를 하지 않았다.

1수준 독립변수의 효과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계수의 확률효과를 고려하여 그러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임의계수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했으나 임의절편모형의 경우에 비해 AIC 및 BIC 값이 더 높게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5] 분석 결과 확률효과를 가지는 계수의 분산이 크지 않고 설명변수 계수의 고정효과 추정 결과도 임의절편모형과 거의 차이가 없어 임의계수모형을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1수준과 2수준 변수 간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분석 관련 논의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어 포함하지 않았다.

위계선형모형의 변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1수준 설명변수로서 개인 수준의 요인으로는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연간 가구소득), 가구원(동거인) 수를 포함했고, 그 외에 지역 거주기간, 사회적 관계 수준, 공동체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중앙정부·지역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기초지자체 청렴 인지 수준도 고려했다.

성별, 연령, 결혼 상태, 학력, 일자리 형태, 가구 규모(가구원 수), 소득 수준 등과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은 다수의 삶의 질 연구들에서 삶의 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루어져왔다(임희섭, 1996; 최영출, 2018; 이상록·백학영, 2008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도 삶의 질 인식이나 특히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보아 통제변수에 포함했다. 정주공간 유형별로 응답자의 평균 지역 거주기간은 수도권 도시 18.9년, 비수도권 도시 28.8년, 농촌 41.1년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삶의 질 인식에서 친구·이웃 관계 등 개인이 가깝게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다. 사회적 관계망,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회 교류(소통)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도 삶의 만족이나 정주의식에 유의미한 영향

35) 일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할 때 사용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그리고 이와 유사한 지표로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또 다른 지표인 BIC(Bayewian Information Criteria)를 기준으로 이들 값이 더 작은 경우에 보다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한다.

을 미치는 요인이다(Helliwell and Putnam, 2004; 문경주, 2019). 사회적 관계 수준은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친척·친구·이웃이 있다'는 서술에 대해 0~10점으로 응답한 점수를 반영했다.

공동체 가치 인식 수준 등은 개인의 기본적 가치관·세계관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속성으로 판단했다. 공동체 가치 인식은 '지역공동체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0점)~'나의 이익보다 지역공동체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10점), '공동체는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0점)~'개인은 공동체를 위해 존재한다'(10점) 등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으로 측정했다.

정주지의 기본적인 삶의 질 여건을 조성하는 공공정책 추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각급 정부 및 지역 기관에 대한 신뢰와 지자체 청렴도 인식은 삶의 질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 신뢰 수준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정부활동이 이루어지고 지역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믿음과 관계되는 것으고, 이는 지역사회의 정주여건에 대한 평가나 삶의 질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명철, 2018: 126-127). 관련하여 정부 및 정치체제 등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지역사회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Widgery, 1982)이나, 정부 등 공공조직 신뢰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Hudson, 2006)이 보고된 바 있다. 정부 및 지역 기관에 대한 신뢰와 지자체 청렴 인식은 기초자치단체 정부(시·군·구청), 광역자치단체 정부(광역시청·도청), 중앙정부, 거주지역의 기관(학교, 병원 등) 등에 대한 신뢰 수준과 청렴 인지 수준을 0점~10점으로 측정했다.

2수준 설명변수로서 지역 수준의 요인으로는 종속변수가 되는 주관적 삶의 질(설문조사 응답 만족도)의 각 해당 영역에 대한 객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를 구성했다. 기초생활환경 영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앞서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선정한 노후주택비율, 빈집비율,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고속철도 접근성, 고속도로IC 접근성, 도로포장률 변수를 구성했다(표 5-2).

<표 5-2> 위계선형모형 변수 구성: 기초생활환경 영역 예시

| 구분 | 변수 | 구분 | 변수 |
|---|---|---|---|
| 종속변수 | 기초생활환경 영역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 | | |
| 2수준 설명변수 (지역 수준) | 노후주택비율 | 1수준 설명변수 (개인 수준) | 직업 (ref=농림어업) |
| | 빈집비율 | | 가구소득 (ref=1500만원 미만) |
| | 상수도보급률 | | 가구원 수 |
| | 하수도보급률 | | 사회적 관계 |
| | 고속철도 접근성 | | 공동체 가치 인식 |
| | 고속도로IC 접근성 | | 사군 거주기간 |
| | 도로포장률 | | 기초지자체 신뢰 |
| | 인구(ln) | | 광역지자체 신뢰 |
| 1수준 설명변수 (개인 수준) | 성별 (ref=남성) | | 중앙정부 신뢰 |
| | 연령 및 연령 제곱 | | 지역기관 신뢰 |
| | 학력 (ref=고등학교 이하) | | 기초지자체 청렴 인식 |

## 제2절 정주공간 유형별 주관적 삶의 질 영향요인

### 1) 영역별 주관적 삶의 질 영향요인

#### (1) 기초생활환경 영역

시·군 점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5-3), 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빈집 비율, 고속철도 접근성, 고속도로IC 접근성, 도로포장률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도시 유형의 경우 고속도로IC 접근성만이 유의했다. 농촌 유형은 빈집비율과 상수도·하수도 보급률, 고속도

로IC 접근성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고속도로IC 접근성의 경우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유형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나타난 반면 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과 농촌 유형에서는 고속도로 접근성이 높은 것이 만족을 높이지만 수도권에서는 고속도로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크지 않고 오히려 혼잡도가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응답 만족도에 대해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5-4)도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 도시 응답자의 만족에는 지역의 인구규모가 음(-)의 영향을 미쳤고, 상수도보급률(+)과 하수도보급률(-)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5-3>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시·군 점수): 기초생활환경

| 종속변수 = 기초생활환경 영역 사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 | | | | |
|---|---|---|---|---|
| 구분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Coef. | Coef. | Coef. | Coef. |
| 인구(ln) | -0.002 | -0.022 | 0.053 | 0.013 |
| 노후주택 비율 | 0.210 | 0.676 | -0.548 | 0.449 |
| 빈집 비율 | -1.652*** | -3.187** | 0.038 | -1.938** |
| 상수도보급률 | 0.352* | 1.680 | -0.336 | 0.559** |
| 하수도보급률 | 0.539*** | -0.819 | 0.578 | 0.648** |
| 고속철도 접근성 | 0.001 | 0.021** | 0.001 | -0.002 |
| 고속도로IC 접근성 | 0.006*** | -0.029** | 0.011*** | 0.011*** |
| 도로포장율 | -0.251 | 3.891* | -0.191 | -0.253 |
| 상수 | 6.602*** | 2.908 | 6.480*** | 6.098*** |
| Number of obs | 162 | 30 | 55 | 77 |
| Adjusted R2 | 0.359 | 0.615 | 0.446 | 0.120 |

* p 〈 0.10, ** p 〈 0.05, *** p 〈 0.01.

<표 5-4>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개인 만족도): 기초생활환경

| 종속변수 = 기초생활환경 영역 만족도 | | | | | |
|---|---|---|---|---|---|
| 구분 | |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 | Coef. | Coef. | Coef. | Coef. |
| 2수준 (지역 수준) | 인구(ln) | | 0.004 | -0.035* | 0.0664* | 0.011 |
| | 노후주택 비율 | | 0.249 | 0.343 | -0.252 | 0.341 |
| | 빈집 비율 | | -1.552*** | -3.371*** | 0.119 | -1.830** |
| | 상수도보급률 | | 0.3377* | 2.609*** | -0.340 | 0.574*** |
| | 하수도보급률 | | 0.575*** | -0.873* | 0.560 | 0.668*** |
| | 고속철도 접근성 | | 0.002 | 0.018*** | 0.001 | -0.002 |
| | 고속도로IC 접근성 | | 0.006*** | -0.025** | 0.012*** | 0.011*** |
| | 도로포장율 | | -0.222 | 2.601 | -0.264 | -0.216 |
| 1수준 (개인 수준) | 성별 (ref=남성) | | 0.082*** | 0.134** | 0.101** | -0.001 |
| | 연령 | | 0.008 | -0.021 | 0.007 | 0.032*** |
| | 연령 제곱 | | 0.000 | 0.000** | 0.000 | -0.000*** |
| | 학력 (ref=고등학교 이하) | | -0.037 | 0.041 | -0.041 | -0.107 |
| | 직업 (ref=농림어업) | 자영업 | 0.145*** | 0.373* | 0.333*** | 0.105 |
| | | 사무·관리직 | 0.243** | 0.346 | 0.504*** | 0.164 |
| | | 생산·기능·노무직 | 0.094 | 0.385** | 0.213** | 0.081 |
| | | 그 외 | 0.257*** | 0.533** | 0.432*** | 0.160** |
| | 가구 소득 (ref=1,500만원 미만) | 1,500-3,500만원 | 0.217*** | 0.228*** | 0.206*** | 0.222*** |
| | | 3,500-5,000만원 | 0.389*** | 0.272*** | 0.516*** | 0.323*** |
| | | 5,000-8,000만원 | 0.532*** | 0.598*** | 0.573*** | 0.391*** |
| | | 8,000만원 이상 | 0.667*** | 0.598*** | 0.743*** | 0.651*** |
| | 가구원 수 | | -0.002 | -0.001 | -0.002 | -0.001 |
| | 사회적 관계 | | 0.182*** | 0.153*** | 0.190*** | 0.201*** |
| | 공동체 가치 인식 | | 0.036*** | 0.018 | 0.046*** | 0.036** |
| | 사군 거주기간 | | 0.003*** | 0.005*** | 0.002 | 0.002* |
| | 기초지자체 신뢰 | | 0.146*** | 0.134*** | 0.138*** | 0.157*** |
| | 광역지자체 신뢰 | | 0.031*** | 0.040*** | 0.033*** | 0.027** |
| | 중앙정부 신뢰 | | 0.004 | -0.006 | 0.007 | 0.010 |
| | 지역기관 신뢰 | | 0.236*** | 0.247*** | 0.229*** | 0.231*** |
| | 기초지자체 청렴 인식 | | 0.046*** | 0.057*** | 0.037*** | 0.049** |
| 상수 | | | 1.132*** | -1.357 | 0.820 | 0.115 |
| Number of obs | | | 13,491 | 3,442 | 5,660 | 4,389 |
| var(_cons) | | | 0.013** | 1.09e-16 | 0.003 | 0.020** |
| var(Residual) | | | 2.544*** | 2.411*** | 2.455*** | 2.707*** |

* p 〈 0.10, ** p 〈 0.05, *** p 〈 0.01

### (2) 일자리·소득 영역

시·군 점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5-5), 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인구당 사업체종사자 수, 사업체 수 증가율, 지식기반산업 집적도가 양(+)의 방향으로, 상용근로자 비율이 음(-)의 방향으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비율은 종사자 수에 대한 상용근로자의 비율로, 분모인 총 종사자 수(취업자 및 기타종사자)가 같이 변동되면서 부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수도권 도시 유형은 고용률, 사업체 수 증가율과 양(+)의 관계를 보였고, 농촌 유형은 1인당 지방소득세가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낮아지고 인구당 사업체종사자가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개인 응답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5-6)도 거의 유사했지만 농촌 유형에서만 일부 차이가 있었다. 1인당 지방소득세는 유의하지 않았고(-방향),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응답자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시·군 점수): 일자리·소득

| 종속변수 = 일자라소득 영역 사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 | | | | | |
|---|---|---|---|---|---|
| 구분 |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 Coef. | Coef. | Coef. | Coef. |
| 정주공간 (ref=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0.248*** | | | |
| | 농촌 | -0.129 | | | |
| 인구(ln) | | 0.018 | 0.010 | 0.028 | 0.077 |
| 1인당 지방소득세 | | 0.002 | -0.002 | 0.005 | -0.011* |
| 고용률 | | 2.104*** | 0.662 | 3.235*** | 1.480 |
| 인구당 사업체종사자 | | 0.381 | 2.287** | -0.415 | 1.717*** |
| 상용근로자 비율 | | 0.130 | -4.930** | -0.300 | 0.192 |
| 사업체 수 증가율 | | 0.027*** | 0.058** | 0.036* | 0.003 |
| 지식기반산업 집적도 | | 0.104 | 0.499*** | 0.182 | -0.094 |
| 상수 | | 2.353*** | 5.406*** | 1.704 | 1.843 |
| Number of obs | | 162 | 30 | 55 | 77 |
| Adjusted R2 | | 0.248 | 0.283 | 0.351 | 0.053 |

* p 〈 0.10, ** p 〈 0.05, *** p 〈 0.01

<표 5-6>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개인 만족도): 일자리·소득

| 종속변수 = 일자라소득 영역 만족도 | | | | | | |
|---|---|---|---|---|---|---|
| 구분 | |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 | Coef. | Coef. | Coef. | Coef. |
| 2수준 (지역 수준) | 정주공간 (ref=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0.234*** | | | |
| | | 농촌 | -0.126 | | | |
| | 인구(ln) | | 0.002 | -0.005 | 0.017 | 0.048 |
| | 1인당 지방소득세 | | 0.002 | -0.002 | 0.004 | -0.010 |
| | 고용률 | | 2.088*** | 0.911 | 3.231*** | 1.422* |
| | 인구당 사업체종사자 | | 0.425 | 1.870*** | 0.458 | 1.679*** |
| | 상용근로자 비율 | | -0.073 | -4.637*** | -0.798 | 0.160 |
| | 사업체 수 증가율 | | 0.030*** | 0.060*** | 0.034** | 0.003 |
| | 지식기반산업 집적도 | | 0.137 | 0.548*** | 0.197 | -0.103 |
| 1수준 (개인 수준) | 성별 (ref=남성) | | 0.197*** | 0.253*** | 0.157** | 0.225*** |
| | 연령 | | -0.030*** | -0.027* | -0.039*** | -0.003 |
| | 연령 제곱 | | 0.000*** | 0.000 | 0.000*** | 0.000 |
| | 학력 (ref=고등학교 이하) | | -0.108** | -0.198** | -0.055 | -0.100 |
| | 직업 (ref=농림어업) | 자영업 | -0.014 | 0.220 | -0.102 | 0.060 |
| | | 사무·관리직 | 0.453*** | 0.694** | 0.321 | 0.545** |
| | | 생산기능노무직 | 0.126 | 0.617*** | -0.081 | 0.107 |
| | | 그 외 | -0.125* | 0.183 | -0.248** | -0.091 |
| | 가구 소득 (ref=1,500만원 미만) | 1,500-3,500만원 | 0.352*** | 0.248* | 0.289*** | 0.431*** |
| | | 3,500-5,000만원 | 0.512*** | 0.407*** | 0.565*** | 0.432*** |
| | | 5,000-8,000만원 | 0.6591*** | 0.569*** | 0.659*** | 0.670*** |
| | | 8,000만원 이상 | 0.798*** | 0.699*** | 0.776*** | 0.942*** |
| | 가구원 수 | | -0.064*** | -0.135*** | -0.059*** | -0.014 |
| | 사회적 관계 | | 0.166*** | 0.151*** | 0.160*** | 0.190*** |
| | 공동체 가치 인식 | | 0.047*** | 0.031 | 0.039** | 0.070*** |
| | 사군 거주기간 | | -0.002** | -0.001 | -0.004** | -0.001 |
| | 기초지자체 신뢰 | | 0.165*** | 0.141*** | 0.176*** | 0.153*** |
| | 광역지자체 신뢰 | | 0.020** | 0.0447* | 0.034** | -0.005 |
| | 중앙정부 신뢰 | | 0.112*** | 0.103*** | 0.137*** | 0.089*** |
| | 지역기관 신뢰 | | 0.207*** | 0.167*** | 0.197*** | 0.239*** |
| | 기초지자체 청렴 인식 | | 0.074*** | 0.121*** | 0.062*** | 0.057** |
| 상수 | | | -0.907 | 2.094** | -1.426 | -2.388* |
| Number of obs | | | 13,047 | 3,244 | 5,495 | 4,308 |
| var(_cons) | | | 0.009 | 1.95e-18 | 4.48e-08 | 1.58e-09 |
| var(Residual) | | | 4.084*** | 3.637*** | 3.877*** | 4.601*** |

* p 〈 0.10, ** p 〈 0.05, *** p 〈 0.01

### (3) 환경 영역

시·군 점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5-7), 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행정구역 대비 공원면적비율과 녹지율이 양(+)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비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그 두 요인(+방향)에 더해 인구규모와 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유형에서도 인구규모의 음(-)의 효과가 있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고 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 응답 만족도에 대해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5-8)는 다중회귀분석과 동일한 영향요인이 확인되었다.

<표 5-7>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시·군 점수): 환경

| 종속변수 = 환경 영역 사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 | | | | |
|---|---|---|---|---|
| 구분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Coef. | Coef. | Coef. | Coef. |
| 인구(ln) | -0.259*** | 0.020 | -0.299*** | -0.634*** |
| 행정구역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0.001 | -0.001 | -0.002 | -0.008** |
|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 -0.572*** | -0.251 | -0.828*** | -0.386*** |
| 행정구역 대비 공원면적비 | 0.045*** | 0.039*** | 0.069*** | -0.052 |
| 생활권공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5km) | 0.051 | -0.069 | 0.676 | 0.350 |
| 녹지율 | 0.827*** | 1.322** | 1.242** | 0.437 |
| 상수 | 8.988*** | 4.869*** | 8.817*** | 13.253*** |
| Number of obs | 162 | 30 | 55 | 77 |
| Adjusted R2 | 0.469 | 0.322 | 0.431 | 0.540 |

* p 〈 0.10, ** p 〈 0.05, *** p 〈 0.01

<표 5-8>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개인 만족도): 환경

| 종속변수 = 환경 영역 만족도 | | | | | | |
|---|---|---|---|---|---|---|
| 구분 | |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 | Coef. | Coef. | Coef. | Coef. |
| 2수준 (지역 수준) | 인구(ln) | | -0.245*** | 0.029 | -0.298*** | -0.643*** |
| | 행정구역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 -0.001 | -0.001 | -0.001 | -0.008** |
| |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 | -0.568*** | -0.207 | -0.826*** | -0.370*** |
| | 행정구역 대비 공원면적비 | | 0.045*** | 0.033*** | 0.070*** | -0.042 |
| | 생활권공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5km) | | 0.014 | 0.065 | 0.585 | 0.330 |
| | 녹지율(도시지역 중 녹지) | | 0.840*** | 1.298*** | 1.255** | 0.461 |
| 1수준 (개인 수준) | 성별 (ref=남성) | | -0.213*** | -0.017 | -0.297*** | -0.243*** |
| | 연령 | | -0.009 | -0.003 | -0.004 | -0.029*** |
| | 연령 제곱 | | 0.000*** | 0.000 | 0.000 | 0.000*** |
| | 학력 (ref=고등학교 이하) | | 0.085** | 0.163** | 0.025 | 0.087 |
| | 직업 (ref=농림어업) | 자영업 | 0.284*** | 0.169 | 0.366*** | 0.324*** |
| | | 사무·관리직 | 0.346** | 0.255 | 0.606*** | -0.106 |
| | | 생산·기능·노무직 | 0.287*** | 0.277 | 0.354*** | 0.205** |
| | | 그 외 | 0.302*** | 0.271 | 0.368*** | 0.260*** |
| | 가구 소득 (ref=1,500만원 미만) | 1,500-3,500만원 | 0.027 | -0.082 | 0.055 | 0.020 |
| | | 3,500-5,000만원 | 0.118** | -0.067 | 0.163* | 0.200* |
| | | 5,000-8,000만원 | 0.188*** | 0.125 | 0.223*** | 0.126 |
| | | 8,000만원 이상 | 0.175*** | 0.033 | 0.215*** | 0.271** |
| | 가구원 수 | | -0.014* | 0.003 | -0.024** | -0.012 |
| | 사회적 관계 | | 0.117*** | 0.094*** | 0.120*** | 0.131*** |
| | 공동체 가치 인식 | | 0.040*** | 0.025 | 0.041*** | 0.043*** |
| | 사군 거주기간 | | -0.004*** | -0.001 | -0.004** | -0.004*** |
| | 기초지자체 신뢰 | | 0.133*** | 0.123*** | 0.137*** | 0.130*** |
| | 광역지자체 신뢰 | | 0.025*** | 0.045** | 0.020** | 0.020* |
| | 중앙정부 신뢰 | | 0.042*** | 0.028* | 0.054*** | 0.037*** |
| | 지역기관 신뢰 | | 0.166*** | 0.157*** | 0.196*** | 0.145*** |
| | 기초지자체 청렴 인식 | | 0.117*** | 0.148*** | 0.094*** | 0.125*** |
| 상수 | | | 4.894*** | 0.507 | 4.741*** | 10.070*** |
| Number of obs | | | 13,490 | 3,442 | 5,660 | 4,388 |
| var(_cons) | | | 0.112*** | 0.046** | 0.130*** | 0.044*** |
| var(Residual) | | | 2.681*** | 2.600*** | 2.668*** | 2.710*** |

* p 〈 0.10, ** p 〈 0.05, *** p 〈 0.01

### (4) 공동체 영역

시·군 점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5-9), 도시 유형(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인구규모의 음(-)의 영향만이 확인되었다. 농촌 유형에서는 1인가구 비율(독거노인 제외)이 높아질수록 공동체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응답 만족도에 대해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5-10)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농촌 유형에서 1인가구 비율 외에 독거노인가구 비율도 공동체 만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수도권 도시 유형에서 인구규모 외 영향요인이 추가로 확인되었는데, 농촌 유형과 마찬가지로 독거노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십만명당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 대비 지표의 특성상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큰 값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9>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시·군 점수): 공동체

| 종속변수 = 공동체 영역 사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 | | | | |
|---|---|---|---|---|
| 구분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Coef. | Coef. | Coef. | Coef. |
| 인구(ln) | -0.106*** | -0.072* | -0.116*** | -0.088 |
| 전국지방선거투표율 | 0.604 | 2.100 | 0.127 | 0.073 |
| 1인가구 비율 (독거노인 제외) | -0.146 | -0.054 | -0.122 | -0.534** |
| 독거노인가구 비율 | -0.151 | -0.040 | -0.217 | -0.679 |
| 인구십만명당 자살률 | 0.094 | -0.149 | 0.240 | 0.036 |
| 상수 | 6.498*** | 5.260*** | 6.855*** | 7.097*** |
| Number of obs | 162 | 30 | 55 | 77 |
| Adjusted R2 | 0.374 | 0.036 | 0.262 | 0.077 |

* p 〈 0.10, ** p 〈 0.05, *** p 〈 0.01

<표 5-10>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개인 만족도): 공동체

| 종속변수 = 공동체 영역 만족도 | | | | | | |
|---|---|---|---|---|---|---|
| 구분 | |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 | Coef. | Coef. | Coef. | Coef. |
| 2수준 (지역 수준) | 인구(ln) | | -0.095*** | -0.078*** | -0.094*** | -0.101 |
| | 전국지방선거투표율 | | 0.575 | 1.918 | -0.251 | -0.117 |
| | 1인가구 비율 (독거노인 제외) | | -0.125 | -0.024 | -0.040 | -0.574** |
| | 독거노인가구 비율 | | -0.199 | 0.378 | -0.313* | -0.770** |
| | 인구십만명당 자살률 | | 0.110 | -0.144 | 0.295** | 0.019 |
| 1수준 (개인 수준) | 성별 (ref=남성) | | 0.038 | 0.164** | 0.004 | -0.018 |
| | 연령 | | -0.002 | 0.002 | 0.006 | -0.028** |
| | 연령 제곱 | | 0.000 | 0.000 | 0.000 | 0.000** |
| | 학력 (ref=고등학교 이하) | | 0.032 | 0.097 | 0.032 | -0.052 |
| | 직업 (ref=농림어업) | 자영업 | -0.343*** | -0.586** | -0.384*** | -0.221* |
| | | 사무·관리직 | -0.277* | -0.522 | -0.294* | -0.146 |
| | | 생산·기능노무직 | -0.318*** | -0.453* | -0.389*** | -0.269** |
| | | 그 외 | -0.275*** | -0.349 | -0.382*** | -0.243*** |
| | 가구 소득 (ref=1,500만원 미만) | 1,500-3,500만원 | -0.020 | -0.150 | -0.098 | 0.085 |
| | | 3,500-5,000만원 | 0.000 | -0.109 | -0.035 | 0.072 |
| | | 5,000-8,000만원 | 0.017 | 0.074 | -0.048 | -0.090 |
| | | 8,000만원 이상 | 0.028 | -0.080 | -0.018 | 0.155 |
| | 가구원 수 | | -0.008 | 0.025 | -0.024** | -0.006 |
| | 사회적 관계 | | 0.322*** | 0.293*** | 0.316*** | 0.354*** |
| | 공동체 가치 인식 | | 0.076*** | 0.103*** | 0.077*** | 0.056*** |
| | 사군 거주기간 | | -0.001 | 0.000 | -0.001 | -0.001 |
| | 기초지자체 신뢰 | | 0.150*** | 0.162*** | 0.115*** | 0.176*** |
| | 광역지자체 신뢰 | | 0.022** | 0.016 | 0.047*** | 0.006 |
| | 중앙정부 신뢰 | | 0.041*** | 0.015 | 0.070*** | 0.026* |
| | 지역기관 신뢰 | | 0.120*** | 0.104*** | 0.136*** | 0.113*** |
| | 기초지자체 청렴 인식 | | 0.129*** | 0.155*** | 0.108*** | 0.134*** |
| 상수 | | | 1.464*** | 0.076 | 1.840*** | 3.228* |
| Number of obs | | | 12,993 | 3,262 | 5,426 | 4,305 |
| var(_cons) | | | 1.23e-13 | 1.06e-11 | 1.12e-13 | 5.07e-17 |
| var(Residual) | | | 3.885*** | 3.994*** | 3.752*** | 3.892*** |

* p 〈 0.10, ** p 〈 0.05, *** p 〈 0.01

### (5) 의료 영역

시·군 점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5-11), 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의료 영역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지역 인구규모의 양(+)의 영향만 확인되었다. 농촌 유형에서도 인구규모의 양(+)의 영향이 확인되었고, 이와 함께 수도권 도시유형과 마찬가지로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이 좋고 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농촌 유형에서는 종합병원과 관련한 접근성 수준(종합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개인 응답 만족도에 대해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5-12)에서는 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만 일부 차이가 있었는데, 인구규모의 양(+)의 영향과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의료 만족도가 높아지는 관계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표 5-11>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시·군 점수): 의료

| 종속변수 = 의료 영역 사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 | | | | |
|---|---|---|---|---|
| 구분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Coef. | Coef. | Coef. | Coef. |
| 인구(ln) | 0.216*** | 0.104 | 0.346** | 0.250* |
| 노인인구 비율 | 1.302* | 5.065 | 0.309 | 1.507 |
| 행정구역면적당 의료인력 수 | 0.001 | -0.002 | -0.004 | -0.356 |
|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 0.028*** | 0.071** | 0.008 | 0.029*** |
| 종합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0km) | 0.488*** | 0.221 | 0.246 | 0.798*** |
| 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5km) | 0.578*** | 1.020*** | 0.461 | 0.604* |
| 상수 | 3.488*** | 4.798*** | 2.074 | 3.098* |
| Number of obs | 162 | 30 | 55 | 77 |
| Adjusted R2 | 0.650 | 0.712 | 0.450 | 0.354 |

* p 〈 0.10, ** p 〈 0.05, *** p 〈 0.01

<표 5-12>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개인 만족도): 의료

| 종속변수 = 의료 영역 만족도 | | | | | | |
|---|---|---|---|---|---|---|
| 구분 | |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 | Coef. | Coef. | Coef. | Coef. |
| 2수준 (지역 수준) | 인구(ln) | | 0.200*** | 0.082* | 0.325*** | 0.291** |
| | 노인인구 비율 | | 1.229* | 5.046* | 0.404 | 1.176 |
| | 행정구역면적당 의료인력 수 | | 0.000 | -0.004 | -0.004 | -0.362 |
| |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 | 0.027*** | 0.067** | 0.007 | 0.028*** |
| | 종합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0km) | | 0.517*** | 0.250 | 0.259 | 0.764*** |
| | 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5km) | | 0.594*** | 1.106*** | 0.443 | 0.563* |
| 1수준 (개인 수준) | 성별 (ref=남성) | | -0.036 | 0.036 | -0.048 | -0.104 |
| | 연령 | | -0.013* | -0.027** | -0.007 | 0.016 |
| | 연령 제곱 | | 0.000** | 0.000** | 0.000 | 0.000 |
| | 학력 (ref=고등학교 이하) | | -0.174*** | -0.130 | -0.209*** | -0.196* |
| | 직업 (ref=농림어업) | 자영업 | 0.235*** | 0.558* | 0.504*** | 0.134 |
| | | 사무·관리직 | 0.523*** | 0.940*** | 0.858*** | 0.107 |
| | | 생산·기능·노무직 | 0.354*** | 0.807** | 0.454*** | 0.401*** |
| | | 그 외 | 0.279*** | 0.686** | 0.479*** | 0.192* |
| | 가구 소득 (ref=1,500만원 미만) | 1,500-3,500만원 | 0.064 | 0.020 | 0.174** | 0.019 |
| | | 3,500-5,000만원 | 0.068 | 0.063 | 0.197** | -0.089 |
| | | 5,000-8,000만원 | 0.071 | 0.104 | 0.122 | 0.064 |
| | | 8,000만원 이상 | 0.072 | 0.198 | 0.146 | -0.184 |
| | 가구원 수 | | -0.020 | -0.019 | -0.006 | -0.042 |
| | 사회적 관계 | | 0.160*** | 0.114*** | 0.172*** | 0.186*** |
| | 공동체 가치 인식 | | -0.015 | -0.037** | -0.034** | 0.023 |
| | 사군 거주기간 | | 0.005*** | 0.008** | 0.006*** | 0.000 |
| | 기초지자체 신뢰 | | 0.093*** | 0.082*** | 0.079*** | 0.113*** |
| | 광역지자체 신뢰 | | 0.016 | 0.026 | 0.024 | 0.009 |
| | 중앙정부 신뢰 | | -0.013 | -0.019 | -0.018 | -0.002 |
| | 지역기관 신뢰 | | 0.498*** | 0.505*** | 0.493*** | 0.496*** |
| | 기초지자체 청렴 인식 | | 0.017 | 0.030 | 0.012 | 0.012 |
| 상수 | | | -1.044 | 0.632 | -2.711* | -3.104** |
| Number of obs | | | 13,479 | 3,440 | 5,656 | 4,383 |
| var(_cons) | | | 0.100*** | 1.56e-13 | 0.127*** | 0.075** |
| var(Residual) | | | 4.611*** | 4.246*** | 4.375*** | 5.114*** |

* p 〈 0.10, ** p 〈 0.05, *** p 〈 0.01

### (6) 안전 영역

시·군 점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5-13), 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경찰서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안전 영역 만족도가 높았다. 비수도권 도시 유형과 농촌 유형에서 동일한 영향요인이 확인되었는데,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인구십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 수가 높은 지역에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응답 만족도에 대해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5-14)는 다중회귀분석과 동일했다.

<표 5-13>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시·군 점수): 안전

| 종속변수 = 안전 영역 사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 | | | | |
|---|---|---|---|---|
| 구분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Coef. | Coef. | Coef. | Coef. |
| 인구(ln) | -0.132*** | -0.128 | -0.151** | -0.228*** |
| 행정구역면적당 119안전센터 수 | 1.692 | -0.957 | 1.284 | 14.240 |
| 경찰서 접근성 | 0.013 | 0.208* | 0.005 | 0.003 |
| 인구십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 수 | -0.007*** | -0.001 | -0.015** | -0.004* |
| 행정구역면적당 CCTV대수 | 0.052 | 0.021 | 0.081 | -0.659 |
| 상수 | 8.687*** | 9.332*** | 9.008*** | 9.532*** |
| Number of obs | 162 | 30 | 55 | 77 |
| Adjusted R2 | 0.135 | 0.235 | 0.108 | 0.074 |

* p 〈 0.10, ** p 〈 0.05, *** p 〈 0.01

<표 5-14>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개인 만족도): 안전

| 종속변수 = 안전 영역 만족도 | | | | | | |
|---|---|---|---|---|---|---|
| 구분 | |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 | Coef. | Coef. | Coef. | Coef. |
| 2수준 (지역 수준) | 인구(ln) | | -0.128*** | -0.091 | -0.158** | -0.220*** |
| | 행정구역면적당 119안전센터 수 | | 2.005 | -1.526 | 2.681 | 13.668 |
| | 경찰서 접근성 | | 0.010 | 0.214** | -0.004 | 0.002 |
| | 인구십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 수 | | -0.007*** | -0.001 | -0.013** | -0.004* |
| | 행정구역면적당 CCTV대수 | | 0.044 | 0.026 | 0.059 | -0.668 |
| 1수준 (개인 수준) | 성별 (ref=남성) | | -0.431*** | -0.371*** | -0.449*** | -0.462*** |
| | 연령 | | 0.005 | 0.014 | -0.004 | 0.003 |
| | 연령 제곱 | | 0.000 | 0.000 | 0.000* | 0.000 |
| | 학력 (ref=고등학교 이하) | | 0.061* | 0.126* | 0.091* | -0.058 |
| | 직업 (ref=농림어업) | 자영업 | 0.242*** | 0.280** | 0.255** | 0.319*** |
| | | 사무·관리직 | 0.294*** | 0.538** | 0.134 | 0.541*** |
| | | 생산·기능·노무직 | 0.221*** | 0.353*** | 0.251** | 0.145 |
| | | 그 외 | 0.270*** | 0.452*** | 0.248*** | 0.223*** |
| | 가구 소득 (ref=1,500만원 미만) | 1,500-3,500만원 | 0.071 | -0.154 | 0.072 | 0.155** |
| | | 3,500-5,000만원 | 0.140*** | -0.037 | 0.170** | 0.154 |
| | | 5,000-8,000만원 | 0.229*** | 0.126 | 0.246*** | 0.207* |
| | | 8,000만원 이상 | 0.252*** | 0.146 | 0.269*** | 0.204* |
| | 가구원 수 | | -0.034** | -0.053** | -0.029 | -0.039** |
| | 사회적 관계 | | 0.140*** | 0.100*** | 0.150*** | 0.157*** |
| | 공동체 가치 인식 | | 0.020** | -0.006 | 0.019 | 0.040** |
| | 사군 거주기간 | | 0.001 | 0.007*** | -0.001 | 0.000 |
| | 기초지자체 신뢰 | | 0.157*** | 0.165*** | 0.138*** | 0.170*** |
| | 광역지자체 신뢰 | | 0.036*** | 0.043*** | 0.049*** | 0.024** |
| | 중앙정부 신뢰 | | 0.045*** | 0.037*** | 0.056*** | 0.039*** |
| | 지역기관 신뢰 | | 0.240*** | 0.241*** | 0.256*** | 0.219*** |
| | 기초지자체 청렴 인식 | | 0.099*** | 0.100*** | 0.077*** | 0.120*** |
| 상수 | | | 2.985*** | 3.184** | 3.529*** | 3.829*** |
| Number of obs | | | 13,488 | 3,442 | 5,658 | 4,388 |
| var(_cons) | | | 0.041*** | 0.048* | 0.037*** | 0.019 |
| var(Residual) | | | 2.557*** | 2.505*** | 2.452*** | 2.685*** |

* p 〈 0.10, ** p 〈 0.05, *** p 〈 0.01

### (7) 교육 영역

시·군 점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5-15), 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인구규모의 음(-)의 효과만 확인되었고 그 외 유의한 영향요인은 없었다. 비수도권 도시 유형의 경우 초등학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교육 영역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행정구역면적당 학교 수는 음(-)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농촌 유형에서는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교육 영역 만족도가 낮았고, 교원1인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어린이집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부족해 학교가 폐교되는 등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농촌지역의 경우 교원당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서 오히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 응답 만족도에 대해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5-16), 비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만 일부 차이가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했던 행정구역면적당 학교 수는 개인 단위 분석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5-15>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시·군 점수): 교육

| 종속변수 = 교육 영역 사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 | | | | |
|---|---|---|---|---|
| 구분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Coef. | Coef. | Coef. | Coef. |
| 인구(ln) | -0.113*** | -0.152* | 0.000 | -0.404*** |
| 행정구역면적당 학교 수(초·중·고) | 0.239** | 0.184 | -0.254** | 0.118 |
| 교원1인당 학생수 | 0.064 | -0.570 | 0.052 | 0.318* |
| 인구천명당 사설학원 수 | -0.140 | 0.333 | -0.172 | -0.007 |
| 초등학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5km) | 0.412 | 0.180 | 1.087** | -0.518 |
| 어린이집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5km) | 0.765** | 2.223 | 0.799 | 1.284*** |
| 상수 | 6.999*** | 6.544*** | 5.083*** | 10.294*** |
| Number of obs | 162 | 30 | 55 | 77 |
| Adjusted R2 | 0.163 | 0.255 | 0.184 | 0.150 |

* p 〈 0.10, ** p 〈 0.05, *** p 〈 0.01

<표 5-16>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개인 만족도): 교육

| 종속변수 = 교육 영역 만족도 | | | | | | |
|---|---|---|---|---|---|---|
| 구분 | |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 | Coef. | Coef. | Coef. | Coef. |
| 2수준 (지역 수준) | 인구(ln) | | -0.101*** | -0.125* | 0.000 | -0.398*** |
| | 행정구역면적당 학교 수(초·중·고) | | 0.220** | 0.171 | -0.186 | 0.319 |
| | 교원1인당 학생수 | | 0.044 | -0.544 | 0.079 | 0.319* |
| | 인구천명당 사설학원 수 | | -0.142 | 0.372 | -0.231 | -0.029 |
| | 초등학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5km) | | 0.451 | 0.224 | 1.039** | -0.525 |
| | 어린이집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5km) | | 0.728** | 2.559 | 0.532 | 1.283*** |
| 1수준 (개인 수준) | 성별 (ref=남성) | | 0.125*** | 0.138** | 0.093** | 0.146** |
| | 연령 | | 0.019*** | -0.001 | 0.013 | 0.029** |
| | 연령 제곱 | | -0.000*** | 0.000 | 0.000 | -0.000** |
| | 학력 (ref=고등학교 이하) | | -0.033 | 0.033 | -0.070 | -0.021 |
| | 직업 (ref=농림어업) | 자영업 | 0.554*** | 0.570** | 0.714*** | 0.535*** |
| | | 사무·관리직 | 0.722*** | 0.656** | 0.894*** | 0.779*** |
| | | 생산·기능·노무직 | 0.440*** | 0.494* | 0.616*** | 0.318*** |
| | | 그 외 | 0.489*** | 0.549** | 0.694*** | 0.311*** |
| | 가구 소득 (ref=1,500만원 미만) | 1,500-3,500만원 | 0.218*** | 0.109 | 0.148** | 0.295*** |
| | | 3,500-5,000만원 | 0.252*** | 0.115 | 0.273*** | 0.263*** |
| | | 5,000-8,000만원 | 0.335*** | 0.213** | 0.391*** | 0.272*** |
| | | 8,000만원 이상 | 0.343*** | 0.284*** | 0.338*** | 0.324*** |
| | 가구원 수 | | -0.016 | -0.023 | -0.032 | 0.005 |
| | 사회적 관계 | | 0.140*** | 0.090*** | 0.137*** | 0.183*** |
| | 공동체 가치 인식 | | 0.036*** | -0.002 | 0.036** | 0.058*** |
| | 사군 거주기간 | | 0.000 | 0.006** | -0.002 | 0.000 |
| | 기초지자체 신뢰 | | 0.134*** | 0.135*** | 0.112*** | 0.144*** |
| | 광역지자체 신뢰 | | 0.033*** | 0.040 | 0.061*** | 0.006 |
| | 중앙정부 신뢰 | | 0.023*** | 0.049*** | 0.013 | 0.026* |
| | 지역기관 신뢰 | | 0.345*** | 0.339*** | 0.350*** | 0.335*** |
| | 기초지자체 청렴 인식 | | 0.060*** | 0.041 | 0.059*** | 0.070*** |
| 상수 | | | 0.228 | -0.119 | -1.167** | 3.115** |
| Number of obs | | | 13,382 | 3,403 | 5,617 | 4,362 |
| var(_cons) | | | 0.046*** | 0.054** | 0.010 | 0.036*** |
| var(Residual) | | | 3.125*** | 2.608*** | 2.858*** | 3.797*** |

* p 〈 0.10, ** p 〈 0.05, *** p 〈 0.01

### (8) 문화·여가 영역

시·군 점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5-17), 수도권 도시 유형의 경우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문화·여가 영역 만족도가 높았다. 비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인구의 양(+)의 영향만 확인되었다. 농촌 유형의 경우 행정구역면적당 문화기반시설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정구역 대비 마을체육시설 면적비율과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은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개인 응답 만족도에 대해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5-18)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었는데, 수도권 도시와 비수도권 도시 유형에서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의 긍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표 5-17>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시·군 점수): 문화·여가

| 종속변수 = 문화여가 영역 사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 | | | | | |
|---|---|---|---|---|---|
| 구분 |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 Coef. | Coef. | Coef. | Coef. |
| 정주공간 (ref=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0.120* | | | |
| | 농촌 | 0.038 | | | |
| 인구(ln) | | -0.025 | -0.123 | 0.107** | -0.066 |
| 행정구역면적당 문화기반시설 수 | | 0.966 | 0.960 | -0.528 | -17.647*** |
| 행정구역 대비 마을체육시설 면적비 | | -0.143 | -0.085 | -0.034 | 7.788* |
|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5km) | | 0.561** | 1.304** | -0.319 | 1.338*** |
|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5km) | | 0.755*** | 0.742 | 0.416 | 0.960*** |
| 상수 | | 5.5697*** | 6.1901*** | 4.581*** | 5.770*** |
| Number of obs | | 162 | 30 | 55 | 77 |
| Adjusted R2 | | 0.279 | 0.428 | 0.065 | 0.271 |

* p 〈 0.10, ** p 〈 0.05, *** p 〈 0.01

<표 5-18>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개인 만족도): 문화·여가

| 종속변수 = 문화여가 영역 만족도 | | | | | | |
|---|---|---|---|---|---|---|
| 구분 | |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 | Coef. | Coef. | Coef. | Coef. |
| 2수준 (지역 수준) | 정주공간 (ref=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0.197** | | | |
| | | 농촌 | 0.046 | | | |
| | 인구(ln) | | -0.021 | -0.108 | 0.113*** | -0.068 |
| | 행정구역면적당 문화기반시설 수 | | 0.872 | 0.828 | -0.472 | -17.772*** |
| | 행정구역 대비 마을체육시설 면적비 | | -0.136 | -0.087 | -0.034 | 8.447** |
| |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5km) | | 0.573** | 1.435*** | -0.390 | 1.376*** |
| |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5km) | | 0.751*** | 0.781* | 0.417* | 0.940*** |
| 1수준 (개인 수준) | 성별 (ref=남성) | | 0.020 | 0.141** | -0.039 | -0.027 |
| | 연령 | | 0.011 | -0.015 | 0.015 | 0.023 |
| | 연령 제곱 | | 0.000 | 0.000 | 0.000 | 0.000 |
| | 학력 (ref=고등학교 이하) | | 0.079* | 0.198** | 0.131** | -0.129 |
| | 직업 (ref= 농림어업) | 자영업 | 0.643*** | 0.552** | 0.733*** | 0.857*** |
| | | 사무·관리직 | 0.651*** | 0.426 | 0.891*** | 0.799** |
| | | 생산·기능·노무직 | 0.568*** | 0.681*** | 0.721*** | 0.391*** |
| | | 그 외 | 0.623*** | 0.573** | 0.826*** | 0.518*** |
| | 가구 소득 (ref= 1,500만원 미만) | 1,500-3,500만원 | 0.090 | 0.007 | 0.053 | 0.124 |
| | | 3,500-5,000만원 | 0.205*** | 0.125 | 0.279*** | 0.107 |
| | | 5,000-8,000만원 | 0.296*** | 0.350*** | 0.279*** | 0.200 |
| | | 8,000만원 이상 | 0.273*** | 0.231* | 0.283*** | 0.272 |
| | 가구원 수 | | -0.006 | -0.057* | -0.007 | 0.034 |
| | 사회적 관계 | | 0.205*** | 0.175*** | 0.120*** | 0.238*** |
| | 공동체 가치 인식 | | 0.042*** | 0.029 | 0.037** | 0.055*** |
| | 사군 거주기간 | | -0.001 | 0.005* | -0.003 | -0.001 |
| | 기초지자체 신뢰 | | 0.192*** | 0.194*** | 0.180*** | 0.194*** |
| | 광역지자체 신뢰 | | 0.023** | 0.042** | 0.036** | 0.004 |
| | 중앙정부 신뢰 | | 0.023** | 0.018 | 0.033** | 0.016 |
| | 지역기관 신뢰 | | 0.314*** | 0.279*** | 0.308*** | 0.337*** |
| | 기초지자체 청렴 인식 | | 0.056*** | 0.061** | 0.061*** | 0.049* |
| 상수 | | | -1.237* | 0.167 | -2.522*** | -1.376 |
| Number of obs | | | 13,379 | 3,418 | 5,619 | 4,342 |
| var(_cons) | | | 0.067*** | 0.096** | 0.022*** | 0.027 |
| var(Residual) | | | 4.606*** | 4.128*** | 4.415*** | 5.150*** |

* p 〈 0.10, ** p 〈 0.05, *** p 〈 0.01

### (9) 복지 영역

시·군 점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5-19), 수도권 도시 유형의 경우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복지 영역 만족도가 낮았고, 행정구역면적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와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는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면적당 사회복지시설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만족도가 낮아졌는데, 이는 사회복지시설에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유의한 영향요인이 없었고, 농촌 유형의 경우 인구규모의 음(-)의 효과만 확인되었다.

개인 응답 만족도에 대해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5-20)는 다중회귀분석과 동일했다.

<표 5-19>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시·군 점수): 복지

| 종속변수 = 복지 영역 사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 | | | | |
|---|---|---|---|---|
| 구분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Coef. | Coef. | Coef. | Coef. |
| 인구(ln) | -0.175*** | -0.203** | -0.125 | -0.194** |
| 행정구역면적당 사회복지시설 수 | -0.085 | -0.417*** | 0.249 | 4.173 |
| 노인1인가구 비율 | 0.117 | -0.698 | 0.222 | -0.152 |
| 행정구역면적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 0.081* | 0.128** | -0.014 | -0.150 |
|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5km) | 0.284* | 1.120*** | 0.074 | -0.157 |
| 상수 | 8.241*** | 8.777*** | 7.7201*** | 8.592*** |
| Number of obs | 162 | 30 | 55 | 77 |
| Adjusted R2 | 0.129 | 0.467 | 0.000 | 0.011 |

* p 〈 0.10, ** p 〈 0.05, *** p 〈 0.01

<표 5-20>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개인 만족도): 복지

| 종속변수 = 복지 영역 만족도 | | | | | | |
|---|---|---|---|---|---|---|
| 구분 | |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 | | Coef. | Coef. | Coef. | Coef. |
| 2수준 (지역 수준) | 인구(ln) | | -0.165*** | -0.201*** | -0.110 | -0.205** |
| | 행정구역면적당 사회복지시설 수 | | -0.122 | -0.416*** | 0.274 | 4.280 |
| | 노인1인가구 비율 | | 0.086 | -0.650 | 0.144 | -0.092 |
| | 행정구역면적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 | 0.100** | 0.133*** | 0.002 | -0.114 |
| |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5km) | | 0.278* | 1.135*** | 0.071 | -0.199 |
| 1수준 (개인 수준) | 성별 (ref=남성) | | 0.035 | 0.132* | -0.031 | 0.030 |
| | 연령 | | 0.017** | 0.012 | 0.008 | 0.029** |
| | 연령 제곱 | | 0.000 | 0.000 | 0.000 | 0.000 |
| | 학력 (ref=고등학교 이하) | | -0.072* | 0.095 | -0.107** | -0.165** |
| | 직업 (ref=농림어업) | 자영업 | 0.315*** | 0.412* | 0.408*** | 0.292*** |
| | | 사무·관리직 | 0.677*** | 0.861** | 0.613*** | 0.855*** |
| | | 생산·기능·노무직 | 0.236*** | 0.528** | 0.240* | 0.132 |
| | | 그 외 | 0.286*** | 0.485** | 0.299** | 0.257*** |
| | 가구 소득 (ref=1,500만원 미만) | 1,500-3,500만원 | -0.053 | -0.194 | -0.087 | -0.003 |
| | | 3,500-5,000만원 | -0.046 | -0.125 | -0.099 | 0.009 |
| | | 5,000-8,000만원 | -0.070 | -0.163 | -0.055 | -0.098 |
| | | 8,000만원 이상 | -0.034 | -0.144 | -0.046 | 0.041 |
| | 가구원 수 | | -0.035** | -0.032 | -0.036 | -0.027 |
| | 사회적 관계 | | 0.203*** | 0.118*** | 0.188*** | 0.289*** |
| | 공동체 가치 인식 | | 0.020 | -0.014 | 0.026 | 0.030 |
| | 사군 거주기간 | | -0.002** | 0.002 | -0.004* | -0.002 |
| | 기초지자체 신뢰 | | 0.169*** | 0.177*** | 0.148*** | 0.179*** |
| | 광역지자체 신뢰 | | 0.036*** | 0.044 | 0.047*** | 0.022 |
| | 중앙정부 신뢰 | | 0.014 | 0.023 | 0.014 | 0.015 |
| | 지역기관 신뢰 | | 0.283*** | 0.295*** | 0.280*** | 0.275*** |
| | 기초지자체 청렴 인식 | | 0.095*** | 0.074** | 0.125*** | 0.062*** |
| 상수 | | | 1.843*** | 2.766** | 1.542 | 1.705** |
| Number of obs | | | 12,570 | 3,098 | 5,278 | 4,194 |
| var(_cons) | | | 0.041*** | 0.046 | 0.032** | 0.010 |
| var(Residual) | | | 3.931*** | 3.703*** | 3.728*** | 4.243*** |

* p 〈 0.10, ** p 〈 0.05, *** p 〈 0.01

### 2) 전반적 만족도 영향요인: 지역생활 만족, 행복

전반적 주관적 삶의 질로서 지역생활 만족과 행복에 미치는 지역 여건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 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과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모형 선택을 위해서는 각 영역 모형에서 영향요인으로 고려되었던 객관적 삶의 질 여건 변수들을 투입하되 분산팽창계수(VIF) 10 이상을 기준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일으키는 변수를 제외했다. p값이 0.1 미만인 경우 추가하고 0.3 초과인 경우 제거하는 전진단계적선택법(Forward Selection)을 통해 분석했다.

지역생활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5-21), 수도권 도시 유형의 경우 전국지방선거투표율(+방향)만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노후주택 비율과 하수도보급률은 음(-)의 영향요인으로, 녹지율, 행정구역대비 공원면적비, 전국지방선거투표율, 인구 십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 수,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은 양(+)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농촌 유형의 경우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생활 만족에 대해 만족도가 낮았고, 하수도보급률과 전국지방선거투표율,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5-22)에서도 수도권 도시 유형의 경우 전국지방선거투표율(+방향)만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녹지율이 높을수록, 교원1인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초등학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이 낮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았다. 농촌 유형은 전국지방선거투표율과 교원1인당 학생수가 행복에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 지역생활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

| 종속변수=지역생활만족 | | | 사군 점수 | 개인 응답 만족도 | | | |
|---|---|---|---|---|---|---|---|
| 구분 | | | 전체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2수준 (지역 수준) | 노후주택 비율 | | -0.740*** | -0.651** | 0.877 | -1.026* | -0.704* |
| | 하수도보급률 | | 0.367** | 0.373** | 0.332 | -1.252** | 0.556** |
| | 사업체수 증가율 | | 0.019** | 0.020** | 0.023 | 0.020* | 0.013 |
| | 행정구역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 -0.002** | -0.001** | 0.000 | -0.001 | -0.002 |
| | 녹지율 | | 0.342* | 0.324* | 0.192 | 0.633** | 0.330 |
| | 행정구역대비 공원면적비 | | 0.031*** | 0.027*** | 0.000 | 0.033*** | 0.169 |
| | 전국지방선거투표율 | | 2.046*** | 1.885*** | 3.102* | 1.523** | 1.910** |
| | 인구십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 수 | | 0.005** | 0.004* | -0.040 | -0.005 | 0.004 |
| |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5km) | | 0.228** | 0.233** | 0.022 | 0.337** | 0.369** |
| 1수준 (개인 수준) | 성별 (ref=남성) | | | 0.077** | 0.168*** | 0.069 | -0.009 |
| | 연령 | | | -0.004 | -0.027 | -0.005 | 0.024** |
| | 연령 제곱 | | | 0.000 | 0.000* | 0.000 | 0.000 |
| | 학력 (ref=고등학교 이하) | | | -0.095** | -0.037 | -0.079 | -0.179** |
| | 직업 (ref=농림어업) | 자영업 | | 0.006 | -0.179 | 0.000 | 0.104 |
| | | 사무·관리직 | | 0.102 | 0.001 | 0.151 | -0.091 |
| | | 생산·기능노무직 | | -0.012 | -0.184 | -0.054 | 0.153 |
| | | 그 외 | | 0.058 | -0.134 | 0.068 | 0.100 |
| | 가구 소득 (ref=1,500만원 미만) | 1,500-3,500만원 | | 0.167*** | 0.093 | 0.139** | 0.232*** |
| | | 3,500-5,000만원 | | 0.337*** | 0.188* | 0.347*** | 0.445*** |
| | | 5,000-8,000만원 | | 0.498*** | 0.498*** | 0.468*** | 0.504*** |
| | | 8,000만원 이상 | | 0.665*** | 0.609*** | 0.604*** | 0.886*** |
| | 가구원 수 | | | -0.004 | -0.024 | 0.020 | -0.047* |
| | 사회적 관계 | | | 0.202*** | 0.172*** | 0.222*** | 0.204*** |
| | 공동체 가치 인식 | | | 0.039*** | 0.016 | 0.048*** | 0.043** |
| | 사군 거주기간 | | | 0.001 | 0.002 | 0.001 | 0.000 |
| | 기초지자체 신뢰 | | | 0.196*** | 0.188*** | 0.190*** | 0.205*** |
| | 광역지자체 신뢰 | | | 0.038*** | 0.042** | 0.041*** | 0.031** |
| | 중앙정부 신뢰 | | | 0.009 | 0.002 | 0.017 | 0.009 |
| | 지역기관 신뢰 | | | 0.252*** | 0.278*** | 0.258*** | 0.232*** |
| | 기초지자체 청렴 인식 | | | 0.073*** | 0.071*** | 0.059*** | 0.086*** |
| 상수 | | | 4.783*** | -0.402 | 0.352 | 0.995 | -1.197* |
| Number of obs | | | 162 | 13,481 | 3,439 | 5,658 | 4,384 |
| var(_cons) | | | | 0.009** | 5.02e-20 | 0.009 | 0.006 |
| var(Residual) | | | | 3.140*** | 3.008*** | 3.094*** | 3.248*** |
| Adjusted R2 | | | 0.297 | | | | |

* p 〈 0.10, ** p 〈 0.05, *** p 〈 0.01

<표 5-22> 행복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

| 종속변수=행복 | | | 시·군점수 | 개인 응답 만족도 | | | |
|---|---|---|---|---|---|---|---|
| 구분 | | | 전체 | 전체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 농촌 |
| 2수준 (지역 수준) | 도로포장율 | | 0.582* | 0.507 | 0.961 | 0.594 | 0.634 |
| |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 | 0.126* | 0.130* | 0.072 | 0.161 | 0.102 |
| | 녹지율 | | 0.356** | 0.323** | 0.154 | 0.615*** | 0.468 |
| | 전국지방선거투표율 | | 1.543*** | 1.431*** | 2.714** | 0.423 | 1.440** |
| | 초등학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1.5km) | | -0.524*** | -0.554*** | -0.376 | -1.338*** | -0.288 |
| | 교원1인당 학생수 | | 0.271** | 0.270** | 0.038 | 0.271* | 0.387*** |
| 1수준 (개인 수준) | 성별 (ref=남성) | | | 0.348*** | 0.382*** | 0.403*** | 0.258*** |
| | 연령 | | | -0.038*** | -0.027* | -0.039*** | -0.043*** |
| | 연령 제곱 | | | 0.000*** | 0.000 | 0.000*** | 0.000*** |
| | 학력 (ref=고등학교 이하) | | | 0.281*** | 0.289*** | 0.186*** | 0.429*** |
| | 직업 (ref=농림어업) | 자영업 | | -0.217*** | -0.255 | -0.227* | -0.020 |
| | | 사무·관리직 | | -0.117 | 0.307 | -0.238 | -0.315 |
| | | 생산·기능·노무직 | | -0.045 | -0.078 | 0.052 | -0.060 |
| | | 그 외 | | 0.074 | 0.131 | 0.129 | -0.014 |
| | 가구 소득 (ref=1,500만원 미만) | 1,500-3,500만원 | | 0.255*** | 0.149 | 0.120 | 0.405*** |
| | | 3,500-5,000만원 | | 0.549*** | 0.402*** | 0.565*** | 0.524*** |
| | | 5,000-8,000만원 | | 0.746*** | 0.570*** | 0.834*** | 0.598*** |
| | | 8,000만원 이상 | | 0.956*** | 0.781*** | 0.933*** | 1.096*** |
| | 가구원 수 | | | 0.014 | -0.026 | 0.030** | -0.003 |
| | 사회적 관계 | | | 0.202*** | 0.184*** | 0.224*** | 0.192*** |
| | 공동체 가치 인식 | | | 0.063*** | 0.074*** | 0.050*** | 0.070*** |
| | 사군 거주기간 | | | -0.004*** | -0.004 | -0.003 | -0.003 |
| | 기초지자체 신뢰 | | | 0.118*** | 0.123*** | 0.093*** | 0.143*** |
| | 광역지자체 신뢰 | | | 0.027*** | 0.009 | 0.029 | 0.034** |
| | 중앙정부 신뢰 | | | 0.073*** | 0.076*** | 0.089*** | 0.056*** |
| | 지역기관 신뢰 | | | 0.099*** | 0.092*** | 0.135*** | 0.069*** |
| | 기초지자체 청렴 인식 | | | 0.062*** | 0.064** | 0.059** | 0.061*** |
| 상수 | | | 2.8894*** | 1.420** | 0.511 | 2.180** | 1.277 |
| Number of obs | | | 162 | 13,408 | 3,430 | 5,631 | 4,347 |
| var(_cons) | | | | 0.006 | 8.83e-18 | 1.91e-13 | 0.008 |
| var(Residual) | | | | 4.512*** | 4.207*** | 4.397*** | 4.814*** |
| Adjusted R2 | | | 0.180 | | | | |

* p 〈 0.10, ** p 〈 0.05, *** p 〈 0.01

# 제6장 결론

##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정주공간 유형 간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한 결과,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여 처리그룹에 대한 평균처리효과(ATT)를 비교한 경우와 시·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시·군 점수)를 비교한 경우 모두 농촌 주민의 행복감이 수도권 도시나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더 높다. 도시 유형 간 비교할 때는 수도권 도시 주민의 행복감이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더 낮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에서는 분석방법에 따라 농촌(ATT) 또는 수도권 도시(시·군 점수) 주민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비수도권 도시는 두 방법 모두 만족 수준이 가장 낮다. 그러나 지역생활 만족의 경우 모든 유형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주관적 삶의 질을 정주공간 유형 간 비교한 패턴을 도출한 결과, 크게 보면 수도권 도시에서 상대적 우수성을 보이는 영역과 농촌에서 상대적 우수성을 보이는 영역으로 구분된다. 비수도권 도시가 상대적 강점을 갖는 영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분석 방법에 따라 유형 간 순서나 차이의 유의성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기초생활환경, 의료,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수도권 도시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높다. 이 중 기초생활환경과 의료 영역은 농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경, 공동체, 복지 영역에서는 농촌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높고, 이 중 환경, 공동체 영역은 수도권 도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자리·소득 영역은 시·군 점수를 비교한 경우 수도권 도시에서 가장 높지만, 처리효과(ATT)를 비교한 경우에는 농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안전 영역은 시·군 점수를 비교한 경우 세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처리효과(ATT)를 비교해보면 농촌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교육 영역은 시·군 점수 비교에서는 수도권 도시가 비수도권 도시나 농촌보다 더 높은 수준이나, 처리효과(ATT)를 비교하면 세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

전반적으로 비수도권 도시는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낮은 유형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도시가 우수성을 보이는 영역이 나타나지 않고, 일자리·소득, 문화·여가, 안전 등 영역에서는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낮다. 특히 일자리·소득 영역에서는 분석 방법과 관계 없이 일관되게 수도권 도시, 농촌과의 비교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주민들의 주관적 삶의 질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삶의 질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의 정주여건 요인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다. 각 정주공간 유형별 모형을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공간 유형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시·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를 종속변수로 시·군 수준에서 분석한 다중회귀모형의 분석 결과와 설문조사 응답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다수준 분석한 위계선형모형의 분석 결과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여기에서는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요약하였다(공동체 영역은 더 다양한 영향요인이 확인된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 기준).

기초생활환경 영역의 경우, 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빈집 비율, 고속철도 접근성, 고속도로IC 접근성, 도로포장률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비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고속도로IC 접근성만이 유의하다. 농촌 유형에서는 빈집 비율과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고속도로IC 접근성이 영향을 미친다.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에서는 고속도로IC 접근성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도권 도시에서는 음(-)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비수도권 도시나 농촌에서는 높은 고속도로 접근성이 중요하지만, 수도권

에서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오히려 혼잡 등의 이유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 유형의 경우 상·하수도 보급률과 같은 기초적 생활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에서 주관적 삶의 질이 더 높다.

일자리·소득 영역의 경우, 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인구당 사업체종사자 수, 사업체 수 증가율, 지식기반산업 집적도가 양(+)의 관계, 상용근로자 비율이 음(-)의 관계를 보여 전반적인 고용·경제 상황과 함께 고용의 질적 측면과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정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난다. 비수도권 도시 유형은 고용률, 사업체 수 증가율과 양(+)의 관계를 보여 지역의 고용과 경제활동 상황이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에 중요하게 나타난다. 농촌 유형은 인구당 사업체종사자 수와 양(+)의 관계, 1인당 지방소득세와 음(-)의 관계를 보여 지역의 소득 수준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환경 영역의 경우, 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행정구역 대비 공원면적 비율과 녹지율이 양(+)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비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그 두 요인(양(+)의 관계)과 함께 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음(-)의 영향을 미친다. 농촌 유형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주민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친다. 농촌에 비해 자연녹지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 유형에서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공원이나 도시지역(용도지역) 중 녹지지역 등 녹지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낸다. 농촌의 경우 이러한 요인보다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요인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동체 영역의 경우, 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지역의 인구규모(음(-)의 관계) 외에 다른 영향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농촌 유형에서는 1인가구 비율과 독거노인가구 비율이 주관적 삶의 질에 음(-)의 영향을 보인다. 비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농촌 유형과 마찬가지로 독거노인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또한 자살률이 양(+)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인구 대비 지표의 특성상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 영역의 경우, 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이 높고 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높다. 중심도시의 탁월성 중 하나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러한 도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환경은 중요도가 높다. 농촌 유형에서는 수도권 도시 유형과 마찬가지로 응급의료시설 접근성과 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유형 중 유일하게 종합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다. 농촌지역의 경우 의료 환경이 열악함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비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지역 인구규모의 양(+)의 영향만 확인된다.

안전 영역의 경우, 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경찰서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다. 치안서비스는 사고와 범죄 등에 대한 안전감이 낮은 중심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유형에서는 동일하게 인구규모가 증가할수록, 인구십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 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낮다.

교육 영역의 경우, 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인구규모의 음(-)의 효과 외에 유의한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비수도권 도시 유형의 경우 초등학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이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지만, 행정구역면적당 학교 수는 음(-)의 영향을 미친다. 농촌 유형에서는 어린이집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이 높을수록, 교원1인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다. 농촌지역은 학령인구가 부족하여 학교가 통폐합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교원당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서 오히려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여가 영역의 경우, 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높다.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고품질의 문화·여가서비스 역시 대도시가 갖는 탁월성으로, 중심도시 주민들에게 문화·여가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농촌 유형의 경우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과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이 긍정적 영향을 나타낸다. 농촌의 경우 수도권 도시와는 달리 문화·여가서비스 향유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 대비 마을체육시설 면적비율도 양(+)의 요인으로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마을체육시설이 충분히 조성되면 주관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반면 행정구역 면적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음(-)의 영향을 보인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종종 문화기반시설이 외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비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인구규모의 양(+)의 영향만 확인된다.

복지 영역의 경우, 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행정구역면적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와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이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행정구역면적당 사회복지시설 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은 낮아지는데, 이는 사회복지시설에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촌 유형의 경우 인구규모의 음(-)의 영향만 나타나고, 비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유의한 영향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정주공간 유형별로 영향요인을 도출한 결과에서는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부족한 자원과 관련하여 지역 여건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름을 확인하였다.

## 제2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비도시적 공간이 전 지구적 스케일의 도시화 과정에 대체로 통합되어 도시적 세계의 바깥 공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Brenner and Schmid, 2014: 751)는 행성적 도시화론자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보듯 도시는 계속 확장해 나가고 지역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소멸 이슈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행성적 도시화론자들은 더 이상 도시가 영역적으로 경계지어진 도시(city)로서 존재하지 않고 전 지구적 범위를 도시적(urban) 공간으로 통합해가고 있으며 그에 수반해 도시와 농촌이라는 인식론도 불안정해졌다고 주장한다.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과거에 비해 불명확해진 측면은 인정하더라도, 행성적 도시화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농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이 연구는 그러한 주장과는 다른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여러 삶의 영역 면에서 도시에서 누리는 정주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공동체, 환경, 복지 영역에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높다. 지역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과 관련해서도 정주여건의 상대적 열악성에 비해 농촌 주민의 만족감이 도시 주민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도시화가 계속 되고 메가시티 등 거대도시를 지향하며 확장해가는 추세 속에서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기회와 각종 이점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연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적 가치, 즉 농촌적 맥락에서 깊이 향유할 수 있는 삶의 질 가치 역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환경, 공동체, 복지 등 영역에서 확인된 삶의 질 측면의 우수성은 기존에 상식적으로 그러할 것으로 여겼거나 일부 지역의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의 분석, 또는 만족도의 단순 비교를 통해 다소 불명확하게 보고되었던 결과를 전국의 전 시·군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와 보다 정밀한 비교 분석 방법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향적으로 증가해온 귀농·귀촌의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2020년에 귀농·귀촌한 인구는 약 49.5만 명으로 집계되는데,[36] 최근 수년간 매년 45~50만 명 규모로 귀농·귀촌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36) 2020년 기준, 도시에서 농촌으로 804,953명, 농촌에서 도시로 761,749명이 이동하여 농촌으로의 순유입은 43,204명으로 집계되었다(송미령 외, 2021).

(송미령 외, 2021). 인구 감소와 경제적 쇠퇴로 고전하고 있는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서울과 대도시를 벗어나 지역에서 로컬의 가치를 추구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전 지구적 규모로 확장해가는 도시화 논리 속에서도 비록 다수의 지향은 아닐지라도 도시적 삶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덜 도시적인 공간을 선택·개척해가는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사회가 통과하고 있는 변화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시대에 돌입했다. 소비와 여가, 일상뿐만 아니라 일, 도시, 공동체 전반에 대한 인식과 선택에 있어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거시적 시각에서 라이프스타일 혁신은 전근대 사회의 전통 가치와 근대 사회의 물질주의가 탈산업 사회의 탈물질주의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물질주의가 신분, 경쟁, 조직, 노력을 강조한 반면, 탈물질주의에서는 개성, 다양성, 삶의 질, 사회적 가치가 중시된다. 탈물질주의 라이프스타일은 사회적·연대적 소비, 일상의 향유와 이웃과의 소통과 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직업과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데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모종린, 2020).

많은 연구자들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끊임 없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의미있는 발견을 찾는 것은 그것이 사회가 선택할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는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좋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추상적인 목표에 대해 지난 수십년 간 수많은 삶의 질 연구자와 정책결정자들이 삶의 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실현해 갈 수 있는지의 구체적 각론을 찾기 위해 고민해왔다. 행성적 도시화는 광범위한 정치·경제·사회 구조와 연결된 자본주의에 의한 공간 형성의 과정이므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도시적 공간은 확장을 계속하면서 도시가 아닌 공간의-행성적 도시화론에 따르면 도시화 수준이 낮은 공간의- 사람과 자원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것처럼 농촌에서 높은 수준의 주관적

삶의 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농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공간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도시의 확장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모든 공간이 상당 수준의 도시성을 띠는 공간이 된다면 다양한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도시적 삶 속에서도 환경, 공동체 등 가치와 관련해 어느 정도는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만, 가령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의 가치와 농촌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의 가치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결국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의 범위는 작아질 것이다. Sen은 역량, 즉 안녕이 개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유를 가리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성취할 자유라고도 표현했다.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자유가 가능하려면 그러한 가치가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 더구나 최근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기후 위기나 팬데믹 상황에서 농촌 지역이 강점을 갖는 환경, 공동체, 복지와 같은 가치는 행성적 지속가능성(planetary sustainability)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지향 가치를 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점점 더 고도화되는 도시화 속에서 농촌이 갖는 가치는 오히려 더욱 유효하다.

한편 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사이에 있는 비수도권 도시들은 삶의 질 관점에서 상당히 애매한 위치를 보인다.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도 비수도권 도시가 주관적 삶의 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성을 보이는 영역은 없었다. 비수도권 도시의 경우 점점 더 양극화되는 도시화 추세 속에서 사람들이 추구할만한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향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도시의 확장하는 힘의 반대 편에서 농촌 또는 비수도권 도시가 존속·발전해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만이 가진 고유성과 같이 보다 본질에 주목하여 사람들이 찾는 가치를 창출해나가야 함을 시사한다. 농촌은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환경, 공동체, 복지 등의 가치를 중심

으로 라이프스타일 시대에 농촌에서 가능한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나갈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도시들[37] 역시 각각의 지역에서 강점을 가지고 발현시킬 수 있는 가치와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현실화시켜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삶의 질 논의에 있어 개인 차원의 영향력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특히 개인의 유전적 및 심리적·정신적 속성과 같은 내적 요인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다.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관련한 요인, 그 중에서도 지역 수준의 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수치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여러 삶의 질 연구에서 개인의 타고난 특성과 더불어 개인이 속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공간적 요인들의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해 왔다. 또한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지역 수준의 설명력이나 지역 요인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전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간 요소에 대한 탐색은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사람들의 주관적 삶의 질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개인의 내적 차원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 연구는 기 추진된 설문조사 결과를 2차 자료로 사용한 분석자료의 한계에 따라 역량 접근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개인의 상태와 행위에 관한 세밀한 차원을 삶의 질 지표에 담지 못하고, 가용한 범위에서 주관적 삶의 질을 지역의 생활환경과 관련한 인지·평가라는 영역 만족도로 조작화했다. 개인의 경험이나 내면적 상태 등 안녕을 성취하기 위한 상태와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 지표를 포함하지 못하고 지역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안녕(삶의 질)을 측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정주공간을 유형화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그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같은 유형에 속

37) 비수도권 도시 유형이 주관적 삶의 질 측면에서 뚜렷한 강점이 없이 애매한 위치를 보였지만, 이 유형 내에서도 수도권·대도시 인접성, 인구규모 등에 따라 각 지역의 상황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 지역이라도 어느 정도는 차이가 존재하고,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된 지역이라도 얼마간은 유사성을 가질 수 있다. 같은 도시 또는 농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어 지역 간 상이성이 작지 않다. 실증분석을 위한 유형화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도시(시)-농촌(군)을 나누고 도시의 경우 수도권 입지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여 정주공간을 세 유형으로 구분했다. 유형을 더 세분하지 않은 것은 분석 방법상의 이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각 유형 내에서도 지역 간 이질성이 존재하며, 특히 같은 비수도권 도시라 하더라도 수도권 인접성이나 인구규모 등에 따라 지역 여건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수도권에 연접한 충청도와 가장 멀리 떨어진 전라도나 경상도의 여건은 크게 다르고, 그 내에서도 가령 인구 50만 명이 넘는 포항시와 10만 명 수준인 상주시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주공간 유형을 더 세분하거나 유형화를 달리하여 분석한다면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가 실시된 2018년에 대해 삶의 질을 분석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2019년과 2020년에는 표본 설계와 일부 설문문항, 조사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2018년도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단년도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한 횡단면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삶의 질 변화나 유지 추이를 파악하지 못하며, 삶의 질 영향요인을 밝힘에 있어서도 정주여건과 삶의 질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향후에 전국 단위에서 다시점에 대해 축적된 삶의 질 조사 자료를 통해 동태적 효과를 고려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강영웅(2020), “사회적 관계 요인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세대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10(4): 65-100.

강은택 · 홍석동 · 마강래(2015), “지역의 소득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 관계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33(2), 117-130.

고명철(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지역사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미국 스폴스시의 경험적 증거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 243-271.

고명철 · 최상옥(2012), “삶의 질(QoL) 연구의 행정학적 함의와 제언”, 「한국행정학보」, 46(4), 103-126.

고명철(2018),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 신뢰에 의한 지역사회 생활의 질(community QoL)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2): 119-46.

고명철(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7(2): 1-30.

구교준 · 김성배 · 윤종현(2012), “용인 가능한 지역 간 격차와 지역정책”,「한국행정학보」, 46(3): 173-92.

구교준 · 이희철 · 김지원 · 박차늠(2020), “주관적 행복과 객관적 삶의 질 차이의 지역분포 분석: 지역역량 (regional capability) 의 관점에서”, 「정부학연구」, 26(1): 161-82.

구교준 · 임재영 · 최슬기(2015),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연구」, 21(2): 95-130.

구교준 · 임재영 · 최슬기(2017),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서울: 집문당.

권오규 · 강은택 · 마강래(2019), “도시의 쇠퇴가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도시 규모의 차이를 중심으로”,「지역연구」, 35(2): 33-47.

김병섭 · 강혜진 · 김현정(2015a), “지방정부서비스가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주거영역 삶의 질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행정논총」, 53(3): 29-56.

김병섭 · 최성주 · 최은미(2015b), “국민행복, 삶의 질,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관계 연구”. 「한국행정학보」, 49(4): 97-122.

김선아 · 박성민(2014), “시민의 삶의 질 선행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3(4): 173-210.

김성윤 · 김용태 · 이상준(2015), “분위회귀모형을 이용한 고객만족도 요인의 영향력 비교”,「디지털융복합연구」, 13(6): 125-32.

김이수(2016),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 연구-공동체 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0(2): 157-82.

김현정(2017), 지역사회의 질이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형용(2010), “지역사회 건강불평등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44(2), pp.59-92.

네모토 마사쯔구(2013), “도 · 농 지역별 삶의 질 분석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전방향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10(1): 77-93.

류지아(2016), “행복에 대한 소득의 상대적 효과: 위계선형모형의 수준간 상호작용항을 사용한 분석”, 「한국사회학」, 50(1): 255-88.

목광수(2010), “역량 중심 접근법과 인정의 문제: 개발 윤리와의 관련 하에서 고찰”, 「철학」, 104: 215-39.

문경주(2019),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조건과 지역사회자본이 중고령층 정주의식에 미친 영향에서의 삶의 만족도와 지역정체성의 매개효과”, 「공공정책연구」, 35(2): 201-233.

모종린(2020), 「인문학,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 파주: 넥서스.

민인식 · 최필선(2010), 「STATA 고급 패널데이터분석」, 서울: 한국 STATA 학회.

박대식 · 마상진(2007),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농촌경제」, 30(4): 31-55.

박미성 · 안병일(2016), “식사규칙성이 성인 비만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성향점수 매칭기법을 중심으로”, 「농촌경제」, 39(3): 79-122.

박성복(2003), “삶의 질의 개념과 비교방법”,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3): 52-74.

박인권(2018),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지역균형발전-역량의 지역격차 분석”, 「공간과사회」, 28(2): 71-114.

박인권(2020), “‘부분’대 ‘전체’-사회적 약자와 전체 인구의 삶의 질 지역 격차의 비교”, 「지역연구」, 36(1): 17-36.

배민기 · 조택희(2016), “삶의 질 특성에 따른 지자체 유형화 및 정책방향: 충청북도를 사례로”, 「지방정부연구」, 20(3): 133-54.

서인석(2017), “지방행정서비스와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커뮤니티웰빙의 6 개 자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IDI 도시연구」, (12): 67-103.

서인석 · 기영화 · 우창빈(2015a), “지방정부 가치척도로서 주관적 삶의 질 증진과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의 관계-Kee 커뮤니티웰빙 모형의 6 자본요인을 적용하여”, 「한국행정연구」, 24(4): 29-66.

서인석 · 우창빈 · 기영화(2015b), “주관적 웰빙과 소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의

한계성 및 상대성 검증", 「지방행정연구」, 29(1): 127-152.
송건섭(2007), "지역수준별 주민복지와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1(3): 35-52.
송건섭 · 권용현(2008), "광역도시권의 [삶의 질]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4): 87-107.
송건섭 · 김영오 · 권용현(2009), "삶의 질에 관한 평가지표의 구성과 적용", 「지방정부연구」, 12(4): 225-47.
송미령·성주인·심재헌·한이철·민경찬(2021),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신상수 · 우경숙 · 신영전(2015), "보건의료분야 다수준 분석 연구의 체계적 문헌 고찰: 국내 연구동향과 비뚤림 위험 평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4): 157-189.
신상준(2017),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인천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연구」, (11), 285-316.
신희주(2017), "성향점수 매칭법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s) 을 이용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형태와 건강수준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46(1): 111-133.
안아림 · 마강래(2019), "지역의 소득수준이 계층인식 불일치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준거집단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35(2), 19-31.
이상록 · 백학영(2008), "한국사회 빈곤구조의 지역 편차 분석: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0(4), 205-230.
이승철(2011), "도시유형별 삶의 질 수준과 영향요인: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5(2): 97-119.
이윤경(2018), "삶의 질 영향요인 추세분석: 상향확산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4(2): 35-72.
이장영(2002),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생활만족도 비교", 「농촌사회」, 12(1): 89-110.
이장영(2013), "큰 도시와 시골 마을 주민의 스포츠 활동과 생활 만족도 비교", 「사회과학연구」, 25(2), 151-178.
이진향 · 오미옥(2014),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거제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8(3): 313-31.
이태종 · 이곤수 · 송건섭 · 이승철(2005), "광역생활권내 자치단체간 [삶의 질] 의 비교 평가",「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2): 211-29.
이희연 · 노승철(2012), 「고급통계분석론-이론과 실습-」, 경기도 파주: 법문사.
이희철 · 구교준(2019), "역량 중심의 국민행복지수: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정책분

석평가학회보」, 29(3): 115-40.

이희철 · 구교준 · 김지원 · 박차늠(2020), “대한민국 행복지도: 한국형 행복지수의 개발과 응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1), 25-50.

임보영 · 마강래(2015), “지역 내 준거집단과 비교한 경제적 격차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국토계획」, 50(3): 213-24.

임희섭(1996), “삶의 질(質)에 있어서의 현황과 과제: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1), 1005-1018.

정윤주 · 이상열(2018), “청소년 삶의 만족도 관련요인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9(5): 1215-25.

최말옥 · 문유석(2011), “부산지역주민의 행복감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5(1), 277-297.

최민호 · 강영웅 · 이승종(2019), “기초자치단체 삶의 질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커뮤니티 웰빙 모형의 적용”, 「지방정부연구」, 23(3):329-56.

최영출(2018), “소득수준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분석: 이항로짓분석의 활용”, 「한국자치행정학보」, 32(3): 1-19.

최영출(2019),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결합조건 탐색: 의사결정 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의 적용”, 「한국자치행정학보」, 33(1): 1-26.

최영출 · 이지혜(2013), “지역 주민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2): 21-37.

최영준(2017), “기존 경영자 관리인 (Dip) 제도의 회생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 「BOK 경제연구」, Bank of Korea WP, 34.

최예나 · 김이수(2015), “사회적 자본과 주민행복간 관계에 관한 연구: 공동체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4): 53-78.

최예나(2016), “전라북도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개인요인과 지역요인을 중심으로”,「한국자치행정학보」, 30(3): 291-313.

최준호(2001), “광역자치단체와 위성 기초자치단체의 [삶의 질] 에 대한 비교 연구: 대구광역시와 경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4): 133-50.

한준 · 강석훈 · 김석호 · 서은국 · 홍종호 · 이희길 · 박주언(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위한 분석틀”, 한국사회학회.

한준(2015), “한국인 삶의 질의 사회적 결정요인”, 「국정관리연구」, 10(2): 67-95.

허만형(2014), “지방정부의 삶의 질 영향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18(3): 231-54.

Ackerly, Brooke A.(2000), *Political Theory and Feminist Social Critic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lkire, S.(2005), "Why the capability approach?",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1), 115-135.

Anand, P., Hunter, G., Carteret, I., Dowding, K., Guala, F., and Hees, M.V. (2009), "The development of capability Indicator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10(1): 125-52.

Aslam, A., Corrado, L.(2012), "The geography of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2(3): 627-49.

Ballas, D., Tranmer, M.(2012), "Happy people or happy places? A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to the analysis of happiness and well-being",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35(1): 70-102.

Ballas, D.(2013), "What makes a 'happy city'?", *Cities*, 32, S39-S50.

Bernini, C., and Tampieri, A.(2019), "Happiness in Italian cities.", *Regional Studies,* 53(11): 1614-24.

Berry, B. J., and Okulicz-Kozaryn, A.(2011), "An urban-rural happiness gradient", *Urban geography*, 32(6), 871-883.

Bettencourt, L.M., Lobo, J., Helbing, D., Kühnert, C., and West, G.B.(2007), "Growth, innovation, scaling, and the pace of life in citi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4(17): 7301-6.

Biggeri, L., Laureti, T., Secondi, L.(2012),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in Italy: Assessing and selecting indicators for local policy making", *Statistica Applicata-Itali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24(2): 125-52.

Binder, M., Coad, A.(2011), "From Average Joe's happiness to Miserable Jane and Cheerful John: using quantile regressions to analyze the full subjective well-being distribu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9(3): 275-90.

Bognar, G.(2005), "The concept of quality of life", *Social theory and practice*, 31(4): 561-580.

Burger, M. J., Morrison, P. S., Hendriks, M., and Hoogerbrugge, M. M.(2020), "Urban–rural happiness differentials across the world", *World happiness report*, 2020, 66-93.

Brager, G. S., De Dear, R. J.(2003), "Historical and cultural influences on comfort expectations. Buildings", *culture and environment: Informing local and global practices*, 177-201.

Brenner, N., Schmid, C.(2014), “The ‘urban age’in ques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8(3): 731-755.

Brereton, F. J., Clinch, P., and Ferreira, S.(2008), “Happiness, geography and the environment”, *Ecological Economics*, 65(2): 386-396.

Brereton, F., Bullock, C., Clinch, J. P., and Scott, M.(2011), “Rural change and individual well-being: the case of Ireland and rural quality of life”,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8(2), 203-227.

Burger, M. J., Morrison, P. S., Hendriks, M., and Hoogerbrugge, M. M.(2020). “Urban - rural happiness differentials across the world”, *World happiness report,* 2020: 66-93.

Cummins, R. A.(2000), “Objectiv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 interactive mod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52(1): 55-72.

Cummins, R.A., Nistico, H.(2002), “Maintaining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positive cognitive bia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1): 37-69.

Dardha, E., and Rogge, N.(2020), “How’s Life in Your Region? Measuring Regional Material Living Conditions, Quality of Lif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OECD Countries Using a Robust, Conditional Benefit-of-the-Doubt Mod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1(3), 1015-1073.

Dasgupta, P., and Weale, M.(1992), “On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World development*, 20(1), 119-131.

Davis, E. E., and Fine-Davis, M.(1991), “Social indicators of living conditions in Ireland with European compariso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5(2), 103-365.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Diener, E.(2006), “Guidelines for national indicators of subjective well-being and ill-being”, *ARQOL*, 1(2), 151 - 157.

Diener, E., Suh, E.(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1), 189-216.

Diener, E., Suh, E. M., Lucas, R. E., and Smith, H. L.(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

Duranton G., and Puga D.(2004), “Micro-foundations of urban agglomeration economies”, *In: Henderson JV and Thisse J-F (eds) Handbook of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Vol. 4. Amsterdam: Elsevier*, 2063 - 2117.

Ferris, A.(2006),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the quality of life”,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Vol 1. Springer. The Netherlands, 117 – 123.

Fischer, C. S.(1973), “Urban malaise”, *Social forces*, 52(2): 221-235.

Fuguitt, G. V., Brown, D. L.(1990), “Residential preferences and population redistribution: 1972 – 1988”, *Demography*, 27(4), 589-600.

Galloway, S.(2006), “Cultural participation and individual quality of life: A review of research finding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3), 323-342.

Gasper, D(2010), “Understanding the diversity of conceptions of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9(3): 351-360.

Gerdtham, U.G., Johannesson, M.(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Health, and Socio-economic Factors: Results Based on Swedish Microdata”, *Journal of Socio-Economics,* 30(6): 553-57. Web.

Gilbert, A., Colley K., and Roberts, D.(2016), “Are rural residents happier? A quantitative analysis of subjective wellbeing in Scotland”, *Journal of Rural Studies*, 44: 37-45.

Glaeser, E.L., Kolko, J., Saiz, A.(2001), “Consumer cit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1): 27-50.

Goerlich, F.J., Reig, E.(2021), “Quality of life ranking of Spanish cities: A non-compensatory approach.”, *Cities*, 10: 102979.

Han, C.(2015). “Explain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urban and rural Chinese: Income, personal concerns, and societal evalu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49: 179-90.

Hand, C.(2020), “Spatial influences on domains of life satisfaction in the UK” *Regional Studies*, 54(6): 802-13.

Heck, R., and Thomas, S.(2009), *An introduction to multilevel modeling techniques*. 2nd ed. New York, NY: Routledge.

Helliwell, J. F. and Putnam, R. D.(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35-1446.

Hollar, D.(2003), “A holistic theoretical model for examining welfare reform: Quality of lif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3(1), 90-104.

Hudson, J.(2006), “Institutional trust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the EU”, *Kyklos,* 59(1): 43 – 62.

Kalyuzhnova, Y., Kambhampati, U.(2008), “The Determinants of Individual Happiness in Kazakhstan”, *Economic Systems,* 32(3): 285-99.

Knight, J., Gunatilaka, R.(2010), “The Rural-Urban Divide in China: Income but Not Happiness?”,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Human Development,* 46(3): 506-34.

Koenker, R.(2005), *Quantile regressio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derbogen, F., Kirsch, P., Haddad, L., Streit, F., Tost, H., Schuch, P., ... and Meyer-Lindenberg, A.(2011), “City living and urban upbringing affect neural social stress processing in humans”, *Nature*, 474(7352), 498-501.

Lenzi, C., Perucca, G.(2021), “Not too close, not too far: Urbanisation and life satisfaction along the urban hierarchy”, *Urban Studies*, 58(13), 2742-2757.

Luca, S. D.(2021), “Preferring or Needing Cities? (Evolutionary) psychology, utility and life satisfaction of urban living”, *City, Culture and Society*, 24, 100375.

Lykken, D., and Tellegen, A.(1996), “Happiness is a stochastic phenomenon”, *Psychological Science*, 7, 186-189.

Lyubomirsky, Sheldon, Schkrde.(2005),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2): 111-131.

Migheli, M.(2017), “Size of town, level of educa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Western Europe”,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108(2):190-204.

Millward, H., & Spinney, J.(2013), “Urban - rural variation in satisfaction with life: demographic, health, and geographic predictors in Halifax, Canada”,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8(3), 279-297.

Morrison, P. S.(2011), “Local expression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New Zealand experience”, *Regional studies*, 45(8), 1039-1058.

Morrison, P. S., and Weckroth, M.(2018), “Human values, subjective well-being and the metropolitan region”, *Regional Studies*, 52(3), 325-337.

Muffels, R., and Headey, B.(2013). “Capabilities and choices: Do they make Sen’se for understanding objective and subjective well-being? An empirical test of Sen’s capability framework on German and British panel dat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0(3), 1159-1185.

Nezlek, J. B.(2008), “An introduction to multilevel modeling for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2): 842-860.

Noll, H. H.(2004),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Background, achievements and current trends. In Advances in sociological knowledge (pp. 151-181).

Nussbaum, M.(2007), “Human rights and human capabilities”,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20, 21-24.

OECD(2017), *How's Life? 2017: Measureing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OECD(2018), *Beyond GDP: Measuring What Counts for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Paris: OECD Publishing.

Oswald, A. J., Wu, S.(2011), "Well-being across Americ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3(4): 1118-34.

Peiró, A.(2006), "Happiness, satisfaction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Some international evidence", *Journal of Socio-Economics*, 35(2): 348-65.

Piper, A. T.(2015), "Europe's capital cities and the happiness penalty: an investigation using the European Social Surve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3(1): 103-126.

Pittau, M.G., Zelli, R., Gelman, A.(2010), "Economic disparities and life satisfaction in European regions", *Social Indicator Research*, 96: 339-61.

Robeyns, I. (2005), "The capability approach: a theoretical surve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1), 93-117.

Robeyns, I. (2006), "The capability approach in practic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4(3), 351-376.

Requena, F.(2016), "Rural–urban living and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s factors in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8(2), 693-708.

Sen, A.(1985), *Commodities and Capabilities*. Amsterdam: North-Holland.

Sen, A.(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Knopf.

Shucksmith, M., Cameron, S., Merridew, T., Pichler, F.(2009), "Urban-Rural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across the European Union", *Regional Studies*: *Placing the Rural in Regional Development,* 43(10): 1275-89.

Simmel, G.(1971), "The Metropolis and Mental Life", *On Individuality and Social Forms: Selected Writing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24-39. (Originally published as "Die Großstädte und das Geistesleben" ("The Metropolis and Mental Life"), in *Die Großstadt. Jahrbuch der Gehe-Stiftung (The Metropolis. Yearbook of the Gehe Foundation)*, 9 (1903))

Soja EW.(2014), *Regional urbanization and the end of the metropolis area. In: Brenner N (ed.) Implosions/Explosions: Towards a Study of Planetary Urbanization,* Berlin: Jovis Verlag, 276–287.

Sørensen, J. F.(2014), "Rural–urban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Evidence from the European Union", *Regional Studies*, 48(9): 1451-66.

Sung H., Phillips R.(2016), *Social Factors and Community Well-Being,* German: Springer.

Stewart, F.(2013), "Nussbaum on the capabilities approach",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14(1): 156-160.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and Jean-Paul Fitoussi.(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Szalai, A.(1980), "The meaning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In: Szalai, A., Andrews, F. (Eds.), *The Quality of Life*. Sage Beverly Hills, CA, 7–24.

Tonon, G. H.(2020), The Importance of Teaching Quality of Life Theory and Methodology in Social Sciences Programs. *In Teaching Quality of Life in Different Domains* (p. 1-14). Springer, Cham.

Vallentyne, P.(2005), "Capabilities vs. Opportunities for well-being.",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3: 359-71.

Van Kamp, I., Leidelmeijer, K., Marsman, G., and De Hollander, A.(2003), "Urban environmental quality and human well-being: Towards a conceptual framework and demarcation of concepts; a literature study",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65(1-2), 5-18.

Van Praag, B. M., Baarsma, B. E.(2005), "Using happiness surveys to value intangibles: The case of airport noise", *The Economic Journal*, 115(500), 224-246.

Veenhoven, R.(2000), "The four qualities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1-39.

Verheij, R., Mass, J., and Groenewegen. P.(2008), "Urban–rural health differences and the availability of green space",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5, pp.307–316.

Welsch, H. (2009), "Implications of happiness research for environmental economics", *Ecological Economics*, 68(11), 2735-2742.

Wells, T. (2012),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www.iep.utm.edu/sen-cap, 검색일: 2021.12.15.)

WHOQoL Group(1994),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the WHOQOL)",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ternational perspectives,* 41-57. Springer, Berlin, Heidelberg.

Widgery, R. N.(1982),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urban life: A predictive model",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1): 37-48.

Yap, Mandy, Yu, Eunice(2016), "Operationalising the Capability Approach: Developing Culturally Relevant Indicators of Indigenous Wellbeing – an Australian Example", *Oxford Development Studies* 44.3: 315-31.

# 부록1. 역량 접근법에 기반한 선행연구의 지표체계

| 구분 | OECD BLI (2020) | | Anand et al. (2009) | | Muffels & Headez (2013) | | 박인권 (2020) * 전체 인구 대상 | | 박인권 (2018) * 사회적 약자 대상 | | 이희철 외 (2020) | | 구교준 외 (2016) | | 구교준 외 (2012) | |
|---|---|---|---|---|---|---|---|---|---|---|---|---|---|---|---|---|
| 소득·부 | ● | · 가계소득<br>· 가계자산<br>· 하위20% 대비 상위20% 가구소득 비율 | | | | | ● | · 평균 소득 | ● | · 상대적 빈곤율<br>· 절대적 빈곤율 | | | | | | |
| 일자리·경제활동·직업 | ● (일과 일자리 질) | · 고용률<br>· 성별 임금 차이<br>· 장시간근로자 비율(주 50시간 초과) | | | ● | [Functionings/Events]<br>· 훈련, 수습직을 통한 직업 선택 (훈련 참석 및 수습직, 실업·고용 각각) | ● | · 고용률 | ● | · 사회적 약자 고용<br>· 정규직 노동자 비율<br>· 저임금 노동자 비율 | ● (경제) | · 지역내총생산(1인당)<br>· 종사자 수(천명당)<br>· 사업체 수(천명당)<br>·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br>· 영세 자영업자 수(종사자 천명당) | | | ● | · 사업체 수<br>· 종사자 수 |
| 주거 | ● | · Housing affordability (주거비 지출 후 잔여 가처분소득의 비율)<br>· 과밀환경 거주가구 비율 | ● (신체적 건강) | · 적절한 주거지(현 거처의 적절성, 이주의 자유) | | | ● | · 평균 소득 대비 평균 주택가격 비율(PIR) | ● | · 공공임대주택 재고<br>· 저렴주택 가격-소득 비율 | | | | | | |

| 구분 | OECD BLI (2020) | | Anand et al. (2009) | | Muffels & Headez (2013) | | 박인권 (2020) * 전체 인구 대상 | | 박인권 (2018) * 사회적 약자 대상 | | 이희철 외 (2020) | | 구교준 외 (2016) | | 구교준 외 (2012) | |
|---|---|---|---|---|---|---|---|---|---|---|---|---|---|---|---|---|
| 건강 · 보건 | ● | · 기대수명<br>· 교육에 따른 기대수명 차이 | ● (생명/신체적 건강 ) | · 예상되는 수명<br>· 건강으로 인한 활동 제한<br>·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여부<br>· 적절한 영양(신선 육류 섭취) | ● | [stocks]<br>· 건강상 제약: 신체 · 정신장애(disability) 수준 보고<br>[Functionings/Events]<br>·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투자를 통한 라이프스타일 선택(time use): 활발한 스포츠, 운동 | ● | · 기대수명 | ● | · 저소득층 기대수명<br>· 빈곤층 주관적 건강평가 | ● | ·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br>· 의료기관 병상 수(천명당)<br>· 의료기관 의사 수(천명당)<br>· 건강생활 실천율<br>· 정신건강 증진 기관 수(십만명당) | ● | · 현재 건강상태<br>· 중증질환+만성질환 유무<br>· 질환 치료여부 | ● | · 의료병상 수<br>· 의사 수<br>·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수 |
| 교육 | ● (지식과 기량) | · 학생의 과학분야 기량<br>· 낮은 기량의 학생 비율(수학, 독해, 과학) | ● (감각·상상·사고/실천이성) | · 교육 수준<br>· 보통의 일상에서 상상력/이성의 사용<br>· 좋은 삶(good life)에 대한 주체적 정립<br>·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 계획<br>· 주체적 삶 영위<br>· 자신의 역할의 유용감(직장 외) | ● (인적 자본) | [stocks]<br>· ISVED 교육 수준 | ● | · 25세 이상 인구 교육연수 | ● | · 저학력자 비율<br>· 공교육 예산<br>· 국공립보육시설 | ● | · 학업성취도(기초학력 미달)<br>· 교원1인당 학생수<br>· 사설학원 수(천명당)<br>· 보육시설 수 (영유아 천명당)<br>· 학교 수(십만명당) | ● | · SKY대학 진학<br>· 영어 구사능력 | ● (사유) | · 대학 수<br>· 대학진학자 수 |

| 구분 | OECD BLI (2020) | | Anand et al. (2009) | | Muffels & Headez (2013) | | 박인권 (2020) * 전체 인구 대상 | | 박인권 (2018) * 사회적 약자 대상 | | 이희철 외 (2020) | | 구교준 외 (2016) | | 구교준 외 (2012) | |
|---|---|---|---|---|---|---|---|---|---|---|---|---|---|---|---|---|
| 안전 | ● | · 자살률(10만 명당)<br>· 성별 안전감 차이 | ● (신체적 무결성) | · 주간 홀로 보행 시 안전감<br>· 야간 홀로 보행 시 안전감<br>· 과거 폭력 경험(성폭력, 가정폭력 제외) / 미래 폭력 가능성<br>· 과거 성폭력 경험 / 미래 성폭력 가능성<br>· 과거 가정폭력 경험 / 미래 가정폭력 가능성 | | | (※ 사회적 약자 계층 해당 자료 구득 불가로 제외) | | ● (안전과 환경) | · 범죄율 | ● |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br>· CCVT 대수(천명당)<br>· 교통사고 및 화재<br>· 지역경찰관서 수(단위면적당)<br>·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 운영기관(십만명당) | ● | · 10만 명당 강력범죄 건수(상위 10%) | ● (신체 보전) | · 사고사망자 수<br>· 가해사망자 수 |
| 환경 | ● (환경의 질) | · 녹지공간 접근<br>· 실외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 | ● (다른 종에 대한 관심) | · 식물, 동물, 자연계에 대한 인정·가치 부여 | | | (※ 사회적 약자 계층 해당 자료 구득 불가로 제외) | | | · 미세먼지 농도<br>· 공원·녹지 면적 | ● | · 환경체감도<br>·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비율<br>· 산업폐수 방류량(천명당 1일)<br>· 생활폐기물 배출량(1인당)<br>· 미세먼지(PM 2.5) | ● | · 1인당 폐수발생량(상위 10%) | ● (자연 동화) | · 녹지 면적<br>· 도시공원 면적 |

| 구분 | OECD BLI (2020) | | Anand et al. (2009) | | Muffels & Headez (2013) | | 박인권 (2020) * 전체 인구 대상 | | 박인권 (2018) * 사회적 약자 대상 | | 이희철 외 (2020) | | 구교준 외 (2016) | | 구교준 외 (2012) | |
|---|---|---|---|---|---|---|---|---|---|---|---|---|---|---|---|---|
| 사회 관계 | ● | · 사회적 상호작용<br>· 사회적 지지의 결여 | ● (소속) | · 타인에 대한 인정·존중<br>· 휴가를 누림<br>· 친구·가족 간 교제(음료·식사 등)<br>· 타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br>· 최근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낌<br>· 과거의 차별 경험(인종, 성적 지향, 성별, 종교, 나이) / 미래의 차별 가능성 | ● (사회적 자본) | [stocks]<br>· bonding: 친척, 친구 contact 빈도<br>·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br>· bridging: 유니언, 협회 멤버십, 클럽<br>[Functionings/Events]<br>· 사회적 연결망 투자를 통한 사회적 선택: 친구 만남, 커뮤니티·사회 행사, 자원 활동에 보낸 시간 | ● | · 사회관계망 | ● | · 빈곤층 사회적 관계망<br>· 사회적 경제 조직 | ● (관계 및 사회 참여) | · 자살률(십만명당)<br>· 사회적기업 수(십만명당)<br>· 1인가구 비율(독거노인가구 제외)<br>· 독거노인가구 비율<br>· 가족관계 만족도 | ● | ·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 | |
| 시민 참여 · 정치 | ● (시민 참여) | · 유권자 투표율<br>· 정부 활동에 대한 발언권 없음(인지 수준) | ● (감각·상상·사고/자기 환경 통계) | · 정치적 견해 표현<br>· 종교의 자유<br>· 보통의 일상적 활동을 즐김<br>· 정치활동에 참여 가능성<br>·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재산권을 가짐(자가 소유)<br>· 과거 구직활동 시 차별 경험(인종, 성적 지향, 성별, 종교, 나이) / 미래 구직활동 시 차별 가능성<br>· 무영장 정지·수색 가능성 | | | ● (시민 참여) | · 사회활동 참여비율 | ● (시민 참여) | · 사회적약자 사회활동 참여<br>· 사회적약자 투표율<br>· 여성 지방 의원 비율 | | | ● (정치) | · 차별 경험 유무 (일자리 취업 시) | | |
| | | | | | | | ● (정치) | · 유권자 투표율 | | | | | | | | |

| 구분 | OECD BLI (2020) | Anand et al. (2009) | Muffels & Headez (2013) | 박인권 (2020) * 전체 인구 대상 | 박인권 (2018) * 사회적 약자 대상 | 이희철 외 (2020) | 구교준 외 (2016) | 구교준 외 (2012) |
|---|---|---|---|---|---|---|---|---|
| 문화·여가·유희 | ● · 일-생활 균형<br>· 주관적 안녕 | ● (유희) · 여가/취미 활동을 즐김 | ● (문화적 자본) [stocks]<br>· 종교(카테고리)<br>· 인생 목표: 이타주의(altruism), 일에서의 성공, 가족·친구·동반자, 소유주택 등을 감당(afford)할 수 있음의 중요성<br>· 위험 감수 용의(11척도)<br>[Functionings/Events]<br>· 문화 투자를 통한 문화적 선택: 문화행사에서 보낸 시간, 교회, 종교행사 참여시간 | ● · 여가활동 참여비율 | ● · 빈곤층 여가활동 참여비율<br>· 문화시설 이용 | ● · 여가활용 만족도<br>· 문화기반시설 수(십만명당)<br>· 체육 관련 여가시설 수(천명당)<br>·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노인 천명당)<br>· 도서관 수(십만명당) | ● · 여가만족도 | ● · 공공도서관 좌석 수<br>· 문화시설 수 |
| 주관적 안녕 및 그 외 | **주관적 웰빙**<br>· 삶에 대한 만족(LS)<br>·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감정·상태 (Negative affect balance)<br>**일-삶 균형**<br>· 휴식시간(여가·개인생활에 할당되는 시간)<br>· 성별 근로시간 차이 | **감정 / 신체적 무결성 / 자기환경 통제**<br>· 친구 사귐(일 외)<br>· 가족의 사랑·지지<br>· 감정의 표현<br>· 최근의 수면 감소<br>· 최근의 지속적 중압감<br>· 성적 만족<br>· 생식 관련 선택의 자유<br>· 일할 때 자신의 기술·재능 사용<br>·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의 유용감<br>· 직장 동료와의 관계<br>· 직장 동료의 존중받음 | [Functionings/Events]<br>· 이혼, 별거, 결혼, 동거, 조기퇴직, 비자발적 일 변동 등의 사건(t년, t-1년)<br>**일-여가 선택**<br>[Functionings/Events]<br>· 일-여가 선택 (실업·고용 각각, 희망근로시간-실제근로시간 차이(3시간 초과면 overworked or underworked) | | | 삶의 만족도<br>· 안녕지수(카카오 같이 가치) 중 만족도와 행복도 평균<br>※ 인지적 측면(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정서적 측면(긍정적 감정상태) | | |

## Abstract

# Comparison of Multifaceted Quality of Life by Settlement Type : Analysis of Capabilities Level and Influencing Factors



Kwon, Inhye
Department of Environment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Our society is experiencing urbanization which has been continuously advanced and increasingly becoming more gigantic. Urban life surely offers a variety of opportunities and benefits, but a highly agglomerated environment such as metropolitan cities has negative affects on people's quality of life (QoL) as well. While literature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ization and QoL show somewhat mixed results, studies examining Korean residents' QoL are restricted by the limitations of data regarding certain areas, and limitations of analysis methods using ANOVA or dummy variables of determinants analysis.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the differences in the subjective QoL perceived by resident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among different settlement spaces. In order to cover the multifaceted nature of QoL, Amartya Sen's Capabilities Approach was reviewed. For the analysis 162 municipalities(si/gun) across the nation were categorized into three settlement types, namely Capital city area, Non-capital city

area, and rural area.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2018 were used as analysis data. The level of QoL was measured using the self-reported scores for overall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for each of the nine life domains.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level of QoL among the settlement types through more reliable methods. First,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he portion of satisfaction score attributed to the effe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was separated (fixed), and the portion of score attributed to the regional effect, that is si/gun subjective QoL score, was derived and compared. Second,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T)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was estimated and compared.

happiness of rural residents is higher than those of both Capital city area residents and Non-capital city area residents. When comparing between city types, the happiness of Capital city area residents was lower than that of residents of Non-capital city area,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satisfaction with local life, depending on the analysis method, rural (by ATT) or Capital city area (by si/gun subjective QoL scores) shows the highest level. However, in the case of local life satisfaction the difference among settlement types is not significant.

As the result of deriving comparative patterns between the settlement types for each of the nine domains, it is divided into the domains showing relative excellence in Capital cities and the other domains showing relative excellence in rural areas. While the subjective QoL of urban residents in the Capital city area is the highest in the domains of basic living environment, medical care, and culture/leisure, the subjective QoL of rural residents is the highest in the domains of environment, community, and welfare. No domains are found where Non-capital city area has the excellence.

The second part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QoL which are expected to be different among settlement types. The effect of the objective settlement conditions of the municipality(si/gun) on the subjective QoL of the residents was analyzed through separate models for each settlement type. To this end, we analyzed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in which si/gun subjective QoL scores were analyzed at city level, and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in which self-reported satisfaction was analyzed at city and individual level.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ffects of relatively important or scarce resources on the subjective QoL depending on the regional situation differed according to the typ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rural values clearly exist and are recognized by people even in the increasingly intensified urbanization trend. Non-capital city areas show an ambiguous position in terms of subjective QoL, suggesting that they may face more difficult situations in the future if they do not create unique values that people can pursue in the increasingly polarized urbanization trend.

Recently we often come across examples of people living in a new way of life in pursuit of local values outside of large cities. A change is also taking place towards an era of lifestyle where individuality, diversity, QoL, and social values are highly valued. In order for rural areas and non-capital cities to survive and flourish on the other side of the expanding force of urbanization, it is crucial to center on the substancial values with the emphasis of the uniqueness of each localities, and create values and new ways of life that people are willing to seek in the era of lifestyle.

keywords : quality of life, capabilities approach, settlement, urbanization, rual values

*Student Number* : 2012-30663